

월간 가든인 8월호

August 2014

Monthly

월간 가든인 8월호

August 2014 Monthly **Gardenin**

Special Feature

색으로 표현되는 정원의 조형식재

컬러 가든의 혼합



GARDENIN LIFE
8
VOL. 16

GARDEN DESIGNER



장애인을 위한 정원
환경과 휴지통

SECRET GARDEN



엘로우 가든
허브나라 농원
워터 가든

FLOWER GARDEN

정원 '속' 보이네
다육식물의 용도
이명호의 야생화

GARDENIN KITCHEN

DIY 디시가든
키친가든
성인병예방 - 보리

- 수락산 - 맛있는 정원
- 청어 - 숲에서 노는 청년들
- 제주 신라호텔 숨비정원

ISSN 2288-1719



10,000원

Gardenin Information

Garden & Movie, 가든인 Q&A, Book & Flower Festival, 지역별 수목원 식물원

화훼, 원예, 조경, 설치미술

총 망라한 경연대회

코리아 총 상금
3,000만원

플라워디자인

콘테스트

KOREA FLOWER DESIGN CONTEST

- 참가자격 제한없음 (개인 또는 단체)
- 작품유형 꽃을 이용한 공간디자인 (주제 제한 없음)
- 작품크기 가로*세로*높이 (3m×3m×3m) 이상 크기제한 없음
- 심사위원구성 화훼부분, 조경원예부분, 디자인부분, 미술부분, 철학부분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www.busanflower.co.kr>
문의전화 051-850-9962, 3

주최 - LetsRun PARK 부산경남 (구 부산경남 경마공원) 주관 - (사)부산플라워클러스터, **우미다**

전화문의 / 051) 850-9962~3
(코리아플라워디자인콘테스트 사무국)

2014.
09.26 (금) ~ 10.05 (일)

제7회 전국 초·중·고교 화훼장작 경진대회 (부대행사)

- 주최주관 부산광역시, (사)부산플라워클러스터
- 일시 2014.9.27 (토)
- 신청처다온웹주소 Daum카페 cafe.daum.net/kfpca
- E-mail zz3787@hanmail.net (메일접수)

Cover Story

8월 여름날 경원숙 수줍게 꽃대도 꺾꽂이 아래를 가이내며 저울 여름날 경원숙으로 유혹합니다. 에키네시아는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초본으로, 내한성의 뿌리와 줄기를 갖고 한여름-초가을에 걸쳐 석상화와 원숙화의 토착화로 이루어진 국화모양의 꽃. 속명은 그리이스어의 '고슴도치'를 의미하는 echinos에서 유래, 각각 월인국 종류들은 재배가 용이한 숙근초로 일반적으로 다소 그늘진 곳에서도 기를 수 있으나, 광량이 부족한 약지에서 더 잘 자라며 무더운 한계를 좋아한다. 한여름에 지나치게 강한 광선을 피할 수 있는 다소 그늘진 곳이라면 화색이 바뀌는 것을 막아 선명하게 유지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식물의 전달물과가 강한 모습을 가이내는 숙근 초 식물로서 경원에서는 누구에게 인정받는 조경소재이고, 아마도 경원을 사랑하는 소비자들에게 손꼽히는 식물군으로 인정받는 *Echinacea*, 화려한 경원속에 한 송이의 에키네시아의 존재는 경원 전체를 리드하는 이름 그대로 월인국입니다.

나미와 새들에게 꿀과 알곡을 제공하는 생태적 기호도 높은 식물로 최근 관심이 높아지며 네덜란드 육종가들에 의해 다양한 화색과 화형 및 크기의 식물종이 육성되어 큰 인기가 높으나, 우리꽃 연구소의 육종가들도 2015년 신종종의 화색들로 재탄을 기다립니다. 무더운 날이 계속 이어지며, 비가 부족했던 한여름의 장마에도 꺾꽂이 꽃대를 가이내며, 산색이 만개하는 무더위이지만 화려한 에키네시아가 경원에서 비모를 뽐내며 다들 주변의 꽃들과 어울린 속에서 뛰어난 모습을 가이냅니다.

TIP: 인디언들은 에키네시아 뿌리는 해독제용 약초로 사용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며 인체의 방어기능이 저하한 경우 걸리기 쉬운 감기나 감염증, 피부병(심근)나 세상에 파는 산채의 화력력을 높이는 데에 유용하다. 유럽에서는 양전하고 유용한 화초로서 널리 일상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토착종의 응용으로 다종화변과 조합하여 화생물종의 양을 감소시키려는 목적등에 사용된다.

대표적인 원종들

Echinacea angustifolia DC. *Echinacea purpurea*와 유사.
Echinacea pallida (Nutt.) 연한 자주색 꽃.
Echinacea paradoxa (Norton) Britton 노란색 꽃.
Echinacea purpurea (L.) Moench 자주색 꽃, 가장 흔히 재배된다.
Echinacea tenesseeensis (Beadle) Small 자주색 꽃, 석회암 지대 일부에서 성장.
Echinacea purpurea 'Kim's Knee' 비교적 키가 작은 품종으로 홍자색 꽃에 두성화서는 오렌지색.
Echinacea purpurea 'Little Giant' 원이 있는 홍적색 겹꽃이 피며 개화기가 길다.
Echinacea purpurea 'Magnus' 꽃잎이 크고 진홍색인 가장 보편적인 재배 품종.
Echinacea purpurea 'Razzmatazz' 작약모양의 꽃은 분홍색이고, 두성화서에 꽃잎이 발달하여 겹꽃처럼 보인다.
Echinacea purpurea 'Rubinstern' 꽃은 적자색이고, 개화기가 길며, 높이가 60~90cm 정도이다.
Echinacea purpurea 'White Swan' 종자선택 품종으로 꽃은 흰색이며, 두성화서가 노란색을 띤다.
Echinacea tenesseeensis 'Rocky Top Hybrids' 열중위기종의 종자선택 품종으로 분홍색 꽃은 바람개비 모양이며 태양을 향해 핀다.



Echinacea purpurea "White Swan"



Contents

Garden Design

- 3 cover story
- 6 발행인의 글 〈그리움〉 하얀 백합꽃 피워져간 네가
- 8 색으로 표현되는 정원의 혼합식재
컬러 가든의 혼합
- 14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정원
- 18 공간디자인 3 정원에 어울리는 꽃과 나무 고르기
- 24 분식물 장식의 디자인
- 29 환경과 쓰레기통

Secret Garden

- 34 Colour in the Garden
- 38 Water Garden
- 42 자연의 향기 그윽한 허브나눔원
- 48 수락산의 맛있는 정원
- 52 Gardener's Diary - 정원사의 일기 II

Flower Garden

- 56 박공영과 함께하는 정원식물의 '속' 훑쳐보기
- 60 여름의 여왕 원추리
- 62 다육식물 취미재배를 위한 환경-다육식물의 용토
- 65 여성초 차를 마세요

Gardenin Kitchen

- 66 손관화 교수의 정원구성 키친가든
- 70 가든디자이너 우정아의 DIY 가든
- 접시를 이용한 테이블 센터피스 디자인
- 72 안완식박사의 도시농업
- 성인병 예방을 위한 건강식품, 보리
- 76 차병원 수목진단센터장의 으뜸교육
- 가정원예병해충-농약

Gardenin Information

- 79 국화향기가 아름다운 사람들
- 80 제주 신라호텔 숭비정원
- 84 일상에서의 탈출 - 정원
- 88 YouTube로 여행가는 정원이야기
- 90 청어 '숨에서 노는 청년들'
- 98 유봉수의 Q&A
- 101 술개그들을 소개합니다
- 102 Garden & Movie
- 104 Book & Flower Festival
- 110 함께라서 가까워져 좋다 경기도권 수목원, 식물원



〈그리움〉

— 하얀 백합꽃 피워져간 네가 —

시인 김영재

서녘이 지무는 어스름
촉백나무 울 넘어 흐려진
너의 그림자

춤추는 어둠 새로
보일 듯 보이지 않던
네 모습을

소리 없이 지나는 실바람에도
이렇게 나는 그리움만 짓는구나
서러움만 짓는구나

초저녁 차곡차곡 쌓여가는
서녘 저문 촉백나무 울 곁에
하얀 백합꽃 피어난 너의 자리

그 향기 서리듯 흐려진 네 모습이
숲 안개 피어나듯 서려진다
만 세월 내내 그렇게 그리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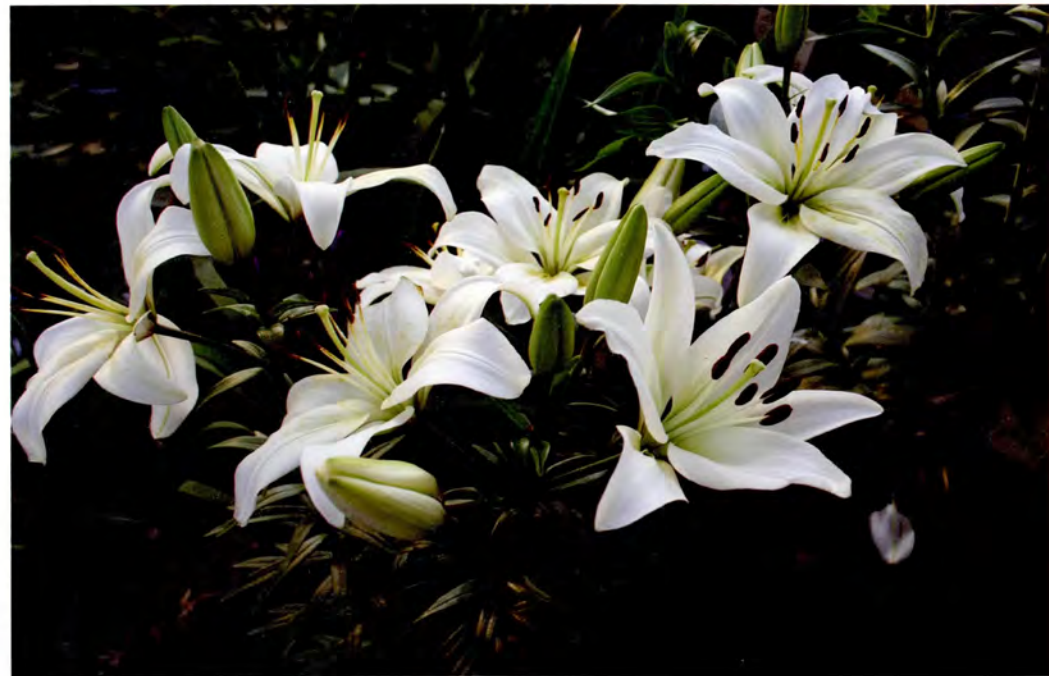
하~얀 백합꽃 피워져 간 네가
그 향기 안고 서려져간 네가
그리워진다 보고파진다.

(김영재) 하얀 백합꽃 피워져 간 네가
시인 김영재는 경희대학교 명예교수이며,
일반 가든인 발행인이다.

Lilium

천상의 아름다움 꽃나리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피우는 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으며
단일 대군락 식물들과의 혼성식재가 매우 유리하다.
정원용 품종들은 1회 식재 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식되는 것을 유념하여야 하며
재배시 토양은 물 빠짐이 양호하고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에서 재배한다.
다수의 품종은 수림의 반음지에서도 생육이 양호함을 주의하여야 한다.



》나리의 초장과 개화일

품 명	초 장(cm)	식재 후 개화일
뉴웨이브	50	85~95
몬 테	108	70~80
드 래 곤	38	60~70
키사블랑카	120	100
페인티드피시	45	75~80
핑크피시	75	85~95

문의처 : 031-634-7990, www.gardenjoa.com



박공영 회장

우리씨드그룹 / 이학박사

색으로 표현되는 정원의 혼합식재 컬러 가든의 혼합

8월은 정원의 계절에 있어 가장 힘든 시기이다. 그래서 우리 꽃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내기자들의 아이디어 회의 시간에 결정이 된 정원의 컬러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고 싶다. 우리 사내 기자들의 임무는 가든인의 필자나 기자가 작성한 원고를 이해 쉽게 사진으로 설명하거나 작은 쪽 기사를 작성하여 잡지의 재미를 더하는 업무가 진행된다. 물론 자발적인 참여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

가든인은 실용 잡지를 표방한다. 정원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이 담기고 서로 지식을 나누고 또, 간단하게 이해 할 수 있는 정원관리의 노하우 등을 쉽게 풀어 독자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잡지다.

사는 간혹 나를 당황스럽게도 하지만 우리 일반 독자들의 눈높이에는 오히려 맞을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재미있게 보고 있다.

그러나 가장 즐거운 일은 사내기자들의 노력과 참여로 서서히 실용 가든 잡지로의 변모가 느껴지고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장에서 생산하는 방법과 작은 곤충을 잡아내는 법, 잡초를 방지하는 법이나 또 내년을 위한 재충하는 방법 등 사실 정원의 가장 소소하고 일상적인 내용들을 몇 장의 사진을 통해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하는 이들의 노력이 소중하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표한다.

컬러정원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시 되었을 때 사내기자 각각이 하나의 컬러에 대한 정의와 색이 주는 가든의 의미에 대해서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너무나 전문적인 내용을 신입사원이 감당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을 것 같다는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 더욱이 그 부담으로 본 업무에 집중 할 수 없다는 하소연을 듣고 직접 작성하기로 하였다. 필자도 많은 컬러정원을 직접 조성하고도 임하였지만 막상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는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우선 기본부터 풀기로 했다. 꽃의 색상은 대체로 흰색, 빨강, 보라, 노랑, 파랑색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흰색이 지구상의 꽃 중에서 가장 많은 색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색이며 잎의 무늬에서도 흰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개성이 다 다른 만큼 사람들 열 명이면 열 명이 저마다 좋아하는 색은 다르다. 어떤 때는 이해 할 수 없는 식물을 제안 받을 때는 난감하기 그지없다. 언젠가는 어느 지 자체의 시장이 파스텔 톤을 좋아 한다고 모 든 꽃의 색을 중간색으로 하라는 강요가 있

었다. 때문에 흰색의 꽃을 적용할라치면 불호령이 내리기도 했던 웃지 못 할 기억이 있다.

흰색은 다른 대비되는 색의 꽃과 심으면 파스텔화 되어 그 색의 느낌이 변하는 것은 상식인데도 꽃의 색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뭉개는 일이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꽃과 정원을 누리지 못한 소양의 부족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필자는 색채학자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색채 학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1 정원의 화색이 주는 이미지

정원의 색은 정도(색의 톤)에 따라 정원의 느낌에 상당히 많은 변화와 또 그 안에서 얻고자 하는 효과가 색으로 인해 달라진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색은 보는 사람의 오감을 자극하고 이미지를 환기시키는 데, 그 중에서도 주된 감성 효과로는 다음과 같다.

색상은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으로 구분하는데 색에서 받는 따뜻함이나 차가움의 온도감은 빨강색과 오렌지, 노란색 등은 따뜻한 색이고 파랑 등 청색계의 색은 추운색이며 일반적인 자연색인 녹색이나 짙은 가지색 등은 따뜻함도 차가움도 느낄 수 없는 중성의 색이다. 이는 똑같은 장소에 있어도 따뜻한 색계통의 밝고 선명한 색은 크고 튀어나와 보이지만, 청색계는 어둡고 탁하며 적자색은 작고 끌려드는 모양이다.

같은 의미로 흰색이나 밝은 노랑과 같은 색은 가벼워 보이고 적자색이나 진한 붉은색의 경우 공간을 무겁게 느끼게 한다.

꽃의 색이 갖는 이미지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표현하는 진분홍이나 적자색의 경우 모란, 튜립, 끈끈이데나물, 페랭이, 후룩스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적자색의 선명함은 우리의 시선경을 자극하여 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변화롭고 화려하다. 이러한 색은 황색계나 오렌지색 계열과 혼합하면 엷은 핑크나 진한 핑크 등 같은 동일한 색계통의 농담으로 끝나 버리지만 청색 계와 합치면 일체감이 생계 조화가 이루어진다.

또한 후룩스 봄바람, 맥분동, 파랑의 수국, 아이리스 그리고 가을의 하늘용담과 같은 엷은 청색계열은 당귀와 배초향, 숙근사루비아 마르케스, 레드모사 등의 청자색계 품종과 만나면 고귀하고 우아한 이미지로 변한다.

직각력을 복돋아 주는 청자색은 정신의 심층부와 강하게 연결되어 사색을 하거나 통찰력을 필요로 할 때 감정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준다. 따라서 정신을 맑게 하고 마음의 안정과 휴식을 요하는 연구소나 바쁜 엔지니어링 사무실 공간의 정원이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의 정원색으로 좋다.

이들은 녹색이나 동색계열로 혼합하거나 황색과 혼합하여 눈빛을 길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청색계의 꽃색은 신뢰, 희망, 안심, 명정 등과 바다나 하늘과 같은 맑고 푸른 공간을 연상하게 한다. 따라서 신경을 많이 쓸 때나 흥분상태가 이어져 초조하여 불면상태일 때 청색 꽃은 마음을 평온하게 해 준다. 따라서 청소년이 있는 집이나 불면증이 있는 가정의 정원에 좀 더 많이 심는 것도 한 방법이고 간혹 정원의 수국이나 꼬리풀, 아이리스 등의 동색계 식물과 엷은 색의 핑크색 등을 섞어 꽃병에 꽂아 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여러가지 청색계열과 레드 그리고 오렌지색을 섞은 경계를 나타내는 정원은 인위적이 보일면서도 안정하고 활기 있는 리드미컬한 정원을 연출 했다. (2011년 영국 마스정원 대회 4등)



핑크색은 아름다운 색과 향기로 꿈을 꾸는 듯한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상하게 하는 꽃이다. 숙근 아네모네, 아스타 펠로우, 아스틸베 푸밀라, 거북머리, 여러 가지 페랭이, 카네이션, 분홍의 수국 등이 좋은 화색을 낸다.

핑크는 불안을 진정시키고 행복한 마음을 품은 색이다. 물론 장미, 국화 등의 살본 핑크 등과도 아주 좋은 조화를 이룬다.

황색은 유채색 중에서 명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눈에 잘 띄고 가까이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짙은 색과 혼합하면 대조를 이루기 쉽고 기억에 남기 때문에 전시용으로 이용할 때는 빠져서는 안 된다. 특히 밝은 노랑은 사람들의 기분을 들뜨게 하고 뇌를 자극하여 소극적인 기분을 일소시키고

파이팅하게 하는 면이 있어 사교적인 공간에 연출하면 좋다. 오렌지 계열과 혼합은 캐주얼한 느낌을 주고 청색 계열과는 샤프한 느낌을 준다.

오렌지색 계열은 노랑의 밝은 성격과 적색의 활동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씨 스텔라원추리, 산국, 코레우리 오렌지, 노랑 에키나, 숙근해바라기, 꽃백합 오렌지계, 동자꽃 등 주황색 계열은 특히 식욕을 돋구는 색이다. 사물을 전향적으로 잡아주어 에너지와 마음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색상으로 즐거움을 느끼게끔 함으로 식당의 정원 등에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비슷한 색상으로의 혼합은 따뜻함을 느끼게 하여 친숙함이나 단란함의 이미지로 준다.

빨강색은 떠오르는 햇살을 연상하는 강열함, 여름의 색이다.

붉은 카네이션은 어비날과 연결되는 생명의 이미지, 붉은 장미는 정열적인 사랑의 이미지로 연결된다.

짙은 적색은 쓰면 고급스러운 연출이 되기도 하지만 너무 무거워 질 수도 있어 장소를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흰색을 바탕으로 하여 배색하면 고급스럽고 중후하면서도 화려함을 연출할 수 있어 시도해 볼만하다.

흰색은 꽃의 색중에서도 가장 흔한 색이지만 다른 꽃들이 가진 느낌에 의해 확연하게 바뀌는 색이기도 하다. 포인트가 되는 것도 좋고 아니면 다른 포인트 식물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조연의 역할도 매우 잘하는 색이다.

백색은 자극적인 색을 지니지 않아 다른 색을 돋보이게 하거나 지나친 백색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색과 색 사이를 중계하는 편리한 색으로 이용하면 좋다. 순백색만으로 연출 할 때는 크림색이나 약간의 핑크색 혹은 연한 하늘색 등과 혼합하여 백색의 정원을 연출하면 순결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백색을 하나의 종류로만 연출하게 되면 유지한 정원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 한다. 백색이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색이다.

2 색의 정원, 실제와 이해

1) 무겁고 고급스러운 적자색의 정원 - Red, Purple Color

적색은 화려함과 정열의 색이다. 그러나 적색의 단풍나무와 적자색의 벚꽃나무와 몇몇의 암적색은 사람의 느낌을 무겁게 하고 엄숙하게도 한다.

〈사진 1〉은 필자가 2005년 첼시 플라워 쇼를 참관했을 때 출품되었던 정원으로 암적색의 톤을 전문적으로 이용한 정원이 되겠다.

이 정원은 참 무겁게 느껴진다. 그러나 안정감과 고급스러움을 주고 있고 뭔가 좋은 새로움이 일어날 것만 같은 생각이 들게 한다. 교목으로는 적단풍과 적엽자두 그리고 암갈색의 자작나무가 이용되었고 관목으로 적자색의 딱총나무와 매자나무



사진 2

그리고 빨강의 장미를 포인트로 강조했다. 초물로 이용된 적자색의 식물들은 대표적인 뉴질랜드삼(*Phormium tenax*)과 맥문동 “흑룡”, 휴케라, 회향 등의 적자색 무늬 종을 이용하여 통일감을 주고 벤치 주변에는 청색의 ‘제비꼬깔’과 분홍색의 디



사진 1

기탈리스, 파랑의 사루비아와 파스텔 톤의 버바스컴을 일부 적용하여 약간의 다른 색을 적용한 정원이다. 안정적이면서도 힘이 있는 정원의 연출이 되었다. 〈사진 2〉의 경우 단풍과 아스텔베 그리고 적자색의 카라의 강렬하고 정열적인 힘이 느껴지는 모습으로 〈사진 1〉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 외에도 이와 같은 아이템에 쓸 수 있는 식물은 적엽펜스테몬, 적엽질경이, 적엽벚꽃, 적엽 국수나무, 아주가와 단풍세덤, 붉은애기평의 비름, 눈붉은평의 비름, 꼬리큰평의 비름종류와 적자색의 잎을 갖는 가우라와 붉은잎동자, 숙근사루비아 ‘레드모사’, 삼색조팝, 홍미와 적엽클로버와 갈사초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색과 식물 본연의 느낌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정원테마는 열린 공간보다는 다쳐진 공간이나 경계를 구분하는 정원에 이용해도 좋을 것이다.

2) 감정을 차분하게 안정과 희망의 정원 - Blue Color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색이 청색과 녹색이다.



사진 3



사진 4

Blue 1 : 파랑의 색상은 안정되고 활기찬 느낌과 눈을 매우 편안하게 해 준다. 이곳은 2011프랑스 소용 정원박람회장의 진입로에 형성된 정원으로 단순하면서도 오픈된 곳에 연출하기에 알맞다. 주요 식물로는 패츨리아와 사루비아, 이소토마, 허왕의 가우라 등 단 4종의 식물을 적용한 정원이다.

〈사진 4〉의 정원은 〈사진 3〉과 연결된 정원인데 식물의 조성을 조금 바꾸어 표현했고 〈사진 3〉이 직선적 연출이라면 〈사진 4〉는 곡선의 구조물을 주어 좀 더 활력 있는 정원을 구성했다. 물론 이용된 수목도 차이 있는 수형의 나무들로 적용되었다.

적용식물을 키낮은 물망초와 사루비아, 이질풀, 매발톱 등을 적용하였다.

이 외에도 이와 유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식물로는 배초향, 왕아주가, 하늘매발톱, 아스타 ‘발라드’, 초롱꽃 ‘젠트벨’, 층꽃, 클레마티스 ‘아스코’, ‘가넷’, ‘키트니’, ‘프레지던트’ 등의 덩굴성을 이용해도 좋을 것이며 우리의 용머리, 절굿대, 만약 물을 도입한다면 부레옥잠의 파란꽃도 잘 어울릴 것이다. 하늘용담의 강한 청동색은 가을을 잘 표현 해 줄 것이다. 음지쪽의 관목으로 산수국도 요긴하다. 도라지를 흰색과 혼합해 연하게 색을 배색하거나 꽃잔디 에메랄드와 봄바람으로 이른 봄을 디자인해도 좋다. 물론 여기에도 사용되었지만 숙근사루비아와 꼬리풀 종류도 멋지게 적용될 것이다. 만약 화분과의 직림의 선이 필요하다면 새 ‘블루마운틴’ 혹은 꽃기장 ‘헤비메탈’을 중간 중간 섞어 심으면 심비감도 줄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자연의 색이라 할 수 있다. 녹색은 중성의 색으로 일반적이지만 청색계열은 하늘과 바다 강물 바람 등을 연상시키는 색이다. 〈사진 3〉 2005년 첼시의 출품작으로 연한 청색에서 짙은 청색을 이용한 정원으로서 벽과 구조물들을 자연색 혹은 밝은 색을 이용하여 희망과 안정을 추구한 정원이다. 보는 것만으로 정신이 안정되고 특히 시원할 것 같은 착각을 들게도 한다. 연한색의 물망초와, 지취, 파리풀을 기본으로 하여 틀을 잡고 거기에 서면아리리스의 맑은 색과 짙은 청색을 섞었고 또한 파랑의 캄파눌라를 포인트처럼 이용했다.

구조물은 목재의 편안함과 화이트 색의 바닥으로 한층 더 편안함을 연출했고 한편으로 물을 도입해 더 안정감과 심미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쉽게 가는 길'이라고 써 있는 표지판.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보다 거동이 힘든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란 표시를 함으로써 작은 것 하나에도 배려심이 느껴진다.



Garden for disabled people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정원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위한 인식도 그들을 위한 시설도 취약하다.

영국의 Disabled People's Garden이라는 것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몸이 불편한 연세 지긋한 노인들, 일반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정원. 따로 하는 것이 아닌 함께 하는 정원을 보았다. 우리도 함께하는 그리고 함께 즐기는 정원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 사진 서수현 가든디자이너



영국의 8월은 따사로운 햇볕이 내리쬐긴 하지만 정원 일을 하는데 안성맞춤이다.

햇빛을 한 몸에 받아 탑스러운 열매를 맺거나 화려한 꽃을 뿜내는 식물들이 정원을 가득 메워주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빠질 수 없는 우중충한 날씨보다 여름엔 가끔씩 예기치 않고 내려주는 소나기가 정원 여행에서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어 준다. 축축하게 젖은 싱그러운 초록 잎들은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다. 이런 좋은 경험들을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을까? 정원을 만들고 가꾸고 즐기는 것이 일반사람들에게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내 몸이 건강하고 자유로웠을 때 그저 무심하게 지나쳐 버리고 생각지 못하는 것들이었지만 임신을 했을 때 혹은 아이를 데리고 정원 여행을 할 때 직접 경험 해 보니 어떤 것들이 불편했고 또는 필요한 것들인지 알 수 있었다. 다리가 불편하거나 걷는 것이 힘든 노인 분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 생각을 하니 정원에 만들어 놓은 의자나 계단, 슬로프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입구에서 별집모양의 돔으로 만들어진 eden project로 가는 길. 쉽게 가는 길의 모습. 이곳으로 우리나라 서울대공원의 코끼리 열차 같은 차량도 운행을 하기 때문에 길이 넓게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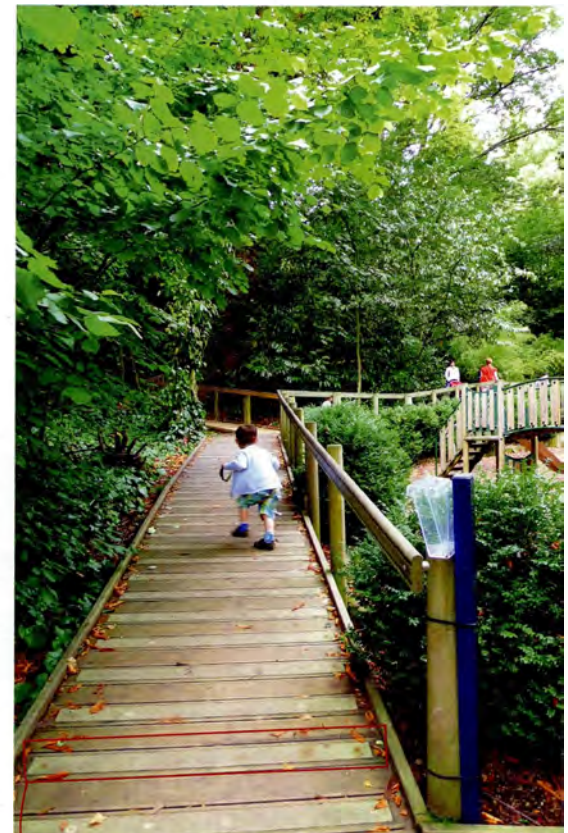


“ 자연을 보존하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

평등한 인류의 삶을 위해 자연과 사람을 아끼는..

영국의 정원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 잘 되어 있다.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정원을 보면 휠체어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Disabled People'을 위한 길이 있다. 'Disabled people' 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을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즉, 노인부터 임산부 등 일반인들처럼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두 통틀어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누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편견 혹은 차별을 만들 수 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조금의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 영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휠체어를 탄 사람 혹은 장애인 전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차별 어린 시선보다는 배려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것을 생활화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모든 버스는 유모차나 휠체어가 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높낮이가 조절되고 이런 경우 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기다려주는 시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 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자가용 없이 유모차만 끌고 시내를 편하게 다니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장애인용 버스들이 생기긴 했지만 아직 모든 버스가 그렇지는 못하고 유모차를 들고 타고 하더라도 짐을 챙겨 버스를 탈 동안 어유롭게 기다려줄 버스가 몇이나 될까. 모든 것이 너무 느린 영국에서 단 하나 부러운 점이 있다면 아마 이런 사람들의 어유로움일 것이다.

'Disabled People'을 위해 데크로 칸 슬로프 길을 만들어 놓았다. 휠체어나 뛰어다니는 어린이들이 미끄러워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패드를 깔아놓았다



미끄럼방지패드



정원 곳곳에는 정원을 감상할 수 있는 벤치가 마련되어 있어 걷다가 잠시 쉬어갈 수 있다.

영국사람들의 세심한 배려는 정원에서도 잘 나타난다. 정원 여행을 하면서 어떤 식물이 얼마나 아름답게 디자인 되어있을까 하는 것도 물론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이지만 각각의 다른 정원들이 어떤 시설물들을 만들어 놓았을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관심사이다.

표지판부터 길의 재질까지 그저 쉽게 만들어진 정원은 없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길'을 편

하게 만들었다. 경사가 높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넓게 만들어 주어 휠체어를 탄 사람이나 거동이 느린 사람이 자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정원을 즐기게 만들어 준다. 영국 콘웰 지역에 있는 Eden project 정원은 이런 시설물들을 잘 만든 정원 중에 하나이다. 정원을 통한 아이들의 교육을 우선적으로 생각한 이 정원은 입구에서부터 정원으로 가는 길을 쉽고 편한 길과 짧지만 힘들게 하는 길 등 다양한 길을 만들어 '장애인이 가는 길'이 아닌 '모두가 갈 수 있는 길'이란 것을 알려준다.

모두가 이용하는 길 중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조금 멀지만 쉬운 길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장애인이 배척해야 하는 존재가 아닌 같이 공존해서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배운다.

일반적인 정원에 'Disabled people'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시설물을 만든 곳도 있지만 직접 가르고 디자인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정원도 있다.

정원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노부부의 다양한 모습일 것이다. 한평생 인생의 동반자로 걸어온 부부가 정원에서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 준다.



'The Green Circle Garden'이라고 하는 정원은 휠체어를 탄 사람이 손을 뻗을 수 있는 각도와 높이를 생각하여 만든 화분을 원형으로 돌려 만들어 놓은 정원이다. 이는 가드닝을 통한 심리치료의 목적으로 만들 수도 있으며 나아가 든 노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요양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옥상 등에 정원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노인을 위한 정원, 장애인을 위한 정원 등 어떤 테마를 가진 정원이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원은 자연 그대로가 아닌 사람이 만든 공간이기 때문이다. 편하고 즐겁게 정원을 즐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좋은 정원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어든 비장애인어든 차별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정원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디자인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Think NOW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권헌장 제 3조

NIMBY현상을 기억하는가. 쓰레기소각장, 장애인시설 등 필요한 것이고 찬성하는 것이지만 NOT IN MY BACK YARD 직역해서 내 집 뒷마당엔 안돼라는 지역이기주의의 현상이다. 여기서 기피시설안에 마약, 범죄치료센터와 함께 장애인시설도 포함된다. 쉽게 말해 장애인복지관을 만들자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내 집 근처에는 안되며 유치원, 어린이집에 장애아동을 함께 교육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내 아이가 다니는 곳에서는 안된다 생각하는 부분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장애인을 바라보고 있다.

"나는 정상인, 너는 장애인"이라는 시각으로 그들을 보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위의 장애인 인권헌장처럼 동등한 시민권과 권리를 가진다는 것에 포인트를 주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은 불쌍하고 도와주어야 하며 기피하고 싶은 대상이 아니다.

2012년 제주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한 대학생 장애인식조사를 보면 우리는 무언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과 마주쳤을 때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도움을 것을 찾는다 답했고 또 동정심이 든다고 답했다. 또 무섭다는 답도 있다. 왜 그들은 도움을 받아야 하고 동정심을 받아야 하며 무서운 대상인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라는 것이 왜 생겨났을까?

"나는 정상, 너는 비정상"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닐까?

그들과 함께하는 편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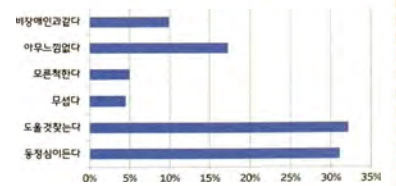
누구나 다 늙고 언젠가 다칠 수 있으며 병이 들 수 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함께 호흡하는 공간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정원이다. 함께 아름답고 향기롭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연과 함께 숨쉬며 동화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만들어져서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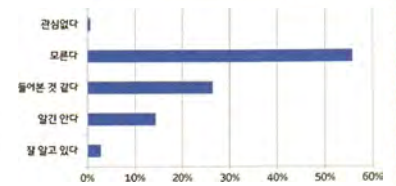
사실 공원이 생겨도 실제 이용자는 장애인들보다 비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먼저 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다.



장애인과 마주쳤을 때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아십니까?



글 / 이 진화
도움주신 분 / SK대학생자원봉사팀 교류운영팀 이영현



임 준 화
(유)아미디얼가든 대표

정원에 어울리는 꽃과 나무 고르기

“

지난 회에는 정원디자인을 하기 위해 내가 만들기 원하는 정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정원 부지조사와 분석, 공간 배치를 바탕으로 정원 공간을 디자인 하는 것에 대해 알아 보았다.

이번 회에서는 정원에 심을 "식재의 선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식재 디자인을 하기 위해 식물을 배치할 때 정원의 환경, 정원의 스타일과 테마, 식물의 색상, 식물의 개화시기, 식물의 질감, 식물의 형태, 이 여섯 가지는 잊지 말고 반드시 체크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다.

”

산수국, 호스타 종류, 노루오줌도 그늘을 좋아하는 식물들이다.



정원의 환경에 맞는 식물 고르기

1) 토양의 성질에 맞는 식물 고르기

토양의 성질은 흙의 알갱이 굵기에 따른 물리적 성질과 흙의 산성도를 나타내는 화학적 성질로 나뉜다. 흙의 산성도란 흙 속의 수소 농도 수준을 말하는데 영양분의 용해나 생육에 영향을 주므로 토양의 산성도 파악은 중요하다. 산성도는 pH로 나타내며 0-14까지로 표시, 숫자가 높을수록 알칼리성이 강하고 낮을수록 산성이 강함을 나타낸다. 식물의 성장 가능 범위는 3.5-8.5이고 일반적으로는 pH6-7인 약산성과 중성인 상태에서 가장 잘 자란다. 산성을 좋아하는 식물로는 철쭉류, 소나무, 클레마티스, 블루베리 등이 있고 알칼리성 토양을 좋아하는 식물에는 라벤더, 백리향, 양귀비, 오레가노 등이 있다.

2) 햇빛

햇빛은 식물이 자라는데 없어서는 안될 요소이지만 정원을 가꿀 때 보통 쉽게 간과하는 것 중 하나이다. 식물이 필요로 하는 햇빛의 양은 식물마다 다른데 선호하는 햇빛 양에 따라 양지식물, 음지식물, 반 음지식물로 나뉜다. 정원의 하루 중 그리고 사계절 동안 햇빛이 드는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거기에 맞는 식물을 선택할 수 있다. 모든 정원에는 햇빛이 잘 드는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늘이 지는 공간이 있기 마련이다. 자연의 숲 속에는 키 큰 나무 아래 자라는 관목과 초화가 많은데, 이런 종류의 식물이 그늘이나 반그늘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다. 그늘 식물에는 대부분 화려한 꽃이 피는 것보다는 잎의 모양이 크고 강하며 질감이 반짝거리는 초록 식물이 많다. 따라서 이런 특

징을 이용하면 은근한 멋을 내는 그늘 정원을 만들 수 있다. 음지식물들로는 옥잠화, 백문동, 앵초, 관중, 노루오줌, 산수국 등이 있다.

3) 온도에 맞는 식물의 고르기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적당한 온도가 필요한데, 이러한 생육 적온은 식물의 종류와 환경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대체적으로 섭씨 7-30도 사이에서 잘 자라는데, 이러한 생육 적온 외에도 생육할 수 있는 한계 온도인 생육 최저온도와 생육 최고온도가 식물에 따라 각기 다르다. 정원에는 다양한 꽃과 나무를 심으므로 이러한 생육온도를 고려하여 계절별로 잘 견디는 별 수 있는 식물들을 골라야 한다. 예를 들어 꽃의 종류로는 안개꽃, 데이지, 팬지, 카네이션, 스위트피, 로벨리아, 베베나, 시금치, 상추, 배추, 재래늘, 우단동자, 램스이어, 아티초크 등이 등은 선선한 기온을 좋아하므로 봄이나 가을에 개화할 수 있도록 하며 장마철을 거치지 않도록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여름 장마는 선선한 기온을 좋아하는 위 식물들에게는 치명적이다.



잎의 모양이 두드러지는 연꽃과 가는 질감의 속새, 그리고 두뇌의 질감이 아름다운 붓꽃이 잘 어우러져 아름다운 수생 정원을 연출하고 있다.

4) 물

수분이 많은 곳에 잘 자라는 식물이 있는 반면 수분이 적은 곳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 있기 때문에, 식물의 생육 조건에 맞추어 식물을 선택해야 한다. 수생 식물을 심을 때 주의할 점은 간결함을 유지함으로써 수공간간의 느낌이 묻혀 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수생 식물은 잎이 크고 모양이 두드러지는 것이 많아서 혼합 식재 하기에는 비교적 수월하며 수질을 정화시킬 수 있는 식물을 선택하면 수공간간의 오염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식물들은 대부분 빨리 자라는 습성이 있어 잘 관리해 주지 않으면 전체 정원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커지거나, 반대로 산만하게 정원의 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수생 정원에 적당한 식물들로는 연, 수련, 붓꽃, 물란나, 속새, 부들, 갈대, 프리물라, 호스타, 아스탈베 등이 있다. 선인장과 다육식물 같은 건생식물은 토양이 건조한 곳에서 잘 자라며 고산 식물은 수분이 없고 흙의 양이 적은 곳에서 잘 자라므로 암석가든(rock garden)에 배치할 수 있다. 그러나 건생 식물이나 암석가든 식물도 월동 여부를 잘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식재 스타일과 테마에 맞는 식물 고르기

1) 혼합식재(Mixed Planting)

교목과 관목, 초화를 골고루 심어 연중 다양한 모습의 정원을 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식인 혼합 식재는 정원의 크기와 무관하게 가장 흔하게 쓰이는 식재 스타일이다. 먼저 전체적인 구조와 스타일에 맞게 키 큰 나무를 배치하는데 작은 정원이라면 너무 빨리 자라는 나무 수종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사계절 푸른 상록수를 심는 것도 잊으면 안 된다. 다음으로 크고 작은 관목을 배치하며, 덩굴식물을 배치한다. 관목을 배치할 때는 나무의 수형, 질감, 꽃, 열매, 단풍의 색도 고려한다. 화양목이나 주목, 장미로 만든 다양한 토피어리를 이용하면 정원에 훨씬 장식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장식용으로 심는 나무는 수형이 좋고 질감도 두드러지고 여러 계절 동안 아름다운 수종을 선택하면 좋다. 마지막으로 흥미롭고 화려한 초화를 채워 넣는다. 전체적인 색상 계획이나 환경에 맞는 초화를 고르며, 상록성의 초화를 선택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한다. 혼합식재 스타일의 가장 큰 장점은 빠대가 교목, 관목, 상록 식물 등의 활용으로 겨울에도 황량하지 않다는 점이다.



목수국, 황금색 그라스, 실버색의 무던둥지, 작약이 식재된 혼합식재 화단이다.

3) 모던 미니멀리즘 식재

(Modernist and Minimalist Planting)

이 유형의 식재는 현대식 정원에 맞게 식재하는 것으로서 구조적인 느낌이 강한 식물들을 삼기도 하며 한가지의 식물들을 구역으로 나누어 최소한의 표현만 하는 식으로 연출하여 모던하고 통일성 있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모던 미니멀리즘 식재는 식물의 전체적인 형태나 구조, 느낌을 식물의 색상만큼이나 중요하게 강조한다. 그런 점에서 나무의 형태를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다듬은 토피어리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2) 영국식 초화화단 식재

(English Traditional Herbaceous Planting)

영국식 초화화단 식재 스타일은 영국의 전통적인 식재 스타일로 로 맨틱하며, 꽃이 화려한 것이 특징이다. 거투르드 지킬(Gertrude Jekyll)에 의해 완성되고 유행하게 되어 영국 정원의 특징이 된 식재 스타일로, 1, 2년생의 초화와 다년생 초화만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고 화려한 화단을 만들어낸다. 또한 꽃의 색과 질감, 형태를 가장 적절하게 조합하여 아름답고도 흥미로운 화단을 만든다. 대부분 초화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자라는 종류가 많아서, 화려한 화단을 만들려면 양지 바른 곳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원예지식이 많이 필요하고 관리에 많은 시간이 든다는 점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나, 가드닝에 정말 취미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형태의 정원만큼 매력적인 것도 없으며 디자인의 성취감도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 나라의 경우 이 스타일은 여름에 절정의 화려함을 보여주지만 겨울이 황량하기 때문에 전체 정원에 하기보다는 한 부분을 택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다.



다양한 다년생 초화로 이루어진 화단이 여름의 정경을 기다리고 있다.



질감이 드라마틱하게 다른 두 가지 식물을 비별모양으로 다듬어 식재하여 모던 이미지를 만들어 주고 있다.

4) 자연주의적 식재 (Naturalistic Planting)

이 유형에서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복제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부분 자생하는 종류의 식물을 자연스럽게 심는다. 부지나 토양의 상태만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식물을 심어 두기 만하고 자연 스스로 적응하게 내버려 둔다. 주의할 점은 자생력이 강한 종자로 선택해야 잡초 등과의 경쟁하여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스타일은 비교적 크고 자연스러운 정원에 어울린다. 최근에는 특수한 환경에서 자라는 식물로만 식재하는 새로운 스타일이 유행하는 편이다. 정원 자체의 디자인은 가장 현대적인 형태를 따르도록 하면서 그 안의 화단에서의 식재는 자연주의 스타일을 따르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자생력이 강한 그라스와 자생 식물을 심어 와일드 가든의 느낌을 살려주고 있다.

5) 플라워 카펫 스타일 식재

(Flower Carpet Planting)

주로 일년생 화려한 초화를 주제와 색채 계획에 맞추어 화려하게 심는 방법이다. 온실에서 키운 일년생 초화를 심어 화단을 빨리 화려하게 만들 수 있으며 계절마다 다른 느낌으로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늘 화려하게 장식해야 하는 곳에 유용하다. 또한 주제를 이야기로 풀어 나가는데 표현력이 뛰어나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도 많이 활용된다. 그러나 단순하고 지루한 느낌도 주는데, 요즘은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관목이나 다년생을 섞어 심어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기도 한다. 플라워 카펫 화단을 만들 때는 색이 화려하고 꽃이 피어있는 기간이 길거나 잎의 색이 아름다운 식물을 선택한다.



4. 색상 (Color)에 맞는 식물 고르기

식물의 색의 테마를 정할 때에는 개인의 선호도에 의한 것도 있지만 정원의 스타일이나 컨셉에 맞는 색상을 선택한다. 일반적으로 배경이 되는 식물은 부드럽고 톤이 낮은 식물을 선택하며, 강조점(accent)이 되는 식물은 흰색이나 강한 톤의 색을 선택한다. 물론 강조점은 너무 먼 곳에 배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동일색 계열의 배합, 보색계열의 배합, 다양한 색의 조합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밝고 활기찬 계열의 색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이동을 유도하고 싶을 때는 밝은 색의 식물을 배치한다. 멀리 보이게 하는 색에는 차가운 블루나 그린 색의 계열이 있으며, 따뜻한 색은 가까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식물의 색은 꽃의 색은 물론이고 잎의 색도 중요하므로 잎의 색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1) 강력한 색의 조합(Hot Color)의 꽃은 다양리아, 원추리, 향련화 등이 있는데 따뜻한 강렬하고 활기찬 색동감에 있으나 거칠고 공격적인 느낌도 함께 가지고 있다. 화려한 색들은 시선을 끄는 경향이 있어서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한다. 강한 색상은 공간을 좀 더 보이게 함으로 작은 정원에 지나치게 많이 심지 않는 것이 좋다.

2) 블루, 핑크, 보라색 등 보라계 계열의 색상은 편안함과 휴식을 주며,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작은 정원에 효과적이다. 온색의 잎을 가진 식물이나 분홍색도 이 계열의 색상과 잘 어울린다. 포플, 클레마티스, 라벤더, 알로에, 달파울, 사루비아, 로빈리아 등이 있다.

3) 분홍색과 블루 색 그리고 옅은 보라계 계열의 조합은 낙엽적하고 화려하며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을 준다. 분홍색의 장미, 오만동자, 사피니아, 아케미아, 금낭화, 히메노미스, 루크스, 포스글로브 등이 여기에 속한다.

4) 다채로운 식재는 지루하고 단조롭게 그치지 않게 하는 스타일이지만 흰색의 조합은 요즘 많은 정원에 등장하고 있다. 흰색의 차분한 느낌과 다채로운 정원의 품격을 한층 더해준다. 굳이 꽃이 흰색이 아니더라도 잎이 온색을 띄는 식물들과 다양한 질감의 식물을 혼용하면 아름다운 정원이 된다.

5) 다양한 질감과 색, 형태를 가진 상록식물의 조합은 사계절 모두 즐길 수 있는 장점을 때문에 더욱 선호하는 스타일이다. 상록수와 하디마드 미세한 색의 차이를 있으므로 은빛의 나무, 황금빛의 나무, 원추리의 나무, 옅은색 피어가는 나무와 같이 그 특징을 잘 활용한다면 화려한 꽃 없이도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 수 있다. 더구나 겨울이 긴 우리나라에서는 활용해 볼 만하다.



은색 무늬 그라스, 흰 풍접초, 유카, 둥근 회양목이 어우러진 화이트 가든이다.



5. 질감이 좋은 식물 고르기

일반인들은 식물의 질감에 대해서는 천이나 다른 인테리어 자재의 질감을 고려한 것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식물의 줄기와 잎의 질감은 시각적으로나, 감각적으로 식재 디자인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식물의 질감에는 잎의 모양, 색, 표면 느낌 모두 포함된다. 부드럽고 자잘한 질감의 식물은 배경이나 그룹으로 모아 식재를 하면 좋고 기질고 두드러진 질감의 식물은 포인트로 많이 이용한다. 전자의 예로는 공단과 같은 부드러운 느낌의 램스이어, 살랑이는 솜털과 같은 포니테일 그라스,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관중과 같은 고사리류, 매끈한 토란 잎을 들 수 있다. 나무 중에서도 질감이 고운 것들이 있다. 회양목이나 주목과 같은 고운 질감의 식물은 토피어리 모양으로 만들어 강한 형태로 재현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유카, 잔나, 소철, 알로에, 피마자, 아티초크는 강렬한 질감을 갖고 있다. 질감은 비슷한 것끼리 모으는 것보다는 다양한 것들을 잘 배치하면 정원의 고급스러움이 한층 더해진다. 수크령, 억새 등 그라스와 오죽이나 조릿대, 사사 등 대나무 종류의 식물은 독특한 잎의 모양과 색이 있어 필요한 부분에 적당히 넣어 정원의 멋스러움을 살릴 수 있다.

자주색 잎의 수국, 황금색의 황금 초팝, 그리고 무늬가 있는 무늬 붓꽃을 혼합 식재하여 화단에 생동감을 더해 주고 있다.



6. 형태가 다양한 식물 고르기

식물의 형태는 잎이 피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한 전체적인 형태를 말하는데, 이는 식물을 조합하여 배치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식재 디자인은 식물의 색, 질감, 형태를 골고루 고려하여 배치하는데 식물의 형태나 질감은 늘 같이 고려되는 요소이기도 한다. 나무의 형태에는 둥근형, 피라미드형, 기둥형, 늘어지는 형, 당굴형, 옆으로 퍼지는 형 등 다양한데, 이를 디자인에 적용하면 재미있는 정원을 만들 수 있다. 초화는 나무보다는 형태가 두드러지지 않는 않지만 꽃의 모양, 줄기가 뻗은 모양이 다양하고 계절에 따라 형태가 드라마틱하게 변화하는 장점이 있다.

7. 개화 시기에 맞는 식물 고르기

정원을 사계절 볼거리가 풍부한 정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꽃이 피는 시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한 가지 꽃에 집중하면 그 개화기에는 볼거리가 풍성하지만 나머지 오랜 시간 동안 정원이 비어 있게 된다. 이런 점 때문에 다양한 시기에 꽃이 피도록 혼합 식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어떻게 꽃이 피는 시기를 골고루 배치할 수 있을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정원에 심을 식물 목록을 만들어 꽃의 이름과 크기, 색깔, 일 년 열 두 달에 해당하는 칸을 만든다. 그리고 여기에 꽃이 피는 계절과 색을 그려 넣으면 꽃 색과 계절, 상록식물의 비율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꽃 피는 시기가 한 계절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 봄부터 늦가을까지 생동감 있는 정원이 될 수 있다.



둥근 모양의 셀릭스가 자칫 높이가 면에서 심심할 수도 있는 포말기든에 흥미를 더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마무리 글

정원 디자인에 있어서 식물의 선택은 정원에 생명을 불어넣어 비로소 정원이 정원다워지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다양한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식물을 선택해야 하므로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한다. 그러나 식물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쉽게 할 수 있으므로 식물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조화 (Harmony)	조화 (Harmony) / 조화 (Harmony)
통일 (Unity)	통일 (Unity) / 통일 (Unity)
변화 (Transition)	변화 (Transition) / 변화 (Transition)
균형 (Balance)	균형 (Balance) / 균형 (Balance)
우위 (Dominance)	우위 (Dominance) / 우위 (Dominance)

분식물 장식의 디자인

분식물 장식, 실내정원 디자인은 과학 이론처럼 명확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행히도, 좋은 디자인과 나쁜 디자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디자인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원을 만들 때 디자인 원리를 사용해야만 하는 규칙은 아니다. 하지만, 정원을 구성할 때 디자인 원리를 알고 있으면, 유용한 도움이 될 수 있고, 나에게 숨겨진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글/사진 정순진
농촌진흥청
도시농업연구팀 농업연구사

1) 조화(Harmony)와 통일(Unity)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 변화, 균형, 강조, 연속, 비례를 서로 조합하면 얻을 수 있다. 이들 요소를 조화롭게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식물의 형태, 색채, 질감 등의 물리적인 식물의 특성을 이용해야 한다.

2) 변화(Transition)

식물의 형태, 색채, 질감의 다양성과 리듬감, 대비감 등의 변화는 흥미를 유발한다. 이는 식재 디자인의 지루한 분위기를 덜어 준다. 변화는 다양한 질감, 형태, 색상이나 크기가 다른 요소들에 의한 단계적,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의 배열로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변화 있는 정원을 만들려면

① 식물의 크기나 자연 소재를 활용한 계단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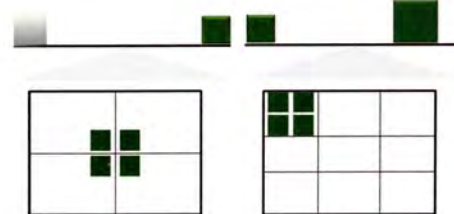
② 식물 색깔이 주는 느낌에 따른 식물 배치 방법
바라보는 곳 중심으로 가까운 곳에는 따뜻한 노랑, 오렌지, 빨강 계열의 색으로 배치하고, 먼 곳에는 더 먼 느낌이 들도록 차가운(파랑, 보라) 계열의 색 또는 은색, 백색의 식물을 배치한다.

③ 정원의 앞쪽으로 부드러운 감촉의 작은 잎이 달린 식물, 뒤쪽으로는 질감이 거칠고 무게감이 있는 큰 잎의 식물을 배치한다. 무거운 질감 식물이 프레임 역할을 하고 미세한 질감의 식물을 받쳐주기 때문에 아름다운 선을 만들 수 있다.



3) 균형 (Balance)

자원의 원리와 같이 둘 이상의 힘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대칭 균형은 가장 완벽하며, 단순한 형을 말하고, 비대칭 균형은 대칭보다 더 동적이고 어렵지만, 더 재미있다. 시소의 가까운 곳보다 먼 곳에서 무게감이 다른 물체를 넣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크고 어두운 물체가 작거나 가벼운 물체로 균형을 이룰 수도 있다. 이처럼, 정원에 사용할 수 있는 균형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고, 형태적인 균형감 이외에도 식물의 공간에서 받는 시각적인 무게감의 균형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시각의 편중

인간의 시선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중심축으로부터 양편의 균형을 같게 보지 않고 우측에 힘을 실어 무게를 주고 보는 습성이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그림을 거울에 비추어 반대로 놓고 보면 무게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볼 수 있다.

- 석박작이나 목박작, 손목경작 모두는 우측을 약간 기워서 하는 동시에 좌측에 약간의 무게를 더해 주어야 균형이 유지되며 쾌적한 안감을 갖게 된다.



▶ 대칭 균형 (Symmetrical Balance)_절대적인 균형

디자인의 모든 요소(모양, 형태, 식물의 높이, 식물 그룹화, 색상, 화단 모양 등)가 동일하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다. 기하학적 정원은 대부분 대칭이다. 깔끔한 선, 거울에 반사된 이미지, 기하학적인 모양 등은 자연의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지만, 안정과 질서의 느낌이 드는 정원을 연출하고자 할 때 적용하면 된다.

※ 대칭 정원을 만들려면

- 정원의 시작과 끝에 축을 중심으로 종이를 반으로 접었다 펼친 것처럼 권목을 심거나 커다란 컨테이너 가든을 배치한다.
- 올타리, 침의 벽 등 눈에 띄는 사물에 대한 경계선을 일치시킨다.
- 유지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해야 한다. 식물의 성장, 천정하지 없음, 색깔의 차이 등 대칭적인 균형을 잃어버리는 경우, 미적인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다.



영국 위슬라가든
건조형 식물의 일정한 정형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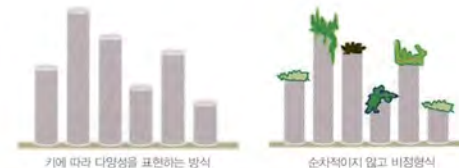
프랑스 빌랑드리가든
다양한 색상의 채소들을 정형식재



영국 주택정원
인공지반위 다양한 용기를 활용한 배치

▶ 비대칭 균형 (Asymmetrical Balance)_상대적인 균형

비대칭 균형은 몇 가지 요소의 통일과 반복을 통해 만들어지는 불균형, 추상적인, 자유로운 양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비대칭 정원이 좀 더 어렵지만, 자연스럽고 편안하다. 일본의 전통 정원은 비대칭 정원의 좋은 예이다. 돌과 나무, 길, 관목 등이 모두 무작위로 배치된 것 같지만, 어떤 지점에서 주의 깊게 바라보면, 시각적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좌측기준대로 실제 식재하여 재적

점경물, 식물의 배치 시 주의점

- ▶ 식물이나 점경물은 서로 대화하듯이 바라보듯(서로 다른 방향을 보지 않도록) 배치한다.
- ▶ 3개일 경우 2:1과 같이 달리하여 직각의 방향보다는 대각선의 방향으로 배치한다.
- ▶ 점경물의 배치로 이야기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배치한다.



3) 비례(Propor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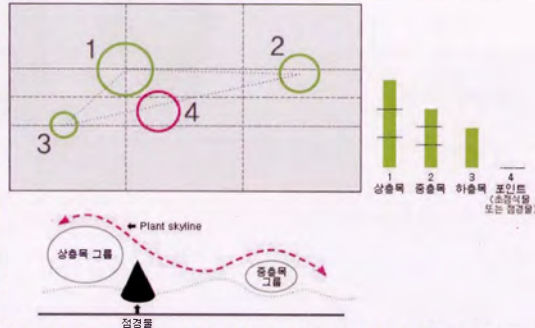
비례는 구성물을 아름답게 추하게도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실내식물의 식재에서도 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비례를 잘 살린 식물 디자인이란 작은 공간에서는 작고 섬세한 식물들의 아주 미세한 부분(잎의 모양, 질감, 색상, 꽃의 색과 변화)까지 신경을 써서 디자인에 임해야하며 큰 공간에서의 중심이 되는 분위기, 식물 전체의 이미지, 조형, 공간의 분할 등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소재의 크기는 용기 크기와의 비례가 관상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섬세한 느낌과 힘찬 기세를 올리는 위상, 멀리 보이는 원경, 가깝게 보이는 근경, 크기의 배치에 따라 보이는 균형미 등이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비례의 수치는 인체 비례미에서 유래된 것으로 모든 인간은 비례미가 인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서양의 인체 비례는 키가 183cm 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인체 비례미를 정하여 5:8이라고 하는 비례를 활용하고 있고, 동양에서는 서양인보다 작은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2:3의 비례 수치를 활용하고 있다.

>> 적용방법

실내정원을 구성하는 식물의 크기는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공간 높이의 2/3 정도를 상층목, 상층목의 2/3를 중층목, 중층목의 2/3를 하층목의 크기로 하면 된다.



분식물 장식 높이, 넓이, 길이

비례를 고려한 식물과 컨테이너는 균형 잡힌 외관을 형성할 수 있다.
식물의 높이는 컨테이너 높이의 2/3를 넘지 않게 해야 한다.
→작거나 낮은 컨테이너, 작은 크기의 잎을 가진 식물을 선택한다.
→크거나 높은 컨테이너, 높은 크기의 식물 또는 큰 잎을 갖는 식물을 선택한다



>>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미학의 원리

자연 생태계의 법칙과 질서, 신비로운 원리를 실내정원 디자인에 이용할 수 있다.

피보나치 수열이란 '0, 1, 1, 2, 3, 5, 8, 13, 21, 34, 55, 89, 144, 233'와 같이 앞의 두 수를 합한 것이 그 다음 수가 되는 규칙이 있는 수열을 의미한다. 꽃잎 수, 식물의 잎차례, 파인애플, 솔방울의 나선 수 등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피보나치 수열의 앞 수와 뒤 수의 비율이 뒤의 수열로 갈수록 황금비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나팔꽃 1장



코스모스 8장



백일홍 13장

식물의 잎사귀는 위쪽 줄기에 있는 잎사귀에 방해받지 않으면서 가능한 많은 양의 햇빛을 받기 위해 피보나치 수열로 배열한다. 꽃은 암술과 수술을 가장 효과적으로 감싸며 꽃가루받이 확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피보나치 수열로 꽃잎을 맺고, 솔방울이나 해바라기 열매는 최소 공간에 가장 많은 씨앗을 촘촘하게 배치하는 최적의 수학적 방법으로 피보나치 수열을 선택한다.



[나무의 가지 분지 수]



[솔방울의 나선 수]

>>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비

피보나치 수열 정역서
연속된 두 수의 비율,
뒤의 수 나눈 앞의 수를 하면..
다음 수의 규칙을 발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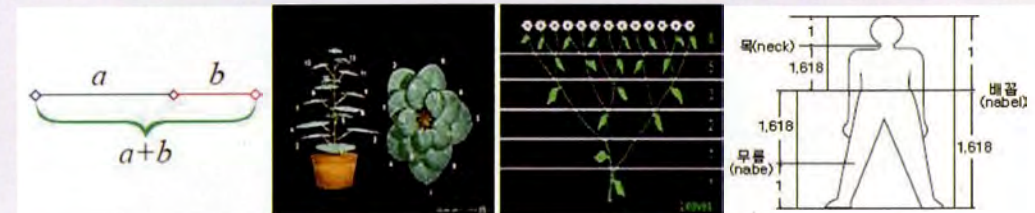
0, 1, 1, **2, 3, 5, 8**, 13, 21, 34, 55, 89, 144, 233 ..'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크기의 비례미 기준

$1/1 = 1$	$2/1 = 2$	$3/2 = 1.5$	$5/3 = 1.666...$
$8/5 = 1.6$	$13/8 = 1.625$	$21/13 = 1.61538...$	$34/21 = 1.61904...$
$55/34 = 1.61764...$	$89/55 = 1.61818...$	$144/89 = 1.61797...$	$233/144 = 1.61805...$

황금비율

황금비(黃金比) 또는 황금분할(黃金分劃)은 주어진 길이를 가장 이상적으로 둘로 나누는 비로, 근사값이 약 1.618인 무리수이다. 황금비(phi)는 선분을 ab 길이로 둘로 나눌 때, 다음과 같은 값으로 정의된다.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황금비

고대 그리스로부터 건축물을 아름답게 짓기 위해 황금비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명함, 담뱃갑, 신용카드 등에서도 볼 수 있다. HDTV나 컴퓨터의 와이드 모니터 등에는 9:15(3:5), 10:16(5:8) 등의 비율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황금비의 근사값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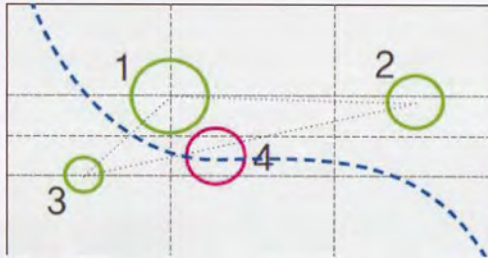
실내정원의 흐름

실내정원 전체를 바라볼 때 중심을 기준으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흐르는 S자 곡선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자연스럽다.



덩굴성 식물을 활용한 실내정원의 흐름

- S자의 흐름을 살려주기 위하여 1 주재식물 하단의 하층목, 지피식물은 전체 정원의 흐름을 고려하여 늘어뜨리지 않고 세워 준다.
- 2 주재식물 하단의 덩굴성 식물은 흐름을 강조하여 늘어뜨려 준다.



여백(Negative space)의 중요성

공간 = Positive Space (형태가 자리 잡은 공간) + Negative Space (여백)

- 디자인의 혼잡함을 제거함
- 어떤 구성요소를 강조하는 역할 (소재를 돋보이게 함)
- 나뭇가지나 선의 요소를 강조할 때 공간을 잘 활용해야 함
- 중앙의 강조점에서 가장자리로 갈수록 빈 공간 혹은 간격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면 눈의 움직임을 빠르게 만들어 리듬감을 증진함



Environment Wastebasket



환경과 쓰레기통

윤 평 섭
삼육대학교 명예교수



환경과 휴지통은 어떤 관계일까?

휴지통도 환경의 일부분으로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각 장소마다 배치된 휴지통의 색채와 재질 형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시설물중에 하나이다.

휴지통은 가정이나 일반시민들과 인간이 거주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시설물이다. 위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용하다 남은 불필요한 오물을 일정한 곳에 모아두는 용기로 쓰레기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가정을 비롯하여 학교, 사무실, 도로변, 공원, 유원지 등에 어디서나 접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지저분한 오물을 담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미관상 지프 림을 가질 경우가 많다. 어떻게 보면 위생처리가 잘되어 있어야 할 시설물이 위생처리가 불결한 상태로 되어 환경에 불쾌감을 갖게 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형태의 디자인부터 재질과 색상 등에 있어서도 천차만별이다. 미래지향적인 휴지통은 어떤 모양에 어떤 색채가 가장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 휴지통을 디자인을 구상한다고 하면 색채가 제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선과 형태일 것이며 그 다음이 재질을 생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색채하면 주변환경의 색상과 잘 조화될 수 있는 색을 선택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자연친화적인 색채를 선택하여 잘 조화되고 눈에 빨리 띄는 색채를 써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휴지통을 빨리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어린이가 공원일 때는 어린이들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형태와 색채를 사용하여야 하지만 색상은 피하는 것이 정서 발달에 효과적일 수가 있다. 색채에 있어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할 점은 재활용휴지통이나 일반쓰레기를 버리는 휴지통의 표식으로 알리기 위한 글자색과 바탕색이다. 다 잘해 놓고도 이것 때문에 휴지통 전체를 불친사남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은 단순롭고 단순하며 통일성을 갖추어야 한다. 환경에 튀는 형태나 튀는 색채, 튀는 재질은 삼가하는 것이 시민의 정서에 좋은 효과를 미칠 수 있겠다고 보겠다.



Physical Beauty

형태미에 있어서도 향토미를 살리기 위해서 향로나 향아리등과 같은 전통미를 살리는 것도 있겠지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선과 형을 유사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태미를 구상하여야 하겠다. 예를 들면 형태에 있어서도 주변 환경이 각이 진 건축물이나 기둥이 있으면 휴지통도 각이 지게 사각으로 제작해야 하며 둥근기둥이 있으면 원통형의 둥근휴지통이 잘 어울릴 것이고 전통 문화제나 민속물이 있으면 문화제나 민속물의 형태미를 살린 모형을 만들어도 좋겠다. 그러나 이들도 주변환경과 잘 조화될 수 있는 색채와 선, 형태를 가진 민속물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휴지통도 환경의 일부가 되어 예술작품으로 등장되고 있다. 미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세계의 휴지통 현황을 살펴 보기로 하자



녹색잔디밭과 녹색 숲을 배경으로 조화시킨 녹색 계열의 나팔형 휴지통



다리 입구의 기둥을 모방, 바닥의 콘크리트 재질과 유사하게 제작되었고 무채색으로 조화시킨 휴지통



콘크리트 광장 바닥에 배치된 검정색의 6각형 휴지통



주변시설물과 조화시킨 공원에 설치된 원통형의 검은 회록색 휴지통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시킬 수 있는 티아소 앞에 배치된 휴지통



뒤면의 건물과 같은 형태로 만든 갈색지붕과 흰색벽면을 모방한 휴지통



휴지통에 화재 방지를 위한 불의 그림을 그려 넣은 휴지통

Quality of the Material

재질에 있어서도 주변환경의 재질에 따라서 대리석이나 화강석, 오석 또는 콘크리트나 어떤 재질의 재목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휴지통의 재질도 주변환경의 재질에 따라 유사한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대리석 바닥이면 휴지통도 같은 색채를 가진 대리석 재질로 만들어 주변 환경과 같은 형태로 제작해야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색채에 있어서도 주변환경이 녹색 환경이면 휴지통도 녹색으로 제작하는 것이 좋으며 바닥이나 벽면이 갈색계열이면 갈색 계열의 색상이 잘 어울릴 것이다.



휴지통이 무채색 계열로 제작되었으나 주변의 건축물 환경과 휴지통의 형태미가 조화롭지 못하다.



원통형의 스텐레스 휴지통에 검정색의 두꺼운 울 색은 휴지통



유사재질로 조화시킨 콘크리트 바닥에 단지형의 갈색계열로 유사조화를 조성한 휴지통과 재떨이 시멘트 휴지통



갈색톤의 콘크리트 원통형 휴지통이 육종 색채와 형태, 재질이 주변의 환경과 잘 조화되도록 배한 것은 있지만 디자인 면에서 요철이 복 잡한 감을 준다.



Eco Color

환경친화적인 색상이란 갈색계열과 녹색계열, 무채색 계열을 들 수가 있는데 갈색계열이라 하면 연한 갈색부터 진한갈색의 여러 가지 색채의 차이를 둔 계열을 말하며, 녹색계열하면 연녹색부터 진한녹색의 여러 가지 색채의 차이를 둔 색채를 말한다. 또 무채색계열하면 흰색에서부터 회색을 비롯하여 검정색까지의 색채를 무채색계열이라고 한다. 이들은 어떤 색채와도 서로 잘 조화되며 어울릴 수 있는 색채라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런고로 되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인 색채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온실내의 아외벤치 옆에 직사각형의 휴지통에 두껍게 씌운 무채색의 회색휴지통



녹색 잔디밭 배경색과 휴지통의 색채가 유사하지만 휴지통이 너무 밝은 청록색이라 약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바닥면과 벽면과 휴지통 및 재떨이를 선과 재질과 색채를 이이 보리갈색계열로 조화시킨 환경



자연친화적인 재질을 이용하여 만든 원통형의 휴지통



짙은 갈색의 침모양으로 디자인 되어 채색된 된 휴지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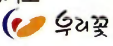


갈색 벽돌 기둥 앞에 배치된 어두운 녹색 계열의 휴지통

“국비지원” 30명

조경가든특화과정 도시원예교육생모집



- ▶ 주 최: 경기도
- ▶ 주 관:  우리꽃  경기농림진흥재단
- ▶ 교육기간: 2014년 8월 6일~10월 22일 / 총 3개월 12주 강의
매주 수요일 10:00~15:00 / 4시간 수업 (중식제공)
- ▶ 수 강 료: 8 만원 (경기도민에 한함, 타 지역 시민은 28만원)
기본 원예도구 제공 (장갑, 전정가위, 모종삽, 끈 등)
조경가이드북 및 교재 제공
- ▶ 수강혜택: 우리넷 1년 무료구독권 (12만원 상당)
실습 텃밭제공 (교육 기간 이후, 작기내 텃밭 작물 수확 계속 무료로 수확 가능)
교육수료증 증정
우리꽃 10% 구매 할인권 증정
- ▶ 접수기간: 모집완료까지
- ▶ 접수방법: 전화, 이메일(gardenjoa777@naver.com)
- ▶ 전화접수 문의: 031-634-7990

알기 쉽게 실습을 함께 진행하는조경가든특화과정 '도시원예 아카데미' 교육과정안내

교육의 특징

1.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생활을 누릴 수 있는 건전한 취미원예생활을 독려하며,
2. 정원문화와 도시텃밭문화가 우리나라에 생활 속의 일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3. 일반 원예학의 지식 습득과 실생활에 반영할 수 있는 원예 기술의 활용 교육입니다.

실습교육의 특징

야생화정원가꾸기, 베란다정원만들기, 텃밭가꾸기, 잔디정원가꾸기 등 정원을 실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교육과, 종자의 파종, 육묘, 식물의 재배와 병충해 방제, 화분의 이식, 분재의 전정 등 정원을 가꾸는데 필요한 연습과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간 관심두었던 원예학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가정에서 바로 알아용어
취미 원예생활의 즐거움과 깨달음을 보다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천그린아카데미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 우리꽃 정원에 오는 순간 자연을 알게됩니다
- 일주일에 한번씩 정원으로의 소풍
- 외우지 않아도 생각나는 이름
- 스스로 알아가는 정원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 귀농귀촌 교육의 최적화 농장 약 만3천평의 농장에 현대식 육묘장, 생산하우스 등 시설과 농업장비가
구비되어 있으며, 700여종의 다양한 야생화를 직접 만지며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2. 다양한 실습

정원관리, 텃밭관리, 잔디관리 /
트랙터, 관리기작동법 /,
수목의 관리와 전정 / 실내정원 등의
다양한 실습을 진행합니다.



COLOUR IN THE GARDEN



Sissinghurst

YELLOW

노란색을 떠올리면 따뜻함과 포근함 그리고
병아리의 털처럼 부드러운 느낌 등이 떠오른다.
동시에 아스팔트 길 중앙을 가로지르는 노란선의 이미지와
어린이집 자라의 노란버스 등이 떠오르면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가장 밝은 진출색이라는 이미지도 함께 느껴진다.
열은 노랑이 주는 밝고 부드러운 느낌과
짙은 노랑이 주는 어둡고 강한 이미지.
이 두 가지의 상반되는 이미지의 노란색을 정원에서 표현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 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오히려 화사하면서도 무게감과 멋스러움, 그리고 중후함을 갖춘
정원을 만날수도 있다.

오도
물무학교 생태농업 전문과정 교사



West Dean Garden

면적을 넓게 보이는 팽창의 색, 노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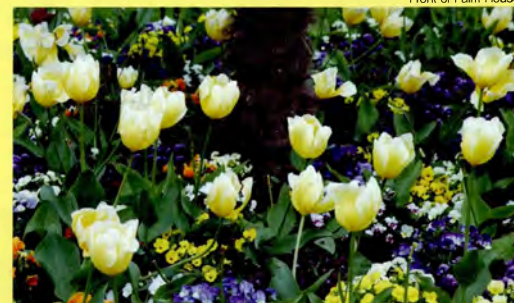
노란색의 꽃들은 보통 이른 봄과 한여름에 많이 피어난다. 다른 색상에 비해 특히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곤충들이 잠에서 깨어나기 전인 이른 봄부터 정원을 장식하면서 벌과 나비를 유인한다. 여름이면 해바라기를 비롯해 메리골드 등의 오래 피는 꽃들이 빛을 받아 더욱 강렬하게 여름을 알리기도 한다. 노란색은 밝고 환하기 때문에 조금만 심어도 많게 보이고,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밝기도 하지만, 팽창되어 보이기 때문에 정원에서는 꽃의 양 측 포기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다른 색의 꽃을 심을 때처럼 부의식 중에 모종을 많이 심다보면 노란색 꽃만 눈에 들어오고, 여름의 더위를 더욱 증폭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밝고 많은 VS 진하고 탁한 노란색

노란색은 밝고 맑음과 진하고 탁함의 차이에 따라 느껴지는 인상이 다르다. 밝고 맑은 노란색의 경우는 투명하면서도 가녀린 느낌이 강하다. 반면 진하고 탁한 노란색의 경우는 어두우면서도 무거운 느낌이 난다. 여러 색들의 꽃들과 같이 심을 경우 밝고 맑은 노란색의 경우는 파스텔 계통의 연한 색들의 꽃들과 같이 심고, 진하고 탁한 노란색의 경우에는 오히려 진한 색의 꽃들과 함께 심어 중후한 이미지를 유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하고 싶을 때는 흰색을 넣고 차분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에는 갈색의 꽃으로 조절하여 준다.



Spring bedding



Front of Palm House



Narcissus cvs

희망을 부르는 색, 노란색

여름에 피는 해바라기는 태양을 연상시킨다. 아이들이 좋아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주로 심기도 하며, 10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색상이며 '태양=희망'이라는 공식이 성립할 정도로 해바라기는 누구나 좋아하는 꽃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해바라기의 품종이 많이 개발되어, 해바라기 한 종류만 가지고도 정원을 꾸밀 정도가 된다. 노란색이 갖는 밝고 희망적인 이미지를 살려서 노란색 정원 (Yellow Garden)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Oxford BG

COLOR HARMONY

>> 노란색과 파란색

노란색과 파란색의 만남은 화사한 봄날에 노란색과 흰색 등을 차분하게 하기도 하고, 여름의 더운 날에 시원함을 주기도 한다.

봄에는 노란 튤립과 파란 무스카리, 봄과 여름 사이에는 노란 붓꽃과 파란 붓꽃, 여름에는 노란 버베스쿰과 파란 델피니움의 만남이 매우 인상적이다. 어느 쪽도 채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화사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일면도 가지고 있다.



Primula Muscari

>> 노란색과 흰색

노란색과 흰색의 튤립이 각각의 색을 맡껏 표현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있다. 시원시원한 튤립의 녹색잎을 배경으로 단아하며 고풍스러운 느낌을 준다. 노란색과 흰색의 양은 반씩 섞어서 동일한 양이 되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Tulipa White Dream Moonshine



Narcissus

>> 노란색과 파스텔

밝으면서도 맑은 튤립 뒤로 분홍과 파란색의 파스텔톤의 팬지들이 배경을 이룬다. 노란 튤립은 너무나도 맑고 투명해 겨우 여덟 송이 정도만 들어가도 한 눈에 들어온다. 화사하고 생기 넘치는 봄 화단에 잘 어울리는 하모니를 연출한다.



Front of Palm House

>> 노란색과 암색

헤우체라의 어둡고 고상한 잎 앞에 펼쳐진 노란색과 흰색의 팬지는, 개성적이면서도 어트랙티브한 이미지를 자아내어서 모던 스타일의 정원에 어울린다.



Kew Garden

>> 노란색과 노란색

키가 낮은 루드베키아와 키가 큰 해바라기가 웅장함을 만들어 내면서, 넓은 잔디밭 광장에 충분히 제 몫을 하고 있다. 루드베키아의 깨끗한 단색이 해바라기 꽃의 중앙에 진한 갈색을 보완해 준다.



Kew Garden



Chelsea FS

Narcissus cyclamineus



Sissinghurst



Narcissus Grand Soleil



Front of Palm House

>> 노란색과 핑크색

새 잎이 돋아나는 나뭇가지 너머로 노란색의 수선화와 연분홍의 튤립이 환동적이면서 선명한 이미지를 탄생시킨다. 맑은 이미지와 함께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 당기는 매력이 있다. 이 경우 노란색과 핑크색의 양이 반반이 되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Kew Garden

Spring bedding



Lake Area Sunlit G.



Prunus Pandora & Narcissus



Nymans G.



West Dean Garden



Rudbeckia Prairie Sun(Hampton Court)



Rhododendron Ther Gold



Kittgate Court



Rosa banksiae Lutea(Savill G)



Seven Acres



Rudbeckia Lupatin var. sulfurea(Gobsturn (Harlow Carr)



Narcissus Charity May

Water Garden

폭염을 이기려고 바다로 가야 하는가?

정원 속 작은 물줄기 하나이면, 주변 모두가 넉넉히 힘을 누릴 수 있을 터인데.

자연스럽게 자연의 흐름을 이어가는 수경정원의 자연적 기법을 알아보며

여름 정원만이 주는 독특한 Water Garden의 자연 공간 연출을 가든인 여름특집에 소개한다.

일반적으로 풍수란 무엇일까?

풍수지리의 5대 요소인 산, 화, 풍, 수, 방위 중 바람과 물이 다른 요소보다 풍수에 끼치는 변화의 요인이 많아 영향을 크게 끼친다는 풍수의 정의가 있다. 또한 돌과 물은 자연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로 음양오행과도 통한다. 정원의 구성에도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이를 근간으로 연못과 정자와 벽을 이용한 폭포수 설치 등이 여름을 맞아 시원함을 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연못의 연을 심어 풍취를 자아내는 연못가나 섬에는 괴석을 배치하고, 못 속에는 연꽃 연 심는 것이 가장 많으나, 자연 정원 중 최고봉인 소쇄원의 자연 계곡을 이용한 지당처럼 순채를 심은 곳도 있다.

못 가의 나무는 버드나무와 목련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최근에는 단풍나무를 심어 가을날 낙엽과 물소리와 물위에 투영된 모습을 사진에 담으며 물가 쪽으로 늘어진 가장 자연스럽고 경탄을 자아내는 단풍나무의 모습은 산행 마지막 코스에서 마주하는 지리산 자락의 계곡에서 경관을 만날 수 있으며 서울 근교에서는 곤지암 리조트의 산책로에서 볼 수 있는 전경이다.



소쇄원 1



소쇄원 2



소쇄

해마다 중부권의 평균온도가 2~3℃씩 상승하며, 올 여름 정원의 개화시기는 거의 20~30일을 앞당겨 개화하고 있다. 온난화의 대비와 정원 안에 수경정원이나 작은 샘의 호화를 누린다면 혼자만이 아닌 정원의 나무들과도 함께 나누리라 생각한다.

세계 관광을 꿈꾸거나, 가고 싶은 곳 혹은 다시 가고 싶은 곳을 꼽으라면, 아름다운 곳으로 스위스를 먼저 꼽는다. 왜 아름다운가는 한번쯤 생각해 보았는가? 의문을 던지고 싶다. 스위스의 지도를 보면 중립국으로 4개국 언어를 사용하듯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로 둘러 쌓인 나라이지만 그 중 스위스가 왜 아름다운지의 의문을 갖는다면 자연의 지형적 이용과 자연의 보존을 가장 충실히 국가적 사업으로 이룬 나라이다.

“정원으로 들어오는 길에는 대나무를 심고, 문 앞에는 버드나무를 심었다. 섬들 멀리 꽃밭에는 작약 · 동백 · 모란 등을 심고, 누각 옆에 배나무를 심었다. 창백에는 파초를 심고 시냇물 만들어 장미정자를 돌리며, 담 부근에는 살구와 단풍을 심었다. 꽃밭의 앞에는 가시나무를 만들고 또 장방형 연못을 파서 연꽃을 심었다. 정원에서는 사슴을, 작은 시내에서는 금계국, 정원 소나무에서는 학을 길렀으며, 이외에 천축화, 사계화, 백일홍, 삼색초, 금잔화, 목련화, 거상화, 영산홍, 치자화 등 온갖 꽃이 심어져 있었다

— 예술 애호가이던 안평대군(1418~1453)이 살던 비행당이라는 집의 조경기록물 중.



자연의 물 흐름을 이용하여 주변에 수경식물 식재와 막간의 장식품을 이용



이웃과의 사이에 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용하여 만든 WATER GAR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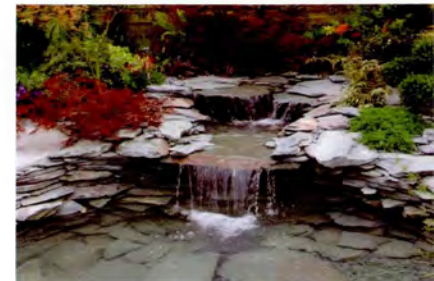


스위스의 자연에 놀라움을 갖는다면 자연을 보존하며 관리하여 관광지로의 위용을 세계에 자랑하며 자연 그대로의 자연환경 바꾸기에 얼마나 많은 고심을 하였는지는 역사적으로도 자연적 수경 정원을 만드는 법을 그리고 또 그리며 후대에 전수한 것을 알 수 있다.

심고, 새로 부수어 새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경관과 창작물을 이용하여 자연을 이용한 WATER GARDEN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며 스위스의 자연적 수경 정원을 소개한다. 사진으로 배우는 WATER GARDEN의 물소리와 주변의 식물을 바라보며 여름의 더위를 식힌다.



자연물을 이용하여 보다 세련되고 자연스러운 WATER GARDEN의 우수한 창의력이 돋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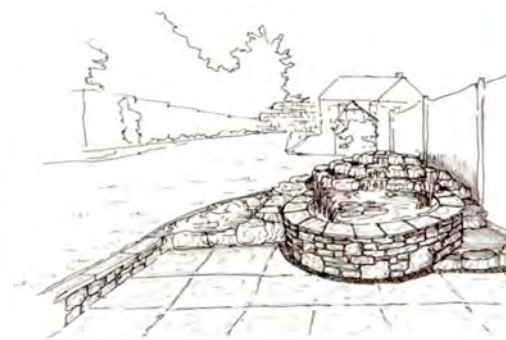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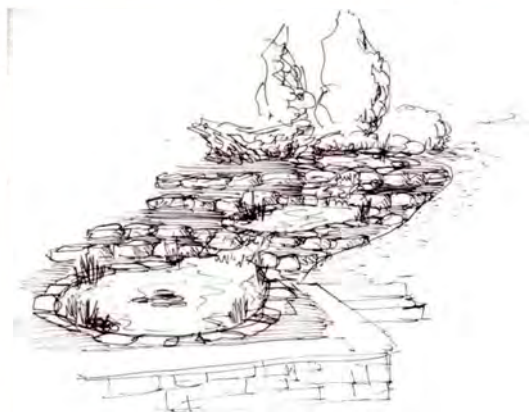
주변 경관에 맞는 돌의 선택과 물 소리의 조화가 새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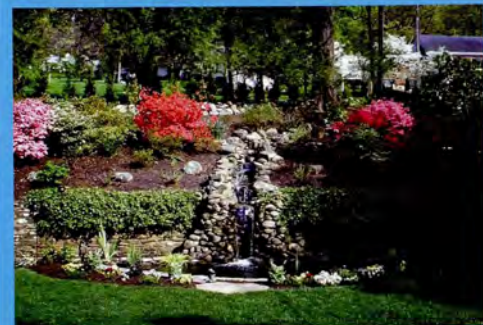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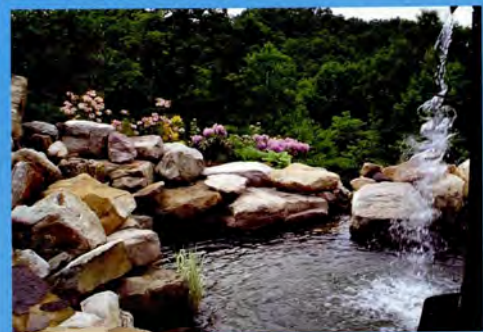
WATER GARDEN 안에 다리도 연출하여, 숲에서 흐르는 듯한 자연스러움은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



조용하며 평화로운 수경정원. 돌다리를 건너며 무거운 마음의 짐을 물속에 내려놓으며, 물속에 비추인 새 모습을 정원에서 발견한다.



아랫과의 사이에 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용하여 만든 WATER GARDEN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무대인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위치한

자연의 향기 그윽한 허브나라농원

Start



팔레트 가든(Palette garden)▶
맑은 흥정계곡을 아래로 하고 녹색의 청향교를 건너면 정원사의 색색의 물감, 수 많은 꽃들로 그려진 팔레트 가든으로 이어진다.



팔레트 가든



가든샵



가든샵



그린하우스(Green House)▶
우리온실 & 가든샵, 사계절 향기로운 허브와 꽃들로 가득한 곳. 재미있고 유용한 실내정원, 미니정원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곳.



이효순, 아두이 부부

점은 시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둘의 나이 51세, 49세, 합하여 100세 되던 해에 봉평으로 내려와 허브나라농원을 가꾸기 시작했다. 농원의 문을 연 지 21년이 흐른 지금 허허벌판이던 땅은 이제는 100여 종의 허브와 150여 종의 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농원이 되었다. 매해 5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찾는 허브나라는 그 생태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인정받아 2009년, 환경부가 주관한 체험형 생태관광지 2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허브나라 농원은 11개의 아름다운 테마가든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테마별로 다양한 스토리가 전개되어 있어 매월마다 다른 다채로운 정원을 감상할 수 있다.



셰익스피어 가든 (Shakespeare garden)▶
문학과 가드닝의 만남.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등장하는 식물로 꾸며진 정원. 셰익스피어의 생가를 작게 재현해놓았고 작품 속 글들을 발췌하여 흥미롭게 구성하였다.



셰익스피어 가든



코티지 가든 (Cottage garden)▶
동화 속 아름다운 마을 풍경을 보는 듯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컨테이너 가드닝이 특징적이다.



▲락 가든(Rock garden)
형형색색의 돌과 그 위에 살아 숨쉬는 다육식물과 허브들이 조화로운 정원.



코티지 가든



나비 가든 (Butterfly garden)▶
벌과 나비들이 좋아하는 밀원식물을 주로 한 정원. 커다란 나비와 동굴모양의 조형물이 시선을 끈다.



나비충백합





중세 가든 (Medieval garden) ▲

허브가든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중세 수도원의 정원에서 모티브를 얻어 우아한 엔틱조각상들과 분수대가 중심이 되어 악용, 식용, 차, 방향 소정원들로 구성되어있다.



새초롱 마을 (Birdhouse village) ▲

허브나라에서 직접 만든 갖가지 이야기를 담은 새집들이 웅기쭈기 모여있는 곳

월 가든 (Wall garden) ▲

계절마다 화려한 옷을 갈아입는 버티컬 (Vertical) 가든.



중세가든 여신상



어린이 가든 (Children garden) ▲

아이들이 자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가든. 자연놀이터와 북트리(자연도서관)가 정원 한 편에 마련되어있다.



마음의 뜰 ▲

2014년 새로 단장한 가든.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곳'이란 테마로 벽면을 장식한 라벤다 등 평안함을 줄 수 있는 허브와 식물들로 꾸며져 있어 작은 분수대에서 흘러나오는 물 소리를 들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마음의 뜰



기차 새집



연못



자연놀이터 & 도서관



청향교



캐모마일 밭



컨테이너 가드닝 1



컨테이너 가드닝 2



터키 박물관



2010 이문세 콘서트



허브박물관



허브체험교실



어린이 가든 새집 & 어머니



북트리, 천사



어린이가든 입구



어린이가든

자연의 향기 그득한 허브나라농원



He Garden

1. 팔레트 Palette garden
2. 유리온 집 Green house, Garden shop
3. 셰익스 가든 Shakespeare garden
4. 코티지 Cottage garden
5. 락 가든 k garden
6. 나비 가 utterfly garden
7. 중세 가 edieval garden
9. 새초롱 Birdhouse village
14. 어린이든 Children garden

Herbnara Shop & Info
허브나라 농원안내,
허브상품, 농특산물 판매점



Facilities

8. 자작나무집 Birch house
펜션안내 Pension Center
허브레스토랑 Restaurant
10. 터키갤러리 한터울 Turkish gallery
우리만화갤러리 만화의 숲 Manhwa galle
야외공연장 별빛무대 Starlight stage
11. 향기의 샘 Aroma fountain
허브박물관 Herb museum
허브상품점 Herb Shop
12. 파머스마켓 Farmer's market
허브먹거리센터 Cafeteria
허브베이커리 Herb Bakery
13. 허브공예관 Craft house
허브체험교실 Herbal experience class

CHAMOMILE

카모마일 꽃 의 상징

energy in adversity, patience, long life, wisdom

활동성에 있는 에너지를 품는 힘이 강한 의미를 갖음.

Chamomile Tea (洋甘菊茶)

카모마일 추출은 강한 차의 향을 소유한다

History of Chamomile Tea

카모마일은 그리스어의 "ground apple 지상 사과"에서 유래.

역사 거슬러 올라간다면 고대 이집트이고, 카모마일 차는 감기 치료제로 처방했다.

C. Romans는 음료 뿐만 아니라 향으로 그것을 즐겼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름

"로마 카모마일"은 현재는 잘 즐기지 않습니다.

허브나라에는 100여 가지 이상의 허브와 꽃, 나무들로 1만여 평 규모의 가든이 조성되어있습니다.
모두 9가지 테마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허브가든은 예쁜 소품들과 구조물들이 더해져 포토존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유리온실도 마련되어있어 사계절 허브의 향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C. Roman



Matricaria Chamomile



2014년 평화문화재단 후원 오송소식
평창문화재단 후원 ISO 9001 획득

2014 평창 호석문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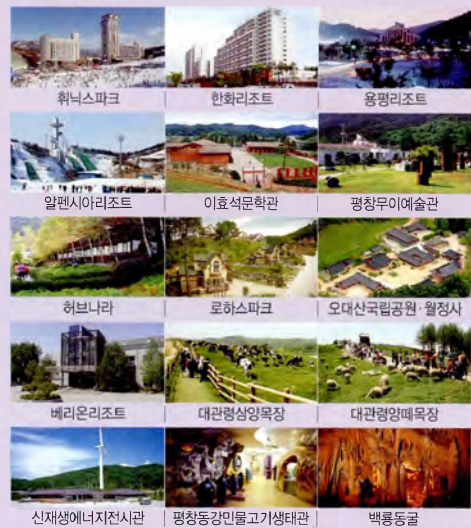
“메밀꽃 필 무렵”

Hyoseok Cultural Festival 2014
2014. 9. 5(금)~9.14(일) 10일간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호석문화마을 일원에서...

주 관 : (사)이호석문화선양회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강원도, 평창군
신협협약 : 오산저축은행, 이마트연세금융

www.happy700.or.kr | www.yes-pc.net | www.hyoseok.com

주요 관광지 아시아의 알프스...



+ 평창군문화관광홈페이지 | www.yes-pc.net

호석문화마을 소설 속의 실제 배경마을...



1 이호석문학관
문학전시실, 문학교실, 학예연구실 등으로 꾸며져 있으며 메밀꽃길에 있는 문학동산이다.

2 이호석 생가마을
이호석 생가를 복원하고 평양에서 살던 무문집, 북카페, 집필촌 등이 조성되어있다.

3 이호석 문학의 숲
「메밀꽃 필 무렵」을 테마로 한 자연학습장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되어 있다.

4 물레방앗간
소설 속에서 허생원과 생씨처녀가 인연을 맺었던 장소로 물레방아가 돌고 있는 곳이다.

5 가산공원
가산의 홍상과 그의 문학세계를 알리는 표지석이 자리잡고 있는 아늑한 쉼터이다.

6 충주집
소설 속의 주막이었던 곳으로 장동백이들의 쉼터로 충주댁을 향한 연정을 느껴진다.



구성	행사명	장소	내용
자연체험 마당	메밀꽃밭오솔길	문화마을	소설속의 메밀꽃밭을 따라 걷는 문학체험
	물가동네마당	흥정천개울	돌다리위 나무다리 그리고 섬다리를 건너는 옛 추억의 체험
	물가섬터 (피크닉 쉼터)		시원하게 발 담그고, 고향의 향수를 달래는 물가섬터
	봉송아들들이기	포토존	손톱에 봉송아 물 들어기-첫사랑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전통체험 마당	페이스페인팅		메밀꽃요정과 함께하는 페이스페인팅
	나귀타보기 등		소설속에 나오는 마귀를 타고 활개
	메밀채摘장	관광안내소 앞	고랑지 사슴장의 협력으로 메밀의 체험
	전통인속놀이		서민인속놀이(웃놀이, 굴렁쇠놀이, 딱지치기, 비석치기, 고무신결기, 허리싸름 등)
전시체험 마당	도리깨마당	행사장	과거 곡을 탈 때하는 농사행위(옛 농사의 체험을 통해 느끼는 감동)
	통나무벨리 자르기		과거 목재를 자르는 방식으로 개인전 및 단체전 경기
	지게자기 마당		과거 운송수단인 지게를 지어보고 함께 힘자랑을 해 볼 수 있는 체험행사
	참쌀떡치기		과거방식대로 돌 위에서 참쌀떡을 치는 행사(체험도 하고 맛있는 떡도 먹고)
전시체험 마당	메밀음식체험장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여 메밀국수 부치기를 만들어보고 먹어 보는 체험행사
	봉평의 여제와 오늘날사진전	문화마을도로	봉평의 1910년대와 70년대까지의 시골모습 사진전시회
	일본토가촌(利賀村)-봉평(蓬平)우호교류 사진전(友好交流寫真展)		일본 토가촌(利賀村)-봉평(蓬平)우호교류 사진전(友好交流寫真展)
	문학행사사진전		행사사진전
전시체험 마당	영화상영(영상물전)	문학관	메밀꽃 영상물영화(메밀꽃 필무렵, TV문학관)봉평의 모습들을 담은 영상물전
	농특산물전	행사장	특산물 및 농특산물 전시 판매
	시화전	행사장,문학관	이호석 작품 삽화 전
	백일장 입선작 전시	문화마을도로	2013년까지 백일장 입선작(장원) 전시



수락산의 맛있는 정원

수락산 시원한 바람이 은행잎을 노래하게 만드는 산기슭에 노란 달맞이꽃 화단이 눈을 사로잡는 묵&막국수는 미각과 시각을 즐겁게 하는 곳이다. 건물에서 내다보이는 정원은 작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 미로처럼 보는 각도에 따라 모습을 달리한다. 주정원은 길을 따라 곳곳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나무 벤치와 테이블, 의자들이 있어서 어디서든 여유를 가지고 정원을 감상할 수 있고, 아이들의 사진에 맞춘 소품들이 다른 재미를 준다. 주정원을 지나면 언덕길 양 옆으로 여러 종류의 야생화와 원예종들이 어우러져 있고, 언덕 위에는 온실이 있어서 일반 정원에서 감상할 수 없는 실내 식물을 1년 내내 감상할 수 있다.

묵&막국수는 도토리를 주재료로 하는 음식으로 맛 블러거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곳이다.



살얼음과 동치미 국물이 일품인 동치미 메밀막국수와 쫄면처럼 말린 묵말랭이와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 목이버섯, 색색의 파프리카, 부추, 당면 등으로 만들어진 먹거리의 참살이 같은 묵말랭이 잡채, 도토리 가루에 쪽파, 오징어, 바지락살, 홍합살 등으로 만들어진 도토리 해물파전, 100% 도토리 앙금과 가진 채소로 맛을 낸 도토리묵 무침 등이 이곳의 인기 있는 메뉴이다.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으나 각기 다른 온도와 느껴지는 식감의 차이가 개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토리 채취가 불법이라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하지만, 최상의 도토리 열매만을 선별하여 들여와 모든 공정에 정성을 들여 최고의 음식이 되도록 노력한다고 하는 당당함이 고스란히 맛에 묻어 난다. 신선한 음식을 위해 매일 신선한 채소를 사용하고, 메밀면은 주문이 들어오면 뽑고, 묵은 이틀이 지나면 전량 폐기 된다고 한다.

묵 & 막국수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99-5
Tel. 031-829-6868
<http://www.muknmak.com>



정원사의 일기 (Gardener's Diary)

가드너 김시용

전 천리포수목원 근무
영국 The Sir Harold Hillier Garden 연수
영국 RHS Garden, Wisley Diploma in Practical Horticulture Programme 졸업

바치
Stachys officinalis

무더운 여름이다. 8월이 되면 더위는 최고조에 이르고 정원에서 일을 하다보면 몸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다. 난 왜 이일을 하는 것일까? 이 질문의 답은 식물에게 있다. 내가 힘들 때, 지칠 때, 고민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 할 때 즉, 내가 어려운 순간에 식물을 보면 지친 몸과 마음이 충전되고 고민이 해결되지는 않으나 빠져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 꽃과 식물은 힘이 있다. 긍정의 에너지가 넘쳐난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과 동물은 식물의 힘을 빌어 살아간다. 텃밭과 정원과 과수의 만남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많다. 먹거리와 볼거리 그리고 긍정의 에너지, 미국인 랄프 왈도 에머슨은 이런 말을 했다. '지구는 꽃으로 웃는다'. 지구 에너지의 근원은 꽃인 것이다. 식물학자 린네는 꽃으로 식물 분류 체계를 세웠다. 어찌되었든 식물을 심고 가꾸는 일은 지구를 웃게 하는 일이고 우리와 그 식물을 보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다. 요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고 특히 도시에서는 도시농업전문가, 텃밭농사, 텃밭보급원 등의 역할이 중요하게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가운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식물을 가꾸고 심는 일을 특별한 몇몇 사람이나 기관이 해야 할 일이 아닌 전국민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먹거리 농사를 도시에서 하고, 아름다운 정원 가꾸는 일을 농촌에서 하면 농촌과 도시가 분리되지 않고 함께 갈 길이 생길 것이다. 더불어 좋은 세상은 도시 사람들과 농촌 사람들이 식물을 통해서 만났으면 한다. 영국 식물원에서 식물을 가꾸는 실습을 하다보면 낯선 사람이 와서 말을 건다. 어디서 왔고 지금 가꾸는 식물이름은 뭐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리저리 얘기를 더 놓고 하게 된다. 가꾸는 식물이 우리나라 원산이면 할 얘기는 더 많아지게 된다. 필자가 사는 홍동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종종 하고 있다.

관상정원 (Ornamental Garden)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봄에 가장 많은 꽃이 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름에 가장 많은 꽃이 핀다. 흰색에서 노랑, 분홍, 파랑, 보라까지...꽃들을 보고 있으면 힘든 정원일을 잊고 만다. 여름에 피는 꽃들을 만나 보자

>> 에키나세아 (Echinacea purpurea)



여러해살이풀로 원산지는 북아메리카의 남동쪽이다. 자라는 특성은 꽃잎이 자라고 꽃이 끝에 달린다. 꽃은 자주색으로 약 12cm정도 자라고 여름에서 가을까지 핀다. 벌과 나비가 이 꽃을 매우 좋아한다. 흰색 꽃을 가꿈 볼 수 있는데 'White Lustre' 또는 'White Swan'의 원예품종이 있다.

>> 산수국 (Hydrangea serrata f. acuminata)



낙엽 지는 잎 넓은 키 작은 나무로 그늘지는 곳과 낙엽활엽수아래 심으면 보기에 좋다. 꽃은 무성화와 유성화로 구성되고 무성화의 역할은 곤충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무성화가 유성화를 둘러싸고 있어 아름답게 보인다. 식물체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 식용해서는 안 된다.

>> Wood betony (Stachys officinalis)



>> 서양갈퀴망종화 (Hypericum 'Hidcote')



낙엽 지는 잎 넓은 키 작은 나무로 양지바른 곳에 심는다. 꽃은 여름에서 가을까지 핀다. 영국의 Hidcote Manor Garden에서 발견된 원예품종이다. 키가 크면 1.2m에 까지 자라지만 돌틈에 식재하면 크게 자라지 않는다. 암석원, 공원, 화단 등에 식재하면 좋다.

우리나라 자생식물 중에 꿀풀과의 논 주변의 습지에서 자라는 석잠풀 (Stachys riederi var. japonica)과 같은 속으로 여러해살이 풀이며 꽃대가 꽃잎이 자라고 꽃은 자주색으로 꽃대의 끝에 핀다. 개인적으로 꽃대가 튼튼한 이와 같은 식물을 좋아한다. 바람에 하늘하늘 거리는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원산지는 유럽이며 추위에 잘 견딘다.

과수정원(Fruit Garden)

보리수, 앵두, 오디의 열매가 끝날 무렵이면 블루베리가 우리의 입맛을 당긴다. 물론 시장에 가면 살구, 복숭아, 자두 등 여러 가지 과일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과일을 유기재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블루베리는 유기재배가 가능한 과수 중 하나이다. 블루베리가 익어가면 과수정원에 사람이 모이게 되고,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며 웃음꽃이 피어난다.

≫ 블루베리(*Vaccinium corymbosum* CV.)

블루베리는 우리나라 산앵도나무속의 식물로 낙엽 지는 활엽의 키 작은 나무이다. 원종은 동북 아메리카가 원산지이다. 블루베리를 우리나라에서 잘 기르기 위해서는 토양산도를 충분히 높여 줄 필요가 있다. 토양산도는 5.5~6.5까지 맞추기 위해서 피트모스, 펄라이트, 질석, 모래, 부엽토를 섞어서 심어야 한다. 5~6년이 지나면 다시 토양산도를 맞추기 위해 목초액을 섞어 관수하거나 소나무 낙엽으로 멀칭을 해주면 된다. 국내에는 여러 원예품종이 들어와 있고, 가정에서 종류별로 2~3개씩 3~4종류 심으면 충분이 따 먹을 수 있다. 조생종과 만생종의 비율을 생각해서 심으면 계속해서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 돌보리수(*Elaeagnus multiflora*) 번식

여름철에는 영양번식법 중 하나인 삽수지삽을 할 수 있다.

삽목준비물 : 전정가위(부엌가위), 접도(또는 칼), 화분, 용도, 비닐봉투, 라벨, 물
필자가 쓰는 용도는 친환경 용도이며 용도안에는 코코피트, 피트모스, 질석, 펄라이트, 질석, 부식산, 목초액, 부숙해충 등이 들어 있다. 이 용도를 구하는 것이 재료를 따로 사는 것보다는 효율적이다.

삽수순서



삽수를 준비한다
(식물이 생리작용이 활발하기 전 이른 아침에 준비하고 자르자마자 물에 넣는다.)



삽목을 위해 삽수로부터 필요한 삽수를 잘라낸다.



삽수의 잎을 1/3~1/4정도 자르고, 삽수 밑을 날카로운 접도로 양쪽방향에서 자른다. 삽수 밑을 자를 때는 마디를 자르도록 한다. (마디에 영양물질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삽수의 잎을 1/3~1/4정도 자르고, 삽수 밑을 날카로운 접도로 양쪽방향에서 자른다



비닐로 덮고 차광을 한다.



마르지 않게 분무기로 매일 물을 준다.
분무기를 이용하면 공중습도를 높게 유지할 수 있다.)

채소정원(Vegetable Garden)

채소정원에서 8월에 할 일은 토마토와 오이 유인하기를 지속적으로 해야한다. 동시에 결순파기를 해야하고 물주는 지속적인 한다. 물주는 정오를 피해야되고, 오전 또는 오후 시간에 하는 것이 좋다. 만약 멀칭이 충분히 되어 있으면 오전이나 오후에 하면 된다. 만약 멀칭이 되어 있지 않다면 오후 햇빛이 약해 졌을 때 하는 것이 좋다. 멀칭은 물이 다시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해도 좋다. 멀칭이 없는 경우에 오전이나 정오에 물을 주면 물이 증발하면서 토양을 갈라지게 하고 가뭄이 더 심해질 것이다.

≫ 오이 결순 지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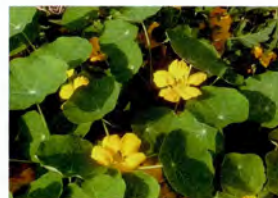


오이 결순 지르기는 오이가 어디에 달리는지를 잘 관찰해야한다. 오이는 결순의 원마디 또는 첫마디 또는 두 번째 마디에 달린다. 어디에 달리든지 오이가 달린 마디에서 2마디를 남기고 잘라주면 된다.

≫ 고추, 옥수수지



고추는 이열대 또는 열대 지방에서 관목(키 작은 나무)으로 자라는 채소식물학적으로는 과일나무이다. 태풍이나 열매가 많이 달리면 쓰러지기 쉽다. 그래서 고춧대나 밑줄을 비아 유인줄로 쓰러지지 않게 한다.
옥수수는 키가 커서 바람에 쉽게 쓰러지므로 쓰러지지 않게 끈으로 지지한다

≫ 혼식초화 - 한련화(*Tropaeolum majus*)

원산지인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볼리비아, 콜롬비아인 한련화는 1년초로 자란다. 한련화란 이름은 아마도 연꽃잎을 닮아있고 1년생이기 때문일 것이다. 꽃은 여름 무더위에 세력이 약해지는 점이 있지만 이시기를 잘 넘기면 무더위까지는 여름 전부터 가을 서리 전까지 핀다. 꽃은 꽃말이나 샐러드로 식용가능하다. 또한 잎도 식용가능하며 우리집에서는 비비큐 파티를 할 때 한 장씩 넣어서 먹고 있다. 꽃이 화려해서 보기에 좋고 벌, 곤충 등을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

≫ 오이와 대파 혼식



대파는 오이의 냉충해감염을 막아주고 해충을 막아주고 서로의 생육을 촉진시킨다.

≫ 혼식초화 - 만수국, 프렌치 메리골드(*Tagetes patula*, French marigolds Group)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년생 초본이다. 원산지는 아메리카이지만 프렌치 메리골드로 불리고, 국명으로 만수국으로 불린다. 나비정원을 만든다면 들어가야 할 1년초 중 하나이다. 텃밭정원에 섞어짓기용으로 심고 뿌리분비액이 선충류를 방제하는 작용을 한다.

박공영과 함께하는 정원식물의 '속' 훑쳐보기

정원, '속' 보이네



장대나물

박공영 우리씨드그룹 회장(이학박사님)과 함께하는 정원식물의 속 훑쳐보기는
가든인 독자들에게 식물에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그냥 이름 없는 꽃이 아니다.

식물이 속한 '속'이 있고 '학명'이 있고 '한국명'이 있다.

그리고 보면 한두 가지 이름이 아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식물은 그 이름만큼이나 꽃색, 향기, 이름
다움으로 보답하기도 한다. 정원의 속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빌려 식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자.

박공영 회장

우리씨드그룹 / 이학박사

화려한 물고기, 금붕어들의 먹이를 향한 집념

금어초 속 (*Genus Antirrhinum*)

금어초 속은 반 상록성 관목, 일년생, 다년생 식물 등 30~40 여종
이 속한 속으로 주로 유럽, 미국, 북아프리카의 암석지대에 서식한
다. 보통 초여름부터 꽃을 피우는데 줄기를 따라 피어나는 통꽃이
흡사 용머리 혹은 물고기 머리를 닮은 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일
반적인 금어초, *A. majus*는 수명이 짧은 다년생 식물이며, 국내에서

는 일반적으로 일년생 화단용 화초로 길러지거나 절화용으로 재배
된다. 남쪽의 따뜻한 곳에 서는 겨울에도 상록으로 버티다 이른 봄
부터 꽃을 피우기도 한다. 관목이 무성한 다년생 종은 돌로 된 석
축의 틈이나 웅벽에 기르는 것이 적합하다. 최근에는 색이 매우 다
양하고 키 작은 분화용도 개발 되어 인기를 더하고 있다.
대한성은 대체로 강한 편이나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겨울 월동이
어렵다.

주로 화단용으로 많이 재배되는 금어초(*A. majus*)는 햇빛이 충분하

고 비옥하면서도 배수가 아주 잘 되는 토양에서 기른다. 따라서 암석가든이나 석축 등에 퇴비를 많이 넣고 식재하면 좋은 포기를 이루
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개화를 연장하기 위해서 시든 꽃을 제거하고 일정부분 꽃을 피운 꽃대는 제거하여 새로운 줄기를 받는 것이
더욱 유리한 식물이다. 관목성의 무성한 다년생 종들은 배수가 아주 잘 되는 토양과 바람막이가 필요하다. 이들은 특히 겨울 습도에 약
하고 민감하다.

증식은 주로 종자를 많이 이용한다. 특히 일년생의 종자를 늦여름, 초가을 또는 초봄에 파종하되 발아적온은 16~18℃이다. 관목 종은
뿌리 꺾꽂이를 여름에 하거나 가을 혹은 봄에 냉상의 온실에 파종을 하는데, 어린 개체는 온실에서 월동을 한다.

해충 및 질병에는 금어초 녹병의 피해가 있고 흰가루병(powdery mildew)과 진딧물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



흰하늘 매발톱



특이한 형태로 사랑받는

매발톱 속 (*Genus Aquilegia*)

꽃의 모양이 특이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매발톱 속은
약 70여 종의 속한 속으로 북반구의 초지, 넓은 삼림지, 산악지대
에 있다. 이 종 들은 주로 땅에서부터 많은 잎을 내는 로제트형의
포기에서 긴 꽃대를 내고 꽃을 피운다. 로제트 형을 이루는 잎줄기
는 속이 빈 관 형태로 세 갈래난 잎에서 3개의 세 갈래난 잎을 생
성하는데 어린잎은 밑 부분이 대부분 거꾸로 세운 달걀모양이거
나 동근형, 썸기모양이며, 약하게 혹은 심하게 갈라진 2~3개의 판
으로 갈라져 있다. 독특한 초롱 별모양의 꽃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색의 꽃잎과 매발톱 모양의 화관이 2.5~10cm 길이의 꽃으로 흰

추 꽃차례를 이루고 핀다. 때문에 이름도 예쁜 매발톱의 기이한 꽃
모양이 더욱 매력적이다. 비터마이어(*Biedermeyer*)그룹, 맥카나
(*Mckana Hybrid*), 스콧(*Mrs. Scott-Elliott Hybrids*)은 모두 캐나다안시
스(*A. canadensis*), 롱기시마(*A. longissima*), 불가리스(*A. vulgaris*) 등
다른 종들과의 이종교배로 육종되었다. 이들은 다른 식물들에 비
해 이종교배가 매우 잘 되는 편이다. *A. canadensis*, *A. vulgaris*를 포
함한 크기가 큰 종과 재배종은 약간의 활엽음지에서 밝은 햇빛이
있는 정원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조네시(*A. jonesii*), 삭시몬타나(*A.
saximontana*)와 하늘매발톱(*A. flabellata* var. *pumila*) 같은 대부분의
고산지역에 서식하는 종들은 빠른 배수가 필요하고 여름에는 서늘
한 기후를 선호한다. 그러나 이중 하늘매발톱과 같은 종은 백두산
의 정상부에서 생육하고 있지만 서 울이나 남부의 정원에도 잘 정

작 하였고 이종간 교배도 잘 일어나 강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있다. 북한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하는 종이다. 간혹 유액이 닿을 경우 피부 염증을 유발 하는 특이체질을 가진 분들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재배는 비옥하고 가습적이면 습기가 있는 토양을 선호하지만 배수가 잘 되고 햇빛이 잘 들거나 반그늘이어야 한다. 고산지역이 원산인 식물은 자갈이 있고 풍부한 부식토와 습기가 있는 곳에서 기르는 게 좋고 햇볕도 잘 들고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번식은 종이 성숙 하자마자 트레이 등에 파종을 하거나 봄에 한다. 고산지역 식물의 종자는 발아에 2년 정도 걸리는 종도 있어 강제로 냉장고에 처리를 하여 휴면을 타파해야 할 수도 있다. 모든 매발톱은 매우 많은 종자를 생산한다. 그러나 이들을 일시에 발아시키는 게 아니라 발아되는 시점의 차이를 두어 자연환경에 대비하는 지혜를 가졌지만 우리에게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동시에 고르게 발아를 시키기 위해서는 온도처리와 약제처리를 하여 빠르고 고르게 발아를 유도하기도 한다. 그리고 좋은 품종은 비록 뿌리에 손상이 갈 경우 회복이 늦더라도 봄에 분주하여 증식하는 종도 있다.

해충 및 질병으로는 흰가루병, 진딧물, 여러 나방의 애벌레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



A. Mrs. Scott-Elliott



A. Mckana Hybrid



A. canadensis

아름다운 지피식물, 아리가든에 좋은 장대나물 속 (Genus Arabis)

일년생과 2년생과 다년생으로 주로 상록성을 이루는 식물이 많다. 약 120여 종의 속으로 대부분 유럽, 아시아 그리고 북미의 바위가 많은 산악지대로부터 왔다. 곧게 자라거나 가지를 치면서 매트 혹은 쿠션모양을 형성하고 다년생의 경우 목질로 이루어진 줄기를 가지고 있다. 잎은 단순하고 톱니형태이거나 물결모양의 가장자리를 가지고 털이 있기도 한다. 작은 십자 모양의 4개의 꽃잎이 있는 하얀색에서 보라색까지의 꽃이 핀다. 큰다닥냉이는 어디에나 잘 자라지만 기타 종들은 암석정원이나 건조한 돌이나 화단의 가장자리에서 기르는 것이 좋고 웅벽의 틈이나 석축의 충전 식물로도 적합하며 피비용으로도 효과적이다. 특히 한국형 암석정원의 테마 아리가든의 가장자리 식물로 매우 좋다.

내한성은 매우 뛰어나고 햇빛이 잘 들고 배수가 잘 되는 모든 토양에서 재배 가능. 덥고 건조한 기후와 메마르고 비옥하지 않은 토양에서도 건널 수 있다. 그러나 겨울 습기로부터 보호를 해 주거나 일정한 비율의 양토, 부식토, 강마사가 섞인 토양에 기르고 성장 중에는 물을 많이 주고, 겨울에는 부족하게 준다. 조밀함을 유지하기 위해 개화 후 다듬어 준다.

증식은 가을에 냉상에 파종을 하고 꽃이 진 여름 장마기 때 잘라낸 가지를 꺾꽂이 하여 뿌리를 내린다.

해충 및 질병으로는 여름에 잎이 노랗게 변하면서 죽어가는 노균병과 진딧물에 의한 피해가 있다.



Arabis aculeolata



명인 명왕

원추리



글 사진 이명호
이명호의 야생화
<http://www.skyspace.pe.kr>

나팔처럼 생긴 아름다운 꽃

원추리는 전국의 산과 들에 군락을 이루어 피는 여름철의 야생화로 잘 알려져 있다. 그 모습이 아름답고 세련된 느낌마저 들기 때문에, 관상용으로도 매우 가치가 높은 꽃이다. 햇볕이 잘 드는 습한 곳이면 어디서나 잘 자라는 백합과의 여러해살이풀이다. 잎은 두 줄로 어긋나고 선형이며, 뒷부분은 활처럼 휘어 뒤로 젖혀진다. 7~8월에 피는 원추리의 꽃은 나팔처럼 생긴 긴 통부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꽃이 하루만 피고 시들어버리는 편이어서 아쉬움이 많은 꽃이기도 하다.



노랑원추리

다양한 먹거리로도 활용되는 원추리

원추리는 시름을 잊게 해준다는 중국의 고사로 인하여 흰초(萱草), 또는 망우초(忘憂草)라고도 불린다. 예로부터 "남나물"이라는 다른 이름이 있을 정도로 봄철의 대표적인 맛있는 산나물로 유명하다. 남나물은 옛날에는 정월대보름에 남나물을 끓여먹는 민속까지 있었다. 남나물은 맛이 달고 연하며 매끄러워서 감칠맛이 나는 순하고 담백한 산나물인데, 쇠지 않은 어린 순을 따서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무쳐먹으면 별미라고 하여, 이 나물을 '흰채(萱菜)'라고도 불렀다. 원추리는 어린 싹을 생으로 또는 국거리로 이용하며, 튀김으로도 요리하고 데친 것은 기름에 볶아먹기도 한다.



원추리의 분류

온대지역인 우리나라에는 약 10종정도가 분포하는데, 원추리 무리들은 종별보다 아주 조금씩의 차이를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본종인 원추리는 전국의 산지에 야생하며, 6~8월에 연한 황색으로 꽃이 핀다. 어느 도감에서는 중국에서 유입되어 원예종으로 길러지고 있는 홀왕원추리를 원추리라고 기록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노랑원추리는 꽃이 황색적이고, 오후 4시 무렵부터 피기 시작하여 다음날 오전 11시 무렵에는 시든다. 높은 산지에서 자라는 큰원추리는 꽃이 짙은 황색이며, 꽃차례가 매우 짧아서 하나의 큰 포 안에 2~4개의 꽃이 달리는 것이 특징이다. 산지와 초원에서 자라는 각시원추리는 다른 원추리들보다 약 1달쯤 일찍 피고, 1개의 꽃줄기에 2~5송이의 꽃이 달린다. 바닷가에 군생하는 홍도원추리는 붉은 뿌

리가 사방으로 퍼지고 덩이뿌리가 발달해 있다. 붉은 빛이 도는 짙은 황색으로 꽃이 피며, 아침에 피고 오후에 시든다. 골왕원추리는 잎 표면에 깊은 골이 있고, 줄기의 끝부분에서 가지가 많이 갈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애기원추리는 잎 표면의 골이 얇고 꽃의 수가 적다. 연한 황색으로 꽃이 피며, 저녁에 피었다가 다음 날 아침에 시드는 것이 특징이다. 오렌지색으

각시원추리



애기원추리



골왕원추리



왕원추리



큰원추리

꽃에 얽힌 전설

옛날, 한 형제가 한가번에 부모를 모두 여의었다. 형제는 슬픔에 잠겨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그러다가 형은 슬픔을 잊기 위해 부모님 무덤가에 원추리를 심었다. 그러나 동생은 부모님을 잊지 않으려고 무덤가에 난초를 심었다. 그 뒤로 세월이 흘러 형은 슬픔을 잊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동생은 슬픔이 더욱 깊어져서 병이 되었다. 그런 어느 날, 동생의 꿈에 부모님이 나타나서 말했다. "사랑은 슬픔을 잊을 줄도 알아야 하느니라. 너도 우리 무덤에 원추리를 심고 우리를 잊어 다오." 이 말에 따라 동생은 부모님 무덤가에 원추리를 심고 슬픔을 잊었다고 한다. 또한 원추리의 어린 싹을 나물로 먹으면 홀연히 술에 취한 것 같이 마음이 황홀하게 되므로, 이 풀을 '망우초'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전설이 있다.

자녀와 함께하는 생태학습

8월은 여름의 한복판이면서도 잠시 극복만 잘하면 시원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달이다. 고난의 끝에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자녀들의 손을 잡고 산과 들을 찾는 생태학습을 남은 방학기간에 시켜보는 것은 어떨까요? 부모와 함께 하는 자녀들의 삶이있는 교육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다육 식물 취미 재배를 위한 환경

다육식물의 용토



글 사진 김석정
호자연대교

가정에서 기르는 여러 가지 식물들은 각각의 식물에 맞는 용토를 사용하여 잘 재배할 수 있다. 용토(토양)는 작물의 생육에 중요한 구실을 한다. 다육식물은 냇가의 비교적 거친 모래를 사용하여 배수가 잘 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너무 거친 모래만 사용하게 되면 화분 내 용토의 수분이 너무 빨리 마르게 되므로 고운 모래가 적당량 들어 있어야 좋은데 재배자 각각 자기만의 배양토 비율을 정하여 사용하면 편리하다. 펄라이트는 진주암을 1400℃로 소성팽창 가공한 것인데 무균상태로 집초충자나 해충이 없고 보비력과 보수력이 우수하고 통기성과 배수성이 좋아 식물의 뿌리가 잘 뻗는다. 또한 화분내의 수분을 균일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코코피트(Cocopeat)는 코코넛 껍질을 이용한 것인데 pH와 EC, 염분의 조절 그리고 제조 공정상 속성(buffering)이 잘된 것이 작물생장에 안전하다.



굵은 모래	40%
펄라이트	25%
코코피트 또는 피트모스	30%
유기질비료	5%

피트모스(Peat Moss)는 물이끼(sphagnum moss)가 탄화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화훼용토로 많이 사용하는데 다육식물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것 같다.

발효퇴비(유기질비료)는 주로 가축분 퇴비 등에 발효 효소를 넣고 발효 시킨 것을 사용하는데 사용 전 미리 개봉하여 가스가 충분히 빠져 나간 뒤에 사용해야 가스장해가 없다. 때에 따라 부엽토도 잘 건조시켜 보관하였다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소재가 사용되는데 모든 것이 오염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사용할 때 조금씩 조절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s)는 질석을 고온에 소성팽창 가공한 것인데 보수력이 매우 좋고 통기성도 우수하여 삼목이나 종자의 파종시에 사용되며 피트모스에 소량씩 첨가되어지기도 하다.

다육식물 배양토의 조제

다육식물 배양토 조제에 있어 제일 먼저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은 배수가 잘되어야 하며 거름이 다른 화분보다 1/3~1/2 정도로 작아야 한다. 대부분의 다육식물은 불모지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많은 비료가 필요치 않으나 미량요소의 결핍은 조심하여야한다. 정확한 비율은 각자의 취향이거나 기르는 스타일에 따라 다르나 다음과 같은 비율을 참고 바랍니다.

* 경험한 바로는 코코피트의 수명은 2년, 피트모스의 수명은 1년 정도로 생각할것



다육식물 용토의 최악의 경우는 과습과 과비이다.

대부분의 초보자들이 다육식물을 구입하면서 물어보는 것이 "물을 며칠에 한번 씩 주나요?" 이다. 여러 변수가 있지만 다육식물은 물을 많이 주게 되면 죽지만 물을 자주 안 주어서는 절대로(?) 죽지는 않는다. 식물체 내에 많은 물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건조기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잎에 두꺼운 왁스 층이나 잎 표면에 백납이 있는 경우가 많아 어지간한 가뭄에서도 잘 견딘다.

과습을 하게 되면 잎이 두터워지고 심하면 잎이 떨어지며 장마직후의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대부분의 다육식물은 죽게 된다. 줄기가 비대하여지는 아데니움(석화:Adenium) 같은 종은 줄기에서 액이 흘러내리기도 한다.



다육식물의 화분

다육식물을 재배하는 화분은 식물의 관상 가치를 높여주는 요인이지만 너무 모양에만 치중하여 선택하면 기능면에선 뒤 떨어 지는 경우도 있다.

농장에서 주로 재배하는 화분으로는 대량생산하는 이유로 PVC계통의 화분을 많이 사용하는데 가격이 저렴한 이점은 있으나 미관상 좋지 않은 경우가 있고 주위의 온도변화에 민감한 편이다. 대부분 다육식물을 외부에서 구입하거나 입수 했을 때는 기회를 보아 분을 교체할 겸 뿌리를 정리하여 2~3일 음건하였다가 새로운 용 토에 심는 것이 잘 키울 수 있다. 어떤 용토를 사용했는지도 모르거나 분갈이를 언제 했는지도 자세히 알 수 없으니 마음 편하게 새로 심는 것이 좋다. 자기가 키우던 것은 분갈이 시에 보통 한 치수 큰 것을 사용하는데 굳이 뿌리를 털어낼 필요는 없고 조심스럽게 1/3 정도의 용토를 털어내는 기분으로 분갈이하면 되는데 분갈이 후에는 바로 물을 주지 말고 2~3일 후에 관수하는 것이 좋다. 유기화분과 토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토분은 용토가 빨리 건조해 지는 단점이 있으나 물 빠짐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웅기나 자기로 된 화분은 가격이 비싼 것이 흠이나 배수가 잘되고 굳이 비싼 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다육식물을 취미로 재배하다보면 작은 공간에 많은 화분을 기르다보니 화분을 더 늘릴 때 마다 장소가 좁아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내 경험으로는 식물을 천천히 강하게 키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소한의 비료만 넣고 기르는 것을 습관화하면 다육식물을 기르는 것을 한층 즐거움을 느낀다. 큰 식물을 구입하여 관상하는 것도 재미있거나 작은 종묘를 구입할 수 있다면 키우면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볼 일이다. 취미재배가 이따금 지나친 소유욕으로 인해 비싼 것만 고집하는 매니아를 가끔 보게되는데 오래가지 않아 다른 취미생활을 찾고 있을게 뻔하다.



4 Season 원예용 가위

우수한 품질, 인체공학적 디자인, 합리적 가격



다목적가위

원예뿐 아닌 공구, 파혁 등 일상 생활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만큼 절삭력 등 핵심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둬
가격: 10,000원대



적과가위

과실 수확용. 과실의 상처없는 수확을 위해 한 번의 손길로도 쉽고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절삭력 강화에 강점을 둔 제품.
가격: 7,000원대



전지가위

가지치기에 사용되는 제품 최소한의 힘으로 편하게 가지를 자를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 디자인과 스프링구조의 제품
가격: 13,000원대



양손가위

조경용. 조경 작업에 최적화된 날 길이 및 무게를 고려한 점이 특징이다.
가격: 30,000원대

포시즌 원예용 가위 4종(전지 가위, 적과 가위, 양손가위, 다목적 가위)은 우수한 절삭력과 인체공학적 디자인,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춘 제품으로, 많은 원예업계 종사자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원예용 가위 4종은 날 부분을 고급 소재로 활용하고, 정밀한 연마기술을 통해 절삭력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날 부분을 표면 연마 및 크롬 플레이팅(Chrome Plating) 기술로 처리해 이물질이 잘 달라붙지 않는다.

제품 관련 문의: 도루코리빙 080-022-3211(소비자 상담실)

어성초 차를 마셔요

무늬어성초 (*Houttuynia cordata* 'Chameleon')

앞에서 생선비린내가 난다고 해서 어성초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이 약초는 요즈음 아토피, 감장제 등 여러 가지 효능 때문에 주목받는 받고 있으며 별레도 쫓아봅니다.

집에서 기르는 어성초로 차를 마셔요



1. 어성초 잎을 뜯어서 그늘에서 완전히 말립니다.



잎의 양을 많이 하면 입욕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2. 국물내가용 주머니에 넣어서 끓이면 건져내기가 쉽습니다.



3. 색이 나올때 까지 끓인 후 식힙니다.



박영미 기자

스완리버 싹티우기

G 이광범 기자

씨가 아주작은 종자들은 파종하기가 아주 까다롭다. 종자를 파종할 때 워낙 작아서 종자를 직접 뿌리면 고루 뿌릴수 없기 때문에 고운모래나 흙을 섞어 양을 늘려서 고루 뿌린후 묘상에 기른 다음 이식을 한다



1. 스완리버



2. 종자와 미세모래 혼합



3. 씨를 파은 스완리버

step by step

- 1) 파종상자 바닥에 망사를 깔고 작은자갈을 1/5정도 깐다
- 2) 파종용 흙을 화분 높이의4/5이상 채우고 고른다
- 3) 종자를 미세한 모래와 20:1로 혼합하여 파종한다
- 4) 파종상자위에 차광망을 덮어 일장조절한다



Kitchen Garden

키친가든(kitchen garden)에서 꽃의 역할

손관화교수

<http://sohn.yonam.ac.kr>
천안연암대학 화훼장식계열
(플로리스트리 전공+가드닝 전공)

키친가든은 우리 말로 '먹거리정원', '식용정원', '채소정원', '텃밭' 등으로 번역할 수 있으나 부엌에서 조리에 이용할 먹거리를 키우는 단순한 텃밭에서 벗어나 채소와 과수, 허브, 식용꽃, 절화 등을 얻을 수 있는 곳이며 일년 내내 시각적으로 매력적이어 구석진 곳이 아니라 아름다운 정원의 중심에 배치될 수 있는 정원을 말한다. 외국에서 키친가든은 가족을 위한 소규모 농원의 개념인 채소정원(vegetable garden)과는 역사적인 발전과정도 다르며 디자인에 차이를 보인다.

채소정원
Vegetable Garden



즉, 키친가든은 집터에 딸리거나 집 가까이 있는 기존 텃밭과 달리 꽃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먹거리 정원이거나, 정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아름다운 텃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키친가든은 과수, 채소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정원수와 초화류와 함께 구성된다.

신선한 먹거리를 재배하고 수확하는 즐거움에 대한 사람들, 특히 도시 주부들의 관심은 커져 가지만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국의 주거환경상 텃밭은 물론 키친가든을 가지는 힘들다. 아파트의 정원 한 부분을 키친가든으로 만들어 공동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이런 정원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정원이 없는 사람들도 현관 앞, 창가, 발코니나 베란다, 그리고 옥상에 작은 키친가든을 만들 수 있다. 크기가 큰 플랜티(planter)를 이용해도 되고, 크고 작은 화분을 이용해도 된다. 최근 외국에서 많이 이용하는 방법인, 저렴한 천막지로 만든 큰 가방에 토양을 넣고 식물을 식재하는 컨테이너 키친가든이 국내에 소개되고 있다. 국내에서 원하는 크기의 가방을 구입할 수 없다면 천막 만드는 곳에서 원하는 크기와 형태로 주문할 수 있다.

꽃이 있는 아름다운 먹거리정원에서 꽃은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것 외에 다양한 역할을 한다. 키친가든에는 꽃의 방향성과 방충성으로 인한 벌레들과의 상호작용이 있고, 다양한 꽃을 혼식함으로써 생물다양성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또 키친가든은 가정의 꽃꽂이를 위한 절화용 정원(cut flower garden)이 될 수도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외국에는 꽃과 함께 식재된 키친가든을 흔히 볼 수 있다. 영국의 핀드혼 가든에는 토마토를 키우는 비닐하우스에 메리골드를 가득 심는다. 메리골드는 강한 냄새로 짐작할 수 있듯이 곤충을 흔히하게 만들어 내쫓기 때문에 오랫동안 정원의 방충제 역할로 이용되어 왔다. 흰파리를 쫓기 위해 토마토나 파프리카(bell pepper) 아래 심거나, 당근 파리(carrot fly)에도 효과가 있으며, 딱정벌레(beetles), 진드기(spider mites)에 효과가 있어 콩 사이 그리고 오이 아래 심기도 한다. 메리골드는 향 뿐만 아니라 뿌리에서 alpha-terthienyl이란 물질을 분비해 선충에 해를 입히고 내쫓는 역할을 한다.

키친가든을 사진으로 소개하고 꽃의 역할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정리해보았다. 아직 한국에는 이러한 내용이 잘 소개되어 있지 않다.



www.gardena.or.kr '가데나' 한국총판
(주)경진미래 Tel. 02-574-6300



채소나 과수의 꽃 수분매개자인 곤충을 불러들이	밭을 불러들이기 위해 풀이 많은 꽃들 그리고 코스모스, 라크스, 민트, 해바라기, 스위트피, 백일홍 등의 청, 황, 백색의 꽃을 사이사이 심는다.	
이로운 곤충을 불러들이	파슬리, 딜, 코리안더, 국화과 꽃 등은 무당벌레, 풀잠자리, 기생벌, 먼지벌레(ground beetles)를 불러들이	아니스 히송(anise hyssop)
	보리지(borage)	양배추나방
	캐트민트(catmint)	토마토 박각시나방(tomato hornworm)
	금잔화	진딧물, 콜로라도 감자벌레(colorado potato beetles), 호박벌레(squash bugs)
	세이지	아스파라거스 딱정벌레(asparagus beetles)
해충을 쫓음	한련화	양배추 나방, 당근 러스트 플라이(carrot rust flies)
	메리골드	호박, 양배추, 콩, 오이에서 나방, 딱정벌레, 호박벌레(squash bugs), 진딧물(aphids), 기타 날벌레(lies)
	루즈마리	토마토, 아스파라거스, 양배추, 콩의 딱정벌레를 비롯한 벌레들(worms), 날벌레(lies)
	사탕고추냉이(horseradish)	양배추, 당근, 콩
	양파, 마늘, 차이브	감자벌레
		대부분 곤충
해충을 잡기 위한 몇 역할	채소 주위에 해충을 막기 위한 몇 역할로서의 꽃 식재. (예) 백색 재라늄을 정원에서 3-6m 떨어진 곳에 심으면 일본 딱정벌레(Japanese beetles)를 유인하고 독성 때문에 먹고 죽게 됨. 양배추 주위에 콜라드(collards)를 심음	
생물다양성 조성	꽃을 심어 다양한 식물들간의 공생관계를 만들고 해충이 공격식물을 혼동하게 만든다. (예) 공발 테두리에 메리골드와 코스모스 등 동반식물을 심어 나비와 벌, 무당벌레 등 익충을 유인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면 전체적인 먹이사슬이 안정되면서 노린재 등 해충의 발생을 줄인다.	
식용꽃 제공	보리지(borage), 금잔화, 민들레, 원추리, 한련화, 팬지 등	
절화용 플라워가든	다양한 절화용 꽃을 키우기 위한 플라워가든	

*이식 충분한 연구가 필요한 내용이 많음.

*이직 중분한 연구가 필요한 내용이 많음

우정아 DIY 재활용 가드닝

center piece :
Table 중앙에 놓여지는 집기들의 배열.

접시를 이용한 테이블 센터피스 디시가든(Dish Garden)



우정아 / 가든 코디네이터
KHDA(한국원예디자인협회) 향원회장

접시를 이용한 디시가든에 조형적 요소를 첨가해 테이블 위를 장식할 수 있는 센터피스를 만들어 보자. 야외에서나 실내에서 식탁 장식으로도 활용하면, 먹는 즐거움에 시각과 후각의 즐거움이 더해져 완벽한 식사가 되리라 생각된다.

접시를 이용한 가드닝 재료



마사토



철사



형광스킨답서스(골든 포토스)



아스타



접시



마디초



상토

Step by Step



마디초 줄기 속에 철사를 넣어 준다.



철사를 넣은 마디초를 +자로 엮어 우물정자로 만들어 준다.



우물정자 밖으로 새로운 마디초를 대어 엮어 준다.



접시의 바닥 면의 너비만큼 짜여지면 접시를 올려 놓고 찢아간다.



구를 만들고 위에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다치지 않게 철사를 정리한다.



접시에 배수층을 위해 씻은 마사토를 깔아 준다.



상토를 깔아 준다.



아스타의 뿌리를 조금 제거하고 식재한다.



형광스킨답서를 아래쪽으로 식재 후 상토로 빈 곳이 없도록 채워준다.



마사토를 덮어 준다.

관리법

- 배수구가 없는 플라그 테스트 후 관수량은 배수층만큼 한다.
- 아스타의 꽃이 지면 비로 꽃대를 제거해야 오래도록 꽃을 볼 수 있다.
- 가을이 지나면 형광스킨답서는 분리해서 실내에서 관리해야 한다.
- 아스타는 수간이와 관리를 잘하면 내년 여름에도 꽃을 볼 수 있다.
- 마디초 구조물은 자연스러운 갈색으로 변해 가을에도 어울리는 아이템이다.

청신도의 익어가는 두줄보리밭

살척36호 이삭이 긴 늘보리로 여섯줄 4각이다. 키가 작다

보리

BARLEY



글 사진 안완식 통종씨드림 대표

예산수집품, 충남 예산에서 수집한 무항종으로 키는 중간정도이다.

까락이 변형되어 삼차랑을 이루는 쌀보리이다.

전남대백선 2호는 전남도농촌진흥원에서 육성한 쌀보리이다. 키가 작고 일수형이다.

진주과, 경남 진주에서 재배하던 중간키에 이삭이 큰 쌀보리이다.

성인병 예방을 위한 건강식품

보리



보릿고개 시절 배고픔을 이기던 보리가 건강식품으로 바뀐 지 오래다. 키가 작아서 줄장보리라 했던가!

“두어 자 키에 이삭에는 짧은 까사래기(까락)가 있었는데 보리알이 꽤 잔편이었당께라.”라고 옛날 보리 먹던 시절을 회상하는 전남 보성군 조성면 규산리의 전종암씨는 이미 이 품종이 멸종된 지 오래란다. 예로부터 호남지방에는 쌀보리, 영남지방에는 까락이 긴 겉보리가 많이 재배되었다. 아마도 쌀보리는 내한성이 약해서 영남의 산간 추운 곳에서는 열어 죽기 십상이었을 게다.

남원 지방에 많이 심었던 청보리, 영광의 영광과맥, 마산의 마산과맥 등이 모두 쌀보리였다. 경북 영일 지방의 영일몽당보리나 까락이 길고 이삭이 길게 늘어지는 늘보리와 거창 고재면의 박춘생 씨가 심었던 재래보리가 껍질이 있는 겉보리다. 1980년대까지만해도 쌀다음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보리, 전국 93만 헥타르의 재배면적이 현재 3만 8천여 헥타르정도로 줄었다.

보릿고개가 무엇인지 모르는 요즘의 신세대들은 배고픈 설움을 잘 알지 못한다. 지금의 40대만 해도 어려웠던 시절 단 한 알의 쌀도 없이 감자를 넣고 지은 보리곰살미밥을 기억할 것이지만 현재는 건강식품으로서의 위치를 굳혀가고 있다. 보리 속에는 베타글루칸을 비롯하여 혈압을 낮춰 주는 빈혈, 당뇨병 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좋다는 비타민 B, 철분, 판토텐산, 엽산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또 보리 속에는 폴리페놀이란 물질이 들어 있어서 몸속의 유해물질을 밖으로 배출시킨다. 보리에 많이 들어있는 토코트리엔놀 성분은 체내에서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억제하여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소화흡수나 맛에 있어서는 쌀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쌀에는 없는 비타민군이 풍부하여 각기병을 예방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 풍부한 식물성 섬유가 장을 깨끗하게 해 주고 소화를 촉진시키며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변비, 설사로 비롯되는 피부 트러블에 좋은 효과를 보이며 대장암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다.

마산과맥, 경남 마산지방에서 심어왔던 마산과맥, 칼보리이어서 밥맛좋은 보리품종육성을 ~



보리는 성분의 조직이 거칠고 끈기가 적어서 쌀보다 씹는 횟수가 많으므로 타액의 분비가 활발해져서 단맛이 나고 소화흡수도 잘 된다. 병을 앓고 난 뒤나 체력이 떨어졌을 때 약효가 높은 팔과 함께 죽을 끓여 먹으면 효과가 좋다. 음식을 씹는 횟수가 많으면 이나 턱이 튼튼해지므로 성장기 어린이의 발육에도 좋다. 또 식사하는 데 시간이 걸려 소량으로도 만족감을 얻을 수 있으므로 다이어트 효과도 높다. 비만대책이나 당뇨병 환자의 식사로는 안정맞춤인 셈이다. 하지만 보리는 열을 빼앗는 작용이 있으므로 위장이 차서 설사를 하는 사람이나 젖이 잘 안 나오는 산모는 적게 먹는 것이 좋다.

1992년 10월, 미국국립보건원 생화학 연구실장 얼 스타트인 박사는 보리 속에 최고 6.3~4.09%나 함유되어 있는 셀레늄이 노화와 각종 암을 유발시키는 과산화지질을 억제시켜 인체의 면역 기능을 증강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세상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보리의 소비가 줄어 예전처럼 많은 양을 재배하지 않음으로 인해 여러 가지로 보이지 않는 큰 손실을 가져왔다. 보리는 겨울철의 농촌 유휴 노동력의 활용이나, 보리 재배에 의한 탄소동화 작용으로 오는 대기의 정화 및 산소 생성, 토양 유실의 방지 및 축산 폐기물의 재활용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쌀보리(왼쪽)와 겉보리(오른쪽)



토종보리 이삭 모양의 여러가지. 왼쪽 왼쪽부터, 거창재래, 늘보리, 예산수집, 순천수집.



늘보리



영광과맥-1. 전남 영광에서 수집한 영광쌀보리로 까락이 길고 키가 작다.



재래육각, 어섯줄보리로 키가 1m 정도로 크고 까락이 길다.



중다리, 경기도 용인에서 수집하였다. 까락이 짧고, 키는 중정도로 크다.



창녕재래, 창녕지방에서 삼았던 보리. 이삭이 길고 늘어진다. 키가 큰편이다.

열차의 창밖 밖으로 바라보면 마음을 확 트이게 해 주던 5월의 보리밭과 바람결에 물결치며 풍요로움을 안겨 주던 6월의 황금보리밭이 없어지므로 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서적으로 얼마나 낙막해지고 있는지도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창녕도의 옛어귀는 두줄보리였다.

보리 식품의 우수한 영양학적 특성은 우리 국민에게 준 영양이 대단히 컸었다고 생각되거나 우리 나라의 보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보리가 국민의 영양에 보다 큰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하여 보리밥맛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찰보리품종을 육종하였다. 토종 보리품종인 창녕 쌀보리, 마산 찰보리, 신안 찰보리, 제원 찰보리, 함안 찰보리 등의 토종찰보리가 갖는 찰지고 밥이 잘되는 특성의 유전자를 갖는 보리 신품종을 육성하였다. 요즈음 건강식인 보리밥집에서 먹을 수 있는 보리밥이 모두 새로 육성한 찰보리품종으로 지은 보리밥이다. 찰보리 중에는 찰겉보리와 찰쌀보리가 있다. 찰보리는 보통의 보리쌀에 비하여 호화온도가 일반 겉보리 86.5도에 비하여 약 15도 정도가 낮아 밥이 쉽게 될 수 있으며, 특히 찰기가 있어서 씹는 맛이 부드럽고 좋아서 보통의 보리처럼 밥을 짓기 전에 미리 삶을 필요가 없이 쌀과 함께 밥을 지을 수 있다. 1978년 이후로 찰보리, 서둔찰보리, 송학쌀보리, 진미찰보리, 흰찰쌀보리외에도 많은 찰쌀보리품종이 육성되어 농가에 보급되었으며, 현재 보리밥용으로 쓰이는 보리쌀은 모두 찰쌀보리 또는 찰보리이며 현재는 찰보리쌀 가격이 2,500원/kg로 쌀의 약 1.5배정도로 비싸게 유통되고 있다.

토종보리로는 경기도에서 재배되던 키다리보리, 충남 홍성 지방의 홍성보리, 영·호남 지방의 앉은뱅이 보리·봉당보리·난장보리·영광과맥, 진주과, 창녕재래, 충청지방에는 까락이 없는 중보리 홍성수집종, 예산수집종이 있었고, 강원도 지방에서 재배되던 삼척36호, 영월의 영월 육각 외에도 많은 품종이 있었으나 지금은 400여 종이 종자은행의 저장고에서 빛 볼 날만을 기다리며 동면중에 있다. 토종보리 중에는 겉껍질이 붙어 있는 겉보리와 겉껍질이 붙어있지 않은 쌀보리, 키가 큰 것, 작은 것, 이삭이 긴 것, 짧은 것, 늘어지는 것, 보리의 색이 갈색인 것, 자색인 것, 까락이 긴 것, 짧은 것, 없는 것과 변형된 것 등 다양한 특징을 갖는다.

보리가 건강식으로 각광 받으면서 근래에는 보리로 만드는 음식의 종류 또한 다양해졌다. 보리밥, 보리빵, 보리떡, 보리차, 감주, 맥주, 엿기름으로 고추장, 보리간편, 미숫가루 등이다.

구포쌀보리, 부산광역시 구포에서 수집한 어섯줄 쌀보리로 키가 작으며 이삭이 크다



홍성재래, 충남 홍성지방에서 성수집한 홍성재래는 성숙하면서 자갈색을 띤다



티벳이 원산지로 알려진 보리는 재배역사가 7,000~10,000년이나 된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삼국유사>에 B.C. 1세기 경 주몽(朱蒙)이 부여왕국의 박해를 받아 남하하였을 때 그의 생모 유화(柳花)가 보리 종자를 기탁하여 보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보리는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본다.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에서 B.C. 5~6세기의 껍질보리가 출토된 바 있다. <삼국사기>에도 보리가 오곡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아 한반도에는 적어도 2,500년 이전부터 재배되어 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땅에서 유구한 재배 역사를 갖는 보리는 한국인의 건강을 지켜주는 큰 몫을 해왔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환경 공해의 위협 속에 우리가 먹는 식품마저도 그 오염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보리만은 재배중에 농약 한 번 칠 필요 없는 완전 무공해 식품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중다리, 경기도 용인에서 수집하였다. 까락이 짧고, 키는 중정도로 크다.



영광영당보리, 경북영일지방에서 수집한 겉보리. 이삭이 가늘고 긴 볼보리이다.

콩보리밥

소화가 좋고 위장에 부담이 없으며 비타민이 풍부하다. 된장찌개와 갖가지 나물을 곁들이면 더욱더 균형 있는 영양을 이루고 쫄쫄쫄한 찰기와 오독오독한 씹히는 맛이 입맛을 살린다.

재료 : 보리 2컵, 쌀 ½컵, 검은콩 ½컵

1. 쌀보리는 잘 씻어 씻어 깨끗이 헹군 다음 솥에 물을 넉넉히 붓고 1시간 정도 불려놓는다.
2. 쌀과 검은콩은 밥을 짓기 30분 전에 깨끗이 씻어서 찬물에 담가 불려놓는다.
3. 압력밥솥에 보리를 안치고 쌀과 콩을 넣어 잡곡취사에 맞추어 밥을 한다.
4. 잡곡취사가 끝난 다음 5분정도 지나서 완전히 뜸이 들면 된장찌개나 콩나물무침, 호박나물, 무나물, 열무김치 등을 곁들여 참기름 한 스푼 넣고 비벼 먹으면 좋다.

보리뜨물장

옛날 어른들이 여름철 입맛이 없을 때 즐겨 먹던 음식으로, 된장의 짭짤한 맛과 보리뜨물의 진한 맛이 식욕을 돋워 준다.

재료 : 보리쌀 1되, 물 8컵, 방아잎 30g, 된장 2큰술

1. 보리쌀을 깨끗이 문질러 씻어 뜨물을 받아두면 보리 앙금이 두껍게 가라앉는다.
2. 가라앉은 앙금을 건어 내어 물을 붓고 된장을 풀어 문근한 불에서 끓인다.
3. 뜨물장이 독특하게 끓여지면 방아잎을 넣어 한소끔 더 끓인다.



잘 볶은 보리 또는 껍질 없는 보리를 하루 10g씩 끓여서 복용하면 여드름이 없어진다. 보리는 몸을 차게 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임신중이거나 생리중에는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평소에 긴장감과 초조감이 심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잦을 때 겉보리 20g에 꿀 2큰술, 육두구(nutmeg)와 계피 한 줌을 넣고 뜨거운 물에 녹여 마시면 증세가 가라앉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마음처럼 맑게 끓인 보리죽은 핏속의 독소를 없애고 피를 맑게 하기 때문에 혈맥을 젊게 하고 얼굴색을 좋게 하며 심장 질환을 낮게 한다. 또한 핏속에 콜레스테롤이 쌓이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성인병을 예방한다.

작물보호제는 우리 편!



볼과 심 여 년 전만해도 이렇지는 않았었는데 요즘 날씨가 예나름지 않다. 기후변화, 우리나라의 날씨가 아열대화가 된다는 말... 그리고 장대비와 엄청난 습기.

습한 날씨는 병 발생에 가장 적합한 환경.

이는 여름에 병이 발생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 병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글 사진 충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장차병진

오늘 날 우리의 먹을거리 걱정을 불식시키며, 지난 세기의 폭발적 인구증가의 후유증을 막아준 것은 모두 다 작물보호제와 작물영양제(비료)의 덕이다. 이것들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지금같이 살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농경을 시작한 아주 오랜 옛날부터 병해충과 잡초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괴롭혀 왔다. 식물병에 의한 시달림이 얼마나 컸으면 사람들이 식물병을 하늘이 내리는 천벌로 알았을까? 사람들은 이런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준 것이 바로 농약, 즉 작물보호제이다.

흔히들 농약은 해로운 것으로만 인식하는데, 그것은 오해이다. 몇 달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아스피린이나 감기약이 그렇듯이 농약도 '약'이다. 농작물에 해로운 병원체나 벌레, 잡초 등을 없애거나, 또는 발생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여 식물의 건강을 지켜주는 약이이며 그 덕에 우린 건강하고 싱싱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도 몸이 불편하여 견딜 수 없으면 약의 힘을 빌리듯이 식물도 병해충에 시달릴 때는 약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람들은 약을 먹으면서 식물은 약 먹지 말라는 것은 너무도 불공평한 일이다. 더군다나 식물이 생산하는 것은 모조리 사람들 차지이면서도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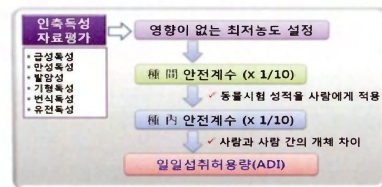
작물의 병해충이란 것은 때로는 사람들의 생존까지도 위협하는 커다란 문제였기 때문에 실제로 병을 줄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었으나, 초기에는 고사를 지내는 등 대개 신에게 의존하는 방법들이었고, 본격적으로 병해충 방제에 대하여 과학적인 접근이 시작된 것은 르네상스, 즉 문예부흥기 이후였다. 15세기 초 접어들면서부터 다양한 화학물질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가 시도되었으며, 급기야 20세기에는 수많은 농약들이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며 농업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로부터 해방되었다. 예전에는 거의 모든 작물보호제들이 화학적으로 합성한 물질들로서

인축에 대한 독성이 강한 것들이었으나, 최근에는 저독성인 것들만 사용되고 있으며, 살아있는 미생물이나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만드는 천연식물보호제도 상당히 개발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합성 작물보호제 및 천연물을 이용한 작물보호제, 즉 일반 농약 및 친환경 농약은 농촌진흥청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표 1).

표 1.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천연물 및 화학합성 작물보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종류	검색 사이트
천연물 작물보호제 (친환경 농약)	http://www.rda.go.kr → 기술정보 → 농자재정보 → 유기농업자재 → 유기농업 자재 공식 및 품질인증 제품목록
화학합성 작물보호제 (일반 농약)	http://www.rda.go.kr → 기술정보 → 농자재정보 → 농약등록현황 및 사용기준 → 농약등록목록 내역 검색서비스 바로가기 → 농약등록정보 검색서비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과는 달리, 농약은 실제로는 개발부터 등록까지 의약품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철저한 안전성 평가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개발된 이후에도 안전 관리를 위해, 소비자가 평생 동안 매일 먹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농약의 최대량을 찾아내어 그 농약의 잔류기준을 만든다(그림 1).



(그림 1) 작물보호제의 1일 섭취허용량(ADI) 산출. ADI: acceptable daily intake, 체중 kg 당 하루섭취량(mg/kg/day)으로 표시(자료출처: 농촌진흥청)

또한,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농약의 이동경로와 환경 잔류정도를 평가하고, 농약을 사용하는 지역 주변의 환경과 생물에 미치는 생태독성의 정도까지 평가하고 있다. 즉, 농약 개발 및 사용에는 여러 단계의 안전기준들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농약의 위험성은 일반인들이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적다(가든인 2014년 2월호 36쪽 참조). 농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처구니없는 일은 소중한 아이의 건강을 위한다는 생각에 무농약 유기농재배 농산물만 골라서 먹이는 엄마가, 그 아이가 모기에 물릴까봐 잠자는 머리맡에 모기약을 켜두는 것이다. 사람을 잠자는 방에 몇 시간을 켜 두어도 큰 문제가 없는 모기약(분사제, 모기향, 전자매트 등 포함) 역시 살충제라는 사실을 모르시기 때문일까? 아니면, 똑같은 농약인데 왜 모기약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

작물보호제를 분류하는 기준은 제형이나 화학적 조성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등 사용대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살균제는 병원균의 특정 물질 생합성이나 에너지 대사 등을 저해하며, 살충제는 신경전달계나 생합성계, 에너지 대사 등을 교란하고 호르몬을 제어하여 벌레를 죽인다. 제초제는 광합성이나 영양대사 또는 호르몬 작용 등을 억제하는 것이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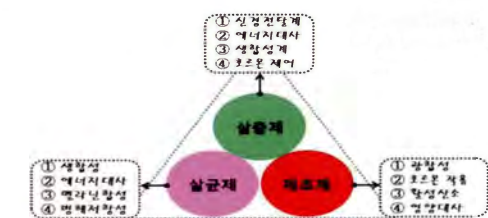


그림 2. 작물보호제의 작용 원리. 원의 색은 살균제는 분홍색, 살충제는 녹색, 제초제는 적색 등 약제 포장상표의 색을 의미한다(자료출처: 농촌진흥청)

이러한 작물보호제의 효과는 제형, 즉 제제의 형태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똑같은 성분으로 모두 근육통에 사용하는 것이라도 테이프같이 붙이는 파스도 있고, 스프레이도 있으며, 물파스, 심지어는 로션 형태의 파스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는 파스의 종류가 다르듯 최고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작물의 특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적당한 제형을 선택하여야 한다. 사용하기 쉽고 편하면서도 약효는 좋고 약해는 없는 것이 좋겠다. 21세기에 들어와서는 환경오염을 우려한 각국이 기능성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작물보호제의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6월 현재 총 1,291종의 친환경 유기농업자재가 등록되어 판매 중이다. 물론 이 숫자는 작물보호제 뿐만 아니라 비료, 영양제 등 작물영양제와 작물강화제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지만, 10년 전과 비교할 때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친환경살충제들은 대부분 고삼추출물이나 님오일(Neem oil) 등 식물 정유 또는 곤충병원성 미생물(곤충병원균)을 이용하는 반면, 친환경

살균제들은 대부분 길항미생물 또는 그 미생물의 대사산물을 이용한 것들이다.

길항미생물이란 병원균이 자라거나 증식하지 못하도록 병원균을 죽이거나 억제하는 미생물, 즉 병원균의 천적미생물이라고 할 수 있다. 길항미생물들은 항생물질을 생산하여 접근을 막거나(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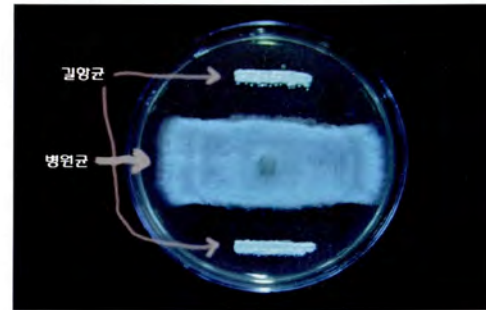


그림 3. 병원균의 군사가 항생물질을 생산하는 길항미생물을 피하여 양 옆으로만 자라는 모습.

병원균을 녹여버리는 용해효소를 분비하는 것들이 많다. 일부는 병원균에 가생하여 괴롭히기도 하고(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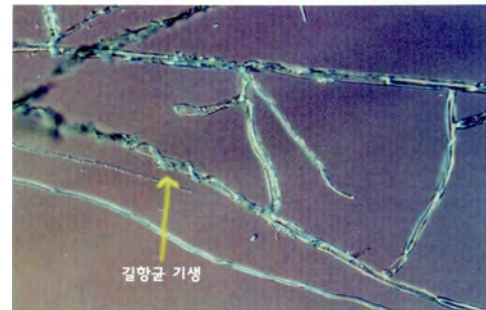


그림 4. 길항미생물이 양분을 뺏어 먹기 위하여 병원균의 군사를 잡고 자라는 모습

또 일부는 먹이나 서식지를 놓고 병원균과 경쟁하여 병원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도 한다(표 2).

표 2. 작물 병원균에 대한 길항미생물의 작용기작

방 법	내 용
배적, 살균	항생물질(antibiotics) 생산
파괴	세포벽 용해효소 분비
경쟁	양분 및 서식지 선점 또는 탈취
기생	영양분 탈취 및 감염

하지만, 아쉽게도 대부분의 친환경 작물보호제들은 살충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며, 살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많지 않고, 그나마 흰가루병 등 특정 병에에 치중되어 있다. 그래도 가정 내의 화단이나 화분식물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방제하는 데에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서 다행이며 화초류에 생기는 웬만한 벌레들은 사람이나 동물에는 영향이 매우 적은 친환경작물보호제로도 방제가 가능하다.

2014 초화, 야생화, 채소종자 TOP 11



꽃이 저도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에키나세아
솔방울 이삭이 아름다워 절화로 좋습니다. 다년생으로 매년 만나볼 수 있는 분홍 에키나세아
■ 초장 : 60~70cm, 파종 : 3~4월, 개화 : 6~8월, 5g : 3,000 원



바람에 날아가는 나비 같은 풍접초
꽃 피기전 실라모양으로 꽃술을 꽃잎에 싸고 개화하면서 풀어놓는 모습이 아름답다.
■ 초장 : 60~70cm, 파종 : 3~7월, 개화 : 6~10월, 5g : 1,500 원



매우 화려하여 축제에 많이 이용되는 양귀비!
귀하의 집앞에 축제를 재현해보세요. 추파용 종자로 가을에 씨앗을 뿌려야 다음해에 크고 건장한 양귀비꽃이 개화됩니다.
■ 초장 : 70~100cm, 파종 : 10~11월초, 개화 : 5~6월, 5g : 3,000 원



빠르게 꽃을 피워내는 코스모스 빅스타사계!
파종 후 60일후에 개화되어 작고 귀여운 코스모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 초장 : 60~80cm, 파종 : 3~7월초, 개화 : 6~10월, 5g : 3,000 원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에 좋은 브로콜리!
식이섬유 뿐만 아니라 비타민C도 풍부하여 피부 관리에 탁월합니다. 실내보다는 실외 재배가 좋습니다.
■ 파종 : 3월 또는 7월, 15~20℃로 관리, 장마철 주의, 10립 : 1,000 원



눈 건강에 가장 좋은 채소 근대!
뿐만 아니라 골다공증예방 및 항암효과에 탁월합니다. 초보자도 기르기 쉽습니다.
■ 파종 : 3월, 이식 : 4월, 수확 : 6~11월, 1g : 2,000 원



금연 도움을 주는 케일
니코틴 제거 효과가 뛰어난 금연 계획을 세우신 분에게 매우 좋습니다. 호생성 채소로 추위를 잘 견뎌 겨울까지 실외 재배가 가능합니다.
■ 20립 : 1,000원



산후 조리에는 좋은 노란 호박!
이노작용을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어 산후 복기 빠지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발아율이 매우 좋습니다.
■ 3립 : 3,000원



노화를 예방해주는 고마운 빨간무(비트)
파종 후 20일 만에 수확 가능합니다. 실내,외 어디든 잘 자랍니다.
■ 1g : 2,000원



흙 없이 기르는 새싹채소!
씨앗을 하루정도 물에 불렸다가 물 적신 솜위에 뿌린 뒤 5~7일이면 바로 수확하여 먹을 수 있습니다.
■ 1g : 1,000원



봄~가을까지 계절따라 다르게 연출되는 26종의 야생화
26종의 종자가 혼합되어 개화시기에 따라 다양한 꽃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년생 종자로 이루어져 매년 관상이 가능합니다.
■ 파종 : 연중가능 | 50g : 15,000원



우리꽃 이천 그린아카데미 교육안내

국화향기가 아름다운 사람들

우리꽃 국화분재반 회장 박선영

Q. 국화분재 수업은 어떤 수업인가요?
국화의 재배 환경과 생리 그리고 수형별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국화 분재 작품을 만들어 봅니다. 2013년 우리꽃의 그린아카데미에서 인연을 맺은 수강생들과 함께 이순영 소장님을 모시고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수업이 시작되었지만 언제든지 새로운 인연, 환영입니다.



Q. 우리꽃 국화 분재반만의 자랑이 있다면요?
우연히 만난 인연에서 이렇게 길고 깊게 이어지는 우리의 보임이 국화 향기처럼 질고 깊은 것 같습니다. 수업을 하다보면 국화향기가 꽃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사람에서도 나는 것 같아요. 또 서로 보듬고 아껴가며 국화 뿐 만이 아닌 인생의 지혜와 위로와 격려를 나눌 수 있어 우리 국화분재모임이 너무나 좋습니다.



Q. 어떻게 국화분재의 매력에 빠지게 되셨나요?
사실 국화는 길에서도 들에서도 흔하게 보는 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천그린아카데미에서 우연히 접한 국화분재 수업을 통해서 특별한 매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들판에 핀 국화도 아름답지만 더 깊게 국화 속으로 들어가면 종과 수형에 따라서 그리고 키우는 사람의 정성과 마음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뽐내는 매력을 보는 즐거움이 좋습니다.

Q. 올해 전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작년에 첫 전시회를 신분당선 판교역에서 열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들판에서 피는 꽃으로 여겼던 국화를 화분에 담아두고 조형미를 펼쳐보이니 일반 시민분들께서 많은 호응과 관심이 있었습니다. 분재를 만드는 방법과 어느 정도 실력이 필요한지에 이어 얼마에 파는지 까지 많은 질문들이 쇄도했습니다.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올해에도 전시 계획이 있습니다. 2014년 11월 강원도 홍천군에서 국화의 분재 매력을 다른 분들과도 더욱 많이 공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의안내

강의 일시 : 2014년 6월 ~11월
강의 내용 : 국화의 재배 환경과 특성 생리를 이해하고 국화 분재 작품을 만들어 본다.
교수 소개 : 이순영 소장 (국제농업박람회 자문위원, 함평군 축제 기술 자문원, 수형별로 배우는 국화분재 저자)
전시 일정과 소개 : 2014년 11월 / 강원도 홍천군 장항리 33-4번지 국화분재반 박선영 회장(010-4197-5992)
이천그린아카데미 국화분재반 문의 : 031-634-7990



제주 신라호텔 숨비정원 천혜의 자연 속에 자리잡은 자생식물원

글 사진 김지태
자료협조 제주 신라호텔

제주 신라호텔은 서귀포 중문단지에서도 명물로 꼽히는 호텔 겸 리조트다. 신희여행은 물론 가족단위로 많이 찾는 휴양지로 유명하고 그만큼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 중 제주 신라호텔만의 명소가 바닷가에 면한 산책로와 숨비정원인데 이곳의 진가를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다. 자연친화적으로 조성되어 편안한 느낌을 주는 숨비정원의 식재 컨셉 및 관람 포인트를 집중 소개하기로 한다.

제주 신라호텔은 24년 전인 1990년에 개관했다. 90년대 초반 제주 신라호텔을 처음 찾았을 때 산책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넓었던 느낌이다. 아마 지금같은 산책로가 조성되기 전 야산에 가까웠기 때문이라. 제주 신라호텔은 다년 간의 노력을 기울여 태평양을 바라보는 이 야산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조성했다. 인공적인 구성을 배제하고 최대한 자연 그대로의 느낌을 살렸다는 점이 숨비정원의 가장 큰 매력포인트다. 식재들도 복수초, 매발톱꽃, 도깨비고비 등 우리나라의 자생식물을 사용해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인근의 다른 호텔들보다 신라호텔이 가장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도 아마 숨비정원이 큰 몫을 하리라 여겨진다. 산책로를 따라 태평양과 면한 바닷가 쪽으로 걷다보면 울창한 수목들 사이로 숨비정원이 펼쳐진다.



약 1만여 평의 숨비정원에는 류와 연의 연못, 억새원, 허니문 로드, 작은 동물원과 자연 학습장 등이 갖춰져 있다. 작은 동물원 옆 자연 학습장에는 한라개승마, 탈머위, 소황금, 미역취, 수크령, 두메부추, 질경이 등 제주에서 만 날 수 있는 식물들을 비롯해 따뜻한 남부 지역에서 서식할 수 있는 다양한 종의 식물들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을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자연 학습체험이 가능해 특히 어린 자녀를 동반한 투숙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다



동글레

속근성 다년초로 높이 40~80cm까지 자란다. 지하경이 굵고 길며 땅 속에 뻗어 자라고 마디 사이가 길다. 잎은 긴 타원형이며 한쪽으로 치우쳐서 붙어 있고 잎 뒷면은 연한 백색을 띠고 줄기와 잎 사이에는 잎자루가 없다. 백색의 꽃은 5~6월 경에 개화하며 줄기와 잎 사이에서 1~2개의 꽃이 핀다. 어린 순은 식용하고 뿌리는 약용과 식용으로 쓰인다.

수크령

속근성 다년초로 근경에서 질기고 억센 뿌리가 퍼진다. 잎은 납작하고 질기며 약간의 털이 있고 중간쯤에서 아래로 늘어지고 꽃은 화수가 원주형이고 8~9월에 핀다. 잎이 질겨 공예품, 관상용, 절화의 소재로 이용되고 있다.

미역취

속근성 다년초로 줄기는 직립하고 붉은 자색을 띤다. 줄기는 상부에서 분지하고 잎은 긴 타원상 피침형이며, 위로 올라 갈수록 작아지며 꽃은 7~10월에 황색으로 두화가 핀다. 어린순은 나물로 먹고 건위제나 이뇨제로 민간에서 이용한다.

숨나물

다년생 초본으로 높이 20cm 안팎이고 봄철에 꽃이피는 화경은 높이 10~20cm로서 근경이 짧다. 5~9월에 꽃이피고 백색 또는 연한 자줏빛이 돈다. 가을형은 잎이 크고 높이가 60cm 안팎에 달한다. 봄에 피는 두상 화서에는 설상화가 있고 가을에 피는 두상 화서에는 달현 꽃이며 통상으로 핀다.

매발톱꽃

다년생 초본으로 높이 50~100cm까지 자란다. 녹색의 잎은 여러 갈래로 갈라지며 줄기는 가늘고 길다. 꽃은 6~8월에 가지 끝에서 아래로 피고 길모양은 자갈색 꽃이 밖으로 향하고 안쪽의 꽃잎은 연한 황색에 안쪽으로 말린다. 열매는 10월에 성숙한다. 노란색 꽃을 피는 것은 노랑매발톱이라고 하는데 독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질경이

다년생 초본으로 화경은 높이 90cm 안팎이고 원줄기가 없으며, 많은 잎이 뿌리에서 나와 비스듬히 퍼지고 6~8월에 꽃이 핀다. 꽃색은 백색이며 우리나라 전국 각처에 흔히 자생하며 식용, 약용으로 쓰인다.

원추리

산야에 자생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높이는 40~80cm 정도로 자라고 뿌리에는 방추형의 흰 괴근이 있다. 잎은 양측으로 다수가 속생하며 상부는 뒤로 젖혀져서 곡선을 그리며 늘어진다. 잎은 반쯤 앞으로 접혀서 회녹색이 나고 포엽이 있다. 포는 피침형이며 꽃은 갈매기 모양이다. 꽃잎 끝은 진황색 혹은 오렌지 색인데 중심부는 진황색이다. 어린 잎과 꽃은 식용하고 뿌리는 약용한다. 7월에 꽃을 피우는데 꽃말은 '지성'이다.



두메부추

다년생 초본으로 높이 20~60cm 정도 자라고 인경은 난상 타원형이며 길이 4cm정도로 외피가 얇은 막질이고 섬유가 없다. 잎은 뿌리에서 많이 나오고 길이 20~30cm 너비 2~9mm로 살찐 부추잎 같고 8~9월에 홍자색의 꽃이 피고 꽃은 산형으로 많이 달리며 10월에 열매가 성숙되며 삭과이다. 연한 부분과 인경은 식용하며, 민간에서 인경을 구충, 이뇨, 강장 등에 쓰기도 한다.

갯기름나무

다년생 초본으로 주로 바닷가 근처에서 서식하는데 1m 까지 자란다. 굵은 뿌리는 목 부분이 섬유질로 쌓여있고 회녹색 잎은 흰가루를 칠한 듯 하다. 6~8월 경에 가지 끝과 원줄기 끝에 흰꽃이 뭉쳐서 핀다. 뿌리는 약용으로 쓰인다. 제주도에서는 석방풍이라고도 불린다.



자란

다년생 초본으로 높이 50cm까지 자란다. 해안가나 해변 암석지 등에 주로 자생하고 모양은 새우란과 비슷하다. 잎은 긴 타원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세로로 많은 주름이 있다. 꽃은 5~6월에 잎 사이에서 꽃대가 나와 6~7개의 꽃이 아래서부터 위로 피고 꽃 색깔은 홍자색이다. 열매는 맺지 못하며 주로 관상용이나 절화용으로 재배한다.



Jeju SOOMBI GARDEN

털머위

상록 다년생 초본으로 해변에 자생한다. 바닷가나 습지, 반그늘에서 잘 자라며 키는 30~50cm까지 자란다. 줄기 전체에 연한 갈색 솜털이 있고 잎은 뿌리에서 모여서 난다. 9~10월에 개화하는데 가지 끝에 1개씩 꽃자루들이 달리 산방 모양으로 핀다.



백량금

높이가 1.5~2m까지 자라는 상록관목인데 화분에서는 30~60cm 정도 자란다. 잎은 호생하고 긴 타원형으로 잎가에 둔한 거치가 있다. 잎은 두꺼우며 여린 혁질에 광택이 있다. 꽃은 흰색인데 가지 끝에 산형화서로 된다. 꽃받침, 꽃잎, 수술이 모두 5개인데 열매는 구형으로 붉은 주홍색이다. 여름에 개화하는데 온실에서는 3월에 꽃이 핀다. 꽃말은 '먹이는 사람'이다.



이건 몰랐지?



콜라나무 (cola nitida)

뜨거운 여름, 더울 때 가장 생각나는 탄산음료는 무엇인가요?

탄산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콜라입니다.

콜라를 만드는 비법은 전 세계에 2명밖에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명은 흑사나 하는 사고 때문에 함께 비행기도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콜라의 원료가 전부 밝혀진다면 정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겠지요?

혹시 콜라나무라고 들어보셨나요? 콜라라는 이름은 콜라나무에서 추출되는 원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붙여졌다고 합니다.

콜라나무는 서아프리카가 원산지이며, 열대 지방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20m에 달합니다. 종자는 커피에 들어 있는 양의 2~3배에 달하는 카페인과 콜라닌이 들어있어 피로를 푸는 데 효과가 있어 씹어 먹기도 합니다. 코카나무 잎의 추출물과 콜라나무 열매의 추출물을 혼합하여 콜라를 만듭니다.

무더위에 시원한 콜라 한잔 마시며 콜라나무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여름이 되길 바랍니다.

박세진기자

일상에서의 탈출 정원



가든인 글/사진 양지선기자

따사로운 햇볕은 이제 여름을 맞이하며 이글이글 타오르기 시작했다. 단조로운 일상속의 내 자리에서 편안함과 넉넉한 즐거움을 만나러 정원을 방문 해보는 것은 어떨까? 낯설지만 잠시만 머무르다보면 참으로 친해지기 쉬운 친구가 정원이다.

>> 심는 것보다 정성스러운 관리 체험 현장으로



구슬땀 흘리며 정원 속으로 푸욱 빠져든다.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던 어느 날 정원에서 하루를 경험하기 위해서 성인 여러분들이 모여 이천 농장에 방문했다. 정원에서 가장 먼저 친구가 되고 가장 오래도록 친구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잡초와의 놀이다. 특히나 꽃이 많이 피고 정원이 가장 풍성해지는 여름이면 잡초들과 떨어질 수 없는 절친한 친구가 되어버린다. 이런 잡초 때문에 정원을 가꾸다 지쳐 버린다면 친구가 아니라 원수가 되어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이 잡초가 정원에서의 가장 큰 휴식과 위로가 되기도 한다. 여기저기 고개를 내민 풀들을 쫓아가다보면 복잡한 생각이나 마음속에 꼬여있는 무언가가 저 멀리로 달아나버린다.

가족나들이 정원 속 체험

우리 어린이들도 정원놀이에 빠질 수 없다. 꽃놀이를 위해 준비된 꽃 밥상입니다. 보라, 주황, 핑크, 흰색 노랑까지 자연에서 나오는 화려한 색깔들에 아이들 눈이 휘둥그레진다. 아빠 엄마는 정말 오랜만에 꽃향기도 쿵쿵 맡아보고 스르르 쓰다듬어보며 질감도 느껴본다. 우리 가족에 어울리는 꽃들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개성들을 가지고 있을까? 이야기하면서 엄마 아빠가 맞춰가는 동안 아이들은 흙 놀이, 물놀이를 즐긴다.



식물 설명을 들으며 활동
말아보고 화분 디자인도 해 본다



엄마 아빠가 꽃 보는 동안
우리는 흙 놀이 물놀이



회분이름은 엄마 아빠에게 맡겨두고
어린이들은 놀이터

가든조아 가족만들기 체험
(그룹, 가족단위 환영 /
사전예약 필수: 031-634-7990)

청소년도 청년도 자연 즐기기

5월 30일 여성가족부에서 주최한 2014 청소년 진로박람회에 참가한 숲에서 잘 노는 단체 '청어'를 만났다. 자연과 숲에서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교육을 벗어나 진정으로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노는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는 청어는 청소년들과 함께 자연물을 활용한 만들거를 했다. 사실 숲에서 만나는 것이 진정한 자연놀이이지만 아쉽더라도 청소년들과 만나서 자연 이야기를 하는 것에도 의의를 두었다고 한다.



미술과 야생화의 만남



서울시 강동구의 강동벽화마을에는 아주 특별한 꽃길 골목이 있다. 따스한 강동의 벽화그림에 야생화가 어우러져 더욱 풍성한 골목을 만들고자 주민 분들과 함께 미술과 야생화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정성스러운 손길로 재미난 화분들이 완성되었다. 골목길의 야생화 화단과 집 앞 계단과 벽돌담에 놓여있는 야생화 화분들이 골목길에 아름다움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한다.

배송체험도 어디든지



계절에 맞는 야생화들로 배란다 정원을 꾸며볼 수 있다. 이천 농장에서 직접생산한 건강한 신품종의 야생화를 집으로 직접 배송가능하다. 다년생의 싱그러움 여름 야생화들이 휴가철 배란다 정원에 풍성함을 준다.



가든인에서 알려드려요

저긋저긋한 민달팽이,
맛있는 먹이로
유인하여 박멸하라!!

정원을 가꾸다보면 보이는 미끌미끌한 것, 꽃시장에서 사온 포트에 붙어 있는 것, 달팽이처럼 생겼는데 등껍질이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민달팽이입니다.

쫄고만하고 어떻게 보면 귀엽기도 한 이 민달팽이는 알고 보면 해충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민달팽이는 고온다습한 6월~9월 사이에 많이 발생합니다. 낮에는 흙 속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활동하는 야행성입니다. 주로 어린묘와 새순의 피해가 크고, 더욱 심할 경우에는 잎을 모두 갉아먹어 그물 모양으로 엽맥만 남게 됩니다. 특히나 번식력이 강해 한 마리당 약 300여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피해가 심한 민달팽이를 박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정원예에서 적당한 방제방법은 맥주와 담배가루를 섞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방법도 간단합니다. 높이가 낮은 그릇에 맥주 50ml정도와 담배 1개피정도의 가루를 섞어두면 밤사이에 그릇 안에 빠져죽는 민달팽이를 제거하면 됩니다.

넓은 재배면적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많은 민달팽이를 제거하기 힘듭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중에 판매하는 개사료+설탕+살충제를 혼합하여 빈 공간에 약 3~5알 정도 뿌려두면 됩니다. 살충제만 살포하면 민달팽이가 흙속으로 숨어버리기 때문에 맛있는 사료와 설탕으로 유인하여 박멸하는 것입니다.



유인되는 민달팽이



박멸된 민달팽이



먹이를 먹고 해충해충 @@

Gardenin Reporter

시원한 나무그늘

나뭇속 흐름을 하면서 증산작용을 하게 된다. 이때 뿌려주는 수분이 주위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 사라지는 기화현상 때문에 나무그늘이 그 어떤 그늘보다 시원하다. 한 여름 도리연의 가로수 그늘 아래는 그늘 밖과의 기온차가 무려 5도에서 8도 이상 차이가 난다.



나무그늘



나무그늘 밑 온도계 (25도)



온도계



You Tube로 여행가는 정원이야기

2011년도에 제작된 총 5편의 이태리 정원 시리즈 동영상중 1편

YouTube site: Monty Don's Italian Gardens :

Part 1 / Rome (<http://www.youtube.com/watch?v=KJfAmOov80>)

정성으로 정원을 일구며 마음으로 정성을 가꾸며 열정으로 정원을 이야기 하다.

로마에 대한 역사와 지역의 정원을 소개하는 58분 분량의 영상에는 정원을 넘어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자연 속에서의 문화와 예술, 작가, 정치적인 힘의 원동력이었던 물의 사용 등 그 장소에 분수가 있어야 하는 이유와 정원이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7세기부터의 로마 역사 속에서 현재까지 정원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호와 질문을 자아내는 이태리 정원.

아름다운 정원은 많지만 2000년 이상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이태리의 Water garden을 통해 역사가 살아있는 정원을 만나보는 기회를 갖을 수 있다.

영국의 순수 정원사 / BBC2 세계정원의 주요 발표자인 Monty Don은 30여년 정원사로서의 일을 BBC 프로그램 및 15권의 저서를 출간하며, 헤로인 중독자에 60이커(24,000 평방미터) Herefordshire smallholding 지역재활 시도 완성하였다. 세계의 80여개 정원(BBC 2, 2008년 1월 27일~3월 30일) 제시하고, BBC의 자연 역사 시리즈 자연 세계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you tube를 통하여 그의 정원 발표자로서의 능력과 정원 지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몬티 돈(Monty Don)의 출판물



- 1990: *The Prickotty Bush*
- 1995: *The Weekend Gardener*
- 1997: *The Sensuous Gardener*
- 1998: *Gardening Mad*
- 2003: *The Complete Gardener*
- 2003: *From the Garden to the Table: Growing, Cooking, and Eating Your Own Food*
- 2004: *The Jewel Garden* (Hodder & Stoughton), with Sarah Don
- 2005: *Gardening From Berryfields*
- 2006: *Fork to Fork*
- 2006: *Growing out of Trouble*
- 2006: *My Roots: A Decade in the Garden*
- 2008: *Around the World in 80 Gardens*
- 2009: *The Ivington Diaries*
- 2010: *My Dream Farm*
- 2011: *Italian Gardens*
- 2013: *The Road to Le Tholonet*

청어

‘숲에서 노는 청년들’

입시준비와 취업준비로 책상 앞에서만 앉아있는 요즘 청년들에게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청년단체를 만나보았다.



5월 어울림숲 프로그램 참가자들

사진/글 양지선
인터뷰이 청어 대표 남수지

Q. “청어”의 의미와 어떤 친구들이 모인 단체인가요?

청어는 ‘청년, 숲과 어울린다’의 약자로, 숲해설, 숲운동, 산림학, 조경학, 어린이문화 등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과 숲을 마음 한가운데 늘 간직하는 청년들이 모인 그룹입니다. 각자의 전문 활동분야와 2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의 다양한 연령대는 기존의 틀에 박힌 숲체험이 아닌 다채로운 색깔의 활동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숲을 몸으로 느끼고, 여럿이 함께 추억을 만드는 것을 통해 아름다움에 감동하여 소중함을 깨달아 그것을 지키고 싶다는 ‘가치’를 외치는 단체입니다.」



참가자들이 숲을 바라보며 자유롭게 그림을 그린다.

Q.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소개해주세요.

『청어의 첫 행사인 『청년 숲을 말하다』(사람책프로젝트)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사람책이란 한사람이 책이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 주는 것인데요. 청어는 1부에서는 도미니카 공화국과 아이티의 숲 이야기를 오벌씩님께서 들려주었고, 2부에서는 음악책으로 최은희님이 오카리나와 우쿨렐레를 연주하여 노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름 울창한 백사실 숲에서의 우쿨렐레와 청년들의 노랫소리는 숲으로 온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고, 청어가 단순한 청년 모임이 아닌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숲에서의 yoga 명상

Q. 올해의 활동 계획을 알려주세요.

『청어는 올해 (사)생명숲과 함께 서대문 안산 초록숲길 시민참여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숲을 좋아하는 청년, 숲을 가보고 싶으나 실패한 청년을 위해 숲명상, 숲 전래놀이, 세밀화 그리기 등 다양한 숲체험을 할 수 있는 ‘청년, 숲과 어울린다’ 프로그램이 5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진행중이며, 방학기간 초등생과 대학생이 멘토-멘티의 유쾌한 관계를 맺고, 숲에서 다양한 생태체험을 통해 사라진 동네 형, 누나, 동생을 숲속에서 찾는 ‘숲에서 찾은 나의 멘토 멘티’ 프로그램이 8월에 진행됩니다. 또한, 9월에는 유아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안산 숲 박람회’가 운영 예정입니다. 청어의 자세한 활동내용은 <http://www.facebook.com/younggreen> 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Q. “청어”가 꿈꾸는 숲과 청년들의 미래는 무엇인가요?

『이 시대를 사는 청년은 자기 삶에 생각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바쁘습니다. 숲에서의 활동은 적어도 우리 청년들에게 생각할 시간이라도 마련해 줄 수 있고, 잃었던 생태감수성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어의 활동을 통해 청년들은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녹색 공간을 찾아다니며 자연을 느끼고 숲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든편서 누구나 즐겁게 놀러 갈 수 있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숲을 꿈꿉니다. 더 나아가 청년의 삶을 가꾸는 경험이 되는 일자리, 놀이 문화를 함께 기획하고 진행하는 창조적인 녹색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청어의 큰 목표입니다.』



8월 프로그램 안내 포스터

숲에서 찾은 나의 멘토 멘티

참가비 "무료"

○ 대상 : 숲 속에서 형, 누나, 동생과 어울리고 싶은 청년, 어린이
 ○ 모집인원 : 초등학교 1, 2학년생 (50명 내외)
 자유롭고 유쾌한 청년 (25명 내외)

○ 일시 : 2014년 8월 8일 (금) 오전 10시 ~ 11시 / 오후 1시~2시 (총2회)
 ○ 프로그램 : 멘토 멘티 찾기 / 우정의 악세사리 / 랜드아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서 / 이메일 3086223@naver.com
 ○ 모이는곳 : 안산공원관리사무소 앞

주관 **청어** 생명의숲

주최 서울특별시 **marker** 생명의숲



산림치유란?

산림의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활동을 말합니다. 특히 그 동안 '산림욕'으로 대표되던 산림이 지닌 건강증진 효과가 인체에 미치는 생리적·심리적 효과를 과학적·의학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산림을 심신의 치유에 활용하는 시도로써 '산림욕'보다 한 단계 진보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림치유는 사회 일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난치병이나 불치병 치료의 장소로서의 산림활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도시화된 생활 속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산림으로부터 심신의 쾌적함을 느끼고 이를 통해 면역력이 향상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질병이 예방되어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림치유의 인자 및 효과

그 동안 산림욕은 산림이 지닌 건강증진 및2009-11-28 질병예방기능의 상징으로서, 피톤치드와 함께 산림치유효과를 대표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산림은 피톤치드 외에 산림치유의 원인이 되는 많은 산림의 환경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의 환경요소에는 향기(테르펜류), 경관, 소리, 음이온, 먹거리, 습도, 광선 등이 있습니다.

산림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치유의 숲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산림의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을 말합니다. 산림욕장, 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의 숲, 산림공원 등도 건전한 휴양과 레저 활동을 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치유의 숲'과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지만, '치유의 숲'은 치유프로그램 등을 통해 숲을 자연치유의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치유의 숲

청태산 (033-738-6271), 산음자연휴양림 (031-774-8133)



산림청 주관
산림치유지도사
교육원

산림치유지도사 교육은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1급, 2급) : 02-2164-6586(경기 부천)
- 한림성심대학교 평생교육원(2급) : 033-240-9490(강원 춘천)
-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2급) : 061-750-5076(전남 순천)
- 광주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2급) : 062-958-7572(광주광역시)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1급) : 062-530-3873(광주광역시)
-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2급) : 043-261-2076(충북 청주)
- 동양대학교 평생교육원(2급) : 054-630-1036(경북 영주)
- 대구한의대학교 평생교육원(1급, 2급) : 053-819-1234(경북 경산)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1급, 2급) : 063-270-3911(전북 전주)

산림치유지도사제에 대한 더욱 많은 정보

www.forest.go.kr (산림청) - www.forestkid.co.kr (산림치유)

창의력, 두뇌발달 쑥쑥! 숲에서 가져 오는 오감교육 "숲"과 자연의 순리와 질서 배워 나가며, 숲을 즐기는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의 숲 유치원의 역할 :

아이들이 숲에서 뛰놀며 오감을 통해 자연만물과 교감하는 체험 중심의 활동을 하면서 일정시간 생활 하는 것.

- 숲 유치원교육: 1일 3~4시간 숲 활동필수 혹은 주 2~3일 정해진 요일 숲 활동-정기형이나 주 2일 이상 정례적으로 숲 활동할 때 숲 유치원이라 칭함
- 숲 유치원은 숲(자연)이 교실이고, 교과서이며, 교사이며 놀이터이고 배움터, 살터이다.
- 숲 유치원 현황
 숲 유치원은 전국- 2~30개 기관
 1주일: 1~3회 숲교육 프로그램 진행(유아교육기관 500~600여개 기관),
 산림청 산하 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장소- 100여 개소
- 숲이 사람에게 주는 효능과 숲 교육의 장점 : 숲은 자연결핍증후군을 완화와 해소해주고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녹색병원, 피톤치드, 음이온의 효과로 면역력 강화, 긴장과 스트레스 완화와 해소로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곳이기때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가장 좋은 장소이고 자아 존중감 향상하며 겸손과 성취감을 주는 최고의 교육장소로서 교과서이자 교실, 교사가 되는 장점이 있다.
- 숲 유치원의 역사
 1954년 덴마크에서 시작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독일, 스위스 등 유럽은 물론 미국과 일본에도 확산 되어있다. 독일에서는 숲 유치원을 법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며, 우리나라 숲 유치원은 2008년 북부 산림청에서 처음으로 유럽형 숲 유치원을 소개로 시작.

2010년 산림청 산하 사단법인 숲 유치원협회 창립

(사) 한국 숲 유치원 협회(Korea Association of Frost Kindergarten www.forestkid.co.kr (tel: 02 786.2843)



밀*요..뽕*요? π.π

7월호에 이은 잡초관리 2
가든인 구급대에서 잡초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알려 드립니다.



문제의 잡초 녀석들 1,2,3



경계석에 있는 잡초(모종삽이용)
주루룩 경계석에 나있는 잡초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인 경우



돌틈, 경계석 사이
(어린이모종삽사용)
돌틈과 같은 사이에 난 잡초를 제거
할때는 어린이 모종삽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최고의 정원도구는 손
여리고 한두개 있는 잡초는
손으로 직접 제거한다



Summer Sale

크로스백 가든도구백 4종 세트

여름특가 8월 한정 10,000원

가든
조아



꽃백합 절찬리 판매중!

전화주문/택배 가능합니다. 서둘러 주문 주세요^^
구입문의 031)34-7990 / www.gardenjoa.com

2014년 새로운 정원을 가꾸어 보세요.

관목사이 또는 군식으로 식재하면 매우 좋습니다.

특히 관목사이에 혼성으로 식재하면 효과가 두배!!



여러분의 정원에 색상과 향기를 다양하게 하고,
정원 구조와 생육환경도 풍성하게 가꿀 수 있습니다.

GardenJoa

가든조아

August 2014 Gardenin - 95

Welcome Garden joa



입구에서 놀라다

경기도 이런 가든조아 매장이 있는 단지에 들어서는 순간 한 여름의 더위보다 먼저 온실의 너울거리는 찬사위와 알록달록 화려한 꽃들이 반겨주었다.

고양, 일산의 화훼단지지의 모습만을 주구장창 보왔던 나에게 가든조아와 농장의 모습은 그저 놀라움의 극일 뿐이었다. TV나 책에서나 보던 대단위 농업단지라는 단어가 내 머리를 확~하고 지나가는 기분이 들었다.

정신을 차리고 가든조아 입구를 보니 역시 외국의 Farm과 같은(우리나라 식으로 축사, 농장이라고 하면 조금 표현이 예뻐지 않아서 Farm이라 써보았다) 입구에 하얗고 빨간꽃들이 판대하러 화분에 꽂아 놓은 것이 아닌 화단에 심어놓은 꽃들이 있었다.



아기자기 오밀조밀

눈에 비로 보였던 것은 화분과 아기자기한 소품들. 베란다에, 작은 텃밭에 놓으면 오밀조밀 귀여울 것들은 화분들과 초보종 왕초보를 위한 가드닝 도구들. 그리고.. 정원테이블 야외정원에 나뭇잎 기웃 기웃 거리며 앉아서 보고 만져도 보고 이런 것이 예뻐다 저런 것이 예뻐다라고 중얼 거려보았다.

정원에 저런 큰 파라솔을 펼쳐놓고 테이블에 앉아 주스를 마시며 친구와 웃으며 이야기하는 상상을 하는... 그런 상상을 했었던만....



온실을 구경하다

어떻게 간 곳인데 구경 못하냐...형형색색 예쁜 꽃 모종들이 열을 맞추어 서 있었다. 긴 하우스 안을 다 채우고도 남을 저 모종이 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신기한 모종이 한두개가 아니다. 이런 꽃도 있었구나.. 어찌~ 이렇게? 놀라다 보니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났다.

사실 가든조아를 찾아 가는 길이 그리 쉽지는 않았다. 큰 대로변도 아니었고, 서울과 가까운 일산쪽도 아니었다. 하지만 다녀온 후의 만족도는 거리가 먼 동수단과 상판역이 초고였다고 생각한다. 컨텍스를 다내고 아무리 일산에 화원을 다녀봐도 이런 경험은 할수 없을 것이니까. 그저 가깝고 눈에 좋지만 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가는 동안의 기대감, 도착 했을때의 놀람, 처음 보는 모종들과 꽃들 하루가 놀람의 연속이었다.



www.gardenjo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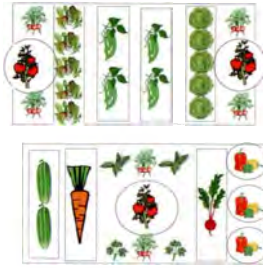
경기도 이천시 모기면 송곡리 696

031)634-0326



솔개그늘 유봉수 대표

유봉수의 Q&A



Q1 농약을 살포할 때 주의 사항이 있는데 자세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 작물에 사용하는 농약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되는데 병뚜껑이 분홍색인 살균제, 파란색인 살충제, 노란색인 제초제, 청색인 생장조정제입니다.

살균제는 병균을 예방하기 위한 약이고 살충제는 벌레를 죽이거나 못 오게 만드는 약이며 제초제는 잡초를 못 나오게 하거나 나온 것을 죽이는 약이며, 생장조정제는 뿌리가 잘내리도록 한다든가 수확기를 앞당기거나, 식물의 키가 크지 않게 한다든가 저장력을 높이기 위해, 기타 특수목적 위해 살포하는 약제를 말합니다.

제초제의 주성분은 단백질 분해의 억제 또는 응고시키는 물질이 들어있어 인체에 매우 위험합니다. 모든 농약에는 반드시 사용설명서가 붙어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하면 약제를 살포할 때는 가급적 마스크, 보안경, 고무장갑, 방제복을 착용하여 약액이 피부에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고,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을 때 살포하거나 중독 살포시 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내용이며, 한 번에 여러 가지 농약을 섞어 뿌리거나 오랜 시간 약을 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중독 증상이 발생 했을시 해독제에 의지하지 말고 빠른 시간안에 의사 처방을 받아 치료하라는 것입니다. 농약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 제배방법입니다.

Q2 올해는 김장용 배추와 무를 직접 심어 보고 싶는데 좋은 모종을 고르는 방법과 심는 요령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답 무나 갓, 당근은 밭에 직접 종자를 뿌려야 하지만 배추는 파종 상에 육묘를 해서 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배추종자를 뿌리는 시기가 고온기이고 비가 자주 내리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플러그 육묘의 특성은 트레이에서 모종을 기르기 때문에 온

만 시 다루기 쉽고, 아주 심기가 편해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묘가 균일하며 육묘 중 옮겨심기를 하지 않아 뿌리가 상처를 받지 않아 뿌리혹병같은 병이 잘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배추묘는 반드시 본엽이 4~6매 나온 것을 고르는 것이 좋으며 잎이 위로 선 것 보다는 옆으로 누워 뽕뽕한 것이 좋은 묘입니다. 키가 크거나 잎이 어리면 아주 심기(정식, 더 이상 옮기지 않고 재배할 때까지 한자리에서 키움) 후 강한 햇볕에 말라 죽기 쉽고 강우에 녹아버리게 됩니다. 심는 요령은 비닐 멀칭 후 플러그 깊이만큼 구멍이를 판 다음 모종 포트를 넣은 후 물을 줍니다. 그 때 어분 공간으로 흙을 누르지 않고 밀어주듯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주의 할 점은 포트가 깨지도록 흙을 눌러 준 다거나 포트가 지면보다 깊게 심게 되면 활착이 늦어지므로 포트의 10%가 땅 위로 올라오도록 심어야 합니다.

Q3 배추를 일찍 심었더니 크기도 전에 벌레가 있을 다 갑아먹고 있어요. 무슨 벌레인가요? 방제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 벌레가 배추잎을 갉아 먹는다면 아마도 배추흰나비, 배추 순나방, 아니면 배추 줄나방일 것입니다. 피해증상을 구분해 보면 배추 줄나방은 엽육(잎의 연한 세포조직, 엽맥을 제외한 잎의 나머지)만 갉아먹어 피해 잎이 그물망처럼 보이며, 배추 순나방은 이름 그대로 새로 나오는 순(새잎)만 갉아먹으며, 배추 흰나비는 전체적으로 잎을 갉아먹는 특성이 있습니다. 피해 증상을 보고 방제를 하게 되는데 배추 흰나비나 순나방은 1~2회 약제 살포로 방제가 가능하지만 줄나방은 한 가지 약제성분으로는 방제가 어려우므로 성분이



다른 농약제품을 구입해 약제를 바꾸어 가면서 살포해야 방제가 가능합니다.

배추의 어린잎은 약제 살포시 농도가 높으면 피해를 받게 되므로 반드시 적정농도를 희석하여 살포해 주시고 온도가 높으면 피해를 입게 되므로 아침, 저녁으로 살포해야 합니다.

Q4 김장용으로 알타리 무를 재배하고 싶는데 언제가 파종 적기인가요?

답 알타리 무는 파종 후 35~50일이면 수확이 가능하므로 김장할 날짜를 역산하여 파종 하시기 바랍니다. 알타리 무 품종은 일찍 되는 품종과 늦게 되는 품종이 있는데 판매용은 일찍되는 품종을 심어도 되지만 김장용은 반드시 만생종을 심어야 모양도 예쁘고 맛도 좋습니다. 또한 늦게 수확해도 뿌리가 단단하며, 잎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00평당 2의 종자가 필요하며 토양 수분이 적다면 파종후 4~5일이면 발아가 됩니다. 김장용으로 파종하려면 중부지방에서는 8월 하순~9월 중·하순이 적기입니다. 가을 알타리 무는 토양수분도 적당하고 온도가 알맞아 양질의 알타리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Q5 지난 해 포도 열매가 터져서 제대로 수확을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포도 열매가 터지지 않나요?

답 포도의 열과 피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인은 성숙기에 나무가 수분을 과다하게 흡수해서 과실내에 팽압이 상승하여 과피의 약한 부분이 갈라지거나 터지는 것입니다. 열매를 너무 많이 달았거나 알이 서로 커지게 되면 열매끼리 눌러서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가림을 하거나 토양에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피복 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튼튼하게 키워 과실의 표피를 강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무의 세력이 너무 강하거나 과다하게 결실되면 속기가 늦어져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므로 수세를 알맞게 유지해 주시고 신초를 적당히 솎아주어 수관 내부에 통풍과 햇빛이 잘 들어가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Q6 벌에 쏘였거나, 뱀에 물렸을 때 간단한 응급조치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 1. 벌에 쏘였을 때 응급조치 요령입니다.

벌은 위험을 느끼지 않으면 상대를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에 갈 때는 노랑, 빨강, 분홍 등 화려하거나 색상이 밝은 옷을 피해야 하며 향수, 스프레이, 화장 등 강한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을 피해야 합니다. 벌이 술을 마신 사람이거나 땅내가 심하게 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벌떼의 공격을 받았을 때는 공격을 피해 멀리 달아나기가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주변보다 낮은 곳을 찾아 머리부위는 땅 쪽으로 향하고 엉덩이는 하늘로 올리는 형태를 취하여 최대한 자세를 낮춰야 합니다. 위험을 알린다고 옷이나 수건을 흔들거나 소리를 지르게 되면 벌을 자극시켜 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벌조나 성묘를 갈 때는 미리 묘소를 찾아 묘소 주변을 긴 막대기를 이용하여 벌집이 어디에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시고 만약 벌집이 있다면 해가 진 후 벌집의 출입구를 향해 스프레이 살충제를 1~2분정도 뿌려주면 4~5분후면 벌들이 다 죽게 되므로 다음날 안전하게 벌초를 할 수 있습니다.

벌에 쏘이면 당황하지 말고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눕힌 후 쏘인 부위를 주빈등롱증이나 카드의 옆면을 이용해 살살 밀어 보시면 박힌 벌침이 아마도 보일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편뿔을 이용해 침을 빼낸 후 깨끗한 물이나 소금물, 식초물 등으로 씻어주면 됩니다. 급하다고 손으로 벌침을 뽑으면 독량이 흘러져 벌독이 몸 안으로 더욱 빨리 이동되어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도 부었거나 통증이 심하면 찬물수건을 대주거나 얼음으로 찜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벌에 쏘인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기도가 심하게 붓고 기침뿐만 아니라 호흡곤란이 오면 순간적으로 쇼크가 올 수 있으므로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2. 뱀에 물렸을 경우 대처방법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독뱀은 살모사, 까치살모사, 불독사 등 3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독사는 머리가 삼각형에 독이 이빨이 두 개이고 개구리나 들쥐, 토끼 등 야생동물을 잡아 먹고 삽니다. 독사에 물리면 심한 통증이 느껴지고 물린 자리가 부어오르며 피부색깔이 짙은 자주빛으로 변하게 되는데 독이 혈액 안으로 이동하면 제거하기 어려우므로 심장 쪽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바로 물린 상처 10~20cm 윗부분을 끈이나 천으로 꽉꽉 묶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다른 상처부위가 밑을 향하도록 합니다. 물린 부위는 빨리 깨끗한 물이나 소금물로 소독 시켜놓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시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물린 부위를 소독한다고 알코올을 바르거나 독을 빼낸다고 절개하여 입으로 빨아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

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발생시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나 소방 방재청 119를 이용하면 됩니다.

Q7 유기물을 밭에 넣으면 좋다고 하는데 유기물이 무엇인가요?

유기물이란 말 그대로 부숙 되었을 때(퇴비가 되었을 때) 잔재 즉 찌꺼기가 남는 물질을 말합니다. 산야초나 짚, 가축분 등은 섬유질이나 셀룰로오스 같은 분해되기 어려운 성분을 갖고 있어 미생물이나 토양 동물(지렁이, 기타)에 의하여 분해가 되어 토양과 유사한 물질로 변화되었더라도 반드시 건물 중의 2~3%가 잔재(부식물)로 남게 되는데 이를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콩비지나 껍박, 쌀겨, 음식 찌꺼기 등은 부숙하게 되면 전혀 찌꺼기가 남지 않으므로 유기물이 아니라 유기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재물이 부식은 양분 및 수분을 흡수 저장하였다가 작물에 서서히 공급해 줄 뿐 아니라 토양을 부드럽게 해주며 미생물의 활동을 도우며 환층력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암갈색 및 흑갈색을 띄어 토양의 온도를 높여주어 미생물의 활동을 돕기도 합니다.

농경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기물은 대부분 가축분으로 논에는 다소 덜 부숙된 것을 넣어도 피해가 적지만, 밭에는 완전하게 부숙된 것을 넣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퇴비란 유기물에 들어있는 탄소와 질소의 비율 맞추어 적당한 수분을 첨가하여 썩아두면 여러 가지의 미생물이 번식하여 부숙하게 되는데 처음엔 높은 온도가 올라가서 부식되다가 서서히 내려가 나중에는 완전히 부식되어 퇴비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Q8 밭에 서리태 콩을 심었는데 주변사람들이 순을 질러줘야 콩이 잘 달린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맞는 말입니다. 순지르기를 하는 목적은 콩의 분지(원래의 줄기에서 갈라져나감) 및 마디수를 빨리 발생시켜 꼬투리수를 늘리기 위함입니다. 일찍 심어 키가 컸거나 밀식되어 포기로서로 엉키게 되면 통화량이 감소되어 수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순지르는 시기는 원줄기가 5~7매일 때가 적기입니다. 순지르기 한 후 복주기를 해주면 더 많은 꼬투리가 생기며 도복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Q9 복숭아 묘목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접목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언제며 무슨 접으로 해야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언제며 무슨 접으로 해야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복숭아, 자두, 살구는 핵과류로 보통 T자형 눈접(아접)이나 삭아접으로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잎눈이 형성되는 7월 하순부터 할 수 있으나 보통 잎눈이 완성된 8월 중하순경이 적기입니다. 일찍하게 되면 접붙인 잎눈이 발아하여 겨울에 동해를 받게 됩니다.



T자형 눈접(아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접눈은 눈의 위쪽 1cm 되는 곳에 꺾질만 칼집을 갖고 눈의 아래쪽 1.5cm 정도 되는 곳에서 목질부가 약간 붉을 정도로 칼을 넣어 떼어냅니다. 대목의 경우에는 지면 5~6cm 되는 곳에 길이 2.5cm 정도로 T자형으로 칼집을 갖고 대목 꺾질을 벌려 접눈을 기워넣은 다음 비닐테이프를 묶어주면 됩니다. 접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접목 7~10일 후 접목한 잎자루를 아래로 제치면 잎줄기가 쉽게 떨어지면 잘붙은 것이고 말라 비틀어 졌으면 잘 안된 것입니다.



솔개그늘을 소개합니다.

Q&A에서 매월 전문적인 지식으로 답변해주시는 유봉수 소장님의 솔개그늘을 소개하려 한다.

두 물줄기가 하나로 합수되는 곳이라는 뜻의 여울목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시는 유봉수 소장님은 하늘을 나는 솔개의 그림자처럼 작게 지는 그늘과 같이 누구나 찾아와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셨다. 40년 동안 농업기술 센터에서 농민들의 교육현장지도 경험 지식을 바탕으로 귀농상담, 농업상담, 지역특산물, 각종 농자재, 유기농산물, 도자기구입(명장), 관내 관광지지를 알선, 약용작물을 이용한 요리를 맛보고 만들어갈수 있는 체험장도 운영하고 있다.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126-1번지
연락처 : 010-5289-2568, 010-5274-2569



솔개그늘 대표 유봉수



GARDEN & MOVIE

이달의 영화 속 정원 테마

Arboretum

수목원(樹木園)

[관찰이나 연구의 목적으로 여러 가지 나무를 수집하여 재배하는 시설, '나무 동산'으로 순화]라고 사전적 의미가 정의 되어 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네 산천은 모두 수목으로 덮여 있었고 모두 수목원이었다. 봄이면 꽃이 피었고 새가 울부짖었으며 바람따라 향기가 날아 코를 간지럽혔다. 안타깝게도 2000년대가 되면서 우리는 이제 수목원에 가야지만 제대로 된 나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나마 한 두군데 밖에는 없던 다양하게 그리고 많이 생겨서 조금은 위안이 되고 있다.



편지 (1997) 박신양 / 최진실

편지하면 수목원이 생각나고 수목원하면 편지가 생각나는... 공식이 되어버린 영화. 내가 본 가장 작은 교회가 있는 수목원이고 또 그 교회를 나는 가장 좋아한다. 매년 아무때나 한번씩 혼자서 좋고 둘도 좋고 한번은 가게 되는 그곳이 바로 아침고요 수목원이다.



Synopsis

국문과 대학원생 정인은 기차 시간에 서두르다 그만 지갑을 떨어뜨린다. 환유는 택시를 타고 기차를 쫓는 추격전 끝에 지갑의 주인을 만나게되고 이들은 이렇게 첫인사를 한다. 무엇인가 양자택일의 기로에 섰다면 늘 동전을 던져 결정하는 환유는 정인에게 한가지 제안을 한다. 동전이 앞면이 나오면 정인과 결혼하는 것이고 뒷면이 나오면 예정대로 유학을 떠나겠다고 정인이 뭐라 대답할 틈도 없이 던져지는 동전. 펼쳐보면 앞면이다.

자신의 사랑을 최고의 결박으로 만들고 싶어했던 환유와 그 사랑을 잘 받아안을 줄 알았던 정인은 사랑을 건너는 낙타와 상인처럼 언제나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그런 행복이 환유에게는 어물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 어쩌면 그 남자의 사랑이 너무 완벽하고 행복해보이는데서 불행이 시작된걸까? 환유는 떠나가고 정인은 혼자 남겨진다. 온통 기대왔던 어깨를 잃어버린 정인은 더 이상 살아갈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하고 떠나버린 그 사람처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 그녀앞에 한통의 편지가 도착하는데.



수목원 중앙에 있는 넓은 잔디밭. 영화 속에서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나는 장소이다.



수목원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정자와 연못이 있다. 그리고 음료와 다과를 할수 있는 작은 카페도 있다.



분명 이름을 보았었는데. 어느 봄날.. 수목원에서.



영화보다 이제는 더 유명한 작은 이 교회는 너무 작아서 늘 만원이다.



수목원 곳곳에 숨어있는 멋진 나무들. 계절에 맞추어 축제와 행사를 하는 수목원이다

GARDEN & MOVIE

이달의 영화 속 정원 테마

Park & Pond

공원과 연못, 그리고 정자

도심속 공원이나 수목원, 식물원등 인공적으로 조성된 곳을 보면 연못과 정자를 배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쉽게는 서울의 여의도, 선유도 공원, 그리고 옛 궁궐의 비원에도 인공적 연못과 정자가 조성되어 있다. 영화속에서 이런 장면들은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그 중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들의 만남의 장소로 쓰인 경우가 있어서 소개 하고자 한다.

- 일본 애니메이션은 워낙 비를 표현 잘하기로 유명하다. 더군다나 이 작품은 정원과 비가 결합되어 더 맛있는 애니이기도 하다.



언어의 정원

言の葉の庭, The Garden of Words, 2013
감독 신카이 마코토

도쿄의 신주쿠 공원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으로 16세의 소년과 28세의 고전문학선생의 만남의 이야기. 우리나라의 상식으로 봤을때는 고1의 타카오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혼자 살고 공부보다는 구두 디자인을 하는 것이 의아스럽고 뭔가 아웃사이더 같겠지만 일본으로 봤을때는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장인이라는 것에 많은 정수를 주는 것이 이유인지도 모르고 또 입사가 조금 다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수학공식, 영어단어 좀 더 모른다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인지도 모른다. 우물안에 개구리의 하늘은 동그랗다. 하지만 우물밖 개구리의 하늘은... 그보다 넓다.

애니속 정원을 보면서 그리고 그 둘의 소중한 이야기를 보면서 그 이야기가 애니로 나올수 있다는 것이 부러움과는 생각을 하면서...



애니의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같은 장소로 나오는 곳은 신주쿠 공원 정자. 그리고 연못. 시간은 일본의 초유 기간인 6월.



비가 내리는 공원의 장면



공원 전체를 보여주는 이 장면은 두개의 연못과 정자등 공원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애니메이션이라고는 하지만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다.



정자의 한켠에서 바라보는 공원의 모습은 어쩌면 둘의 심리 묘사라고도 생각할수 있을 것 같다.



수면에 비친 나뭇가지

BOOK & FESTIVAL



그린섬, 식물을 키우는 손

글 주례민 / 위고 | 2014.07.10

그린섬, 초록물이 든 손가락

그린섬(Green Thumb)은 파랗게 풀물이 든 엄지손가락을 말한다. 계속되는 정원일로 풀물이 들고 또 들어 아예 초록색으로 변한 손가락. 동시에 가드닝에 재능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린섬이라는 단어에는 정원일에 들인 시간이 커져서 녹아 있다. 저자는 영국 서튼플레이스 가든에서 정원사로 일할 당시 헤드 가드너의 초록 엄지를 보며 자신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린섬이 되겠노라 다짐했다고 한다. 이제 그녀는 초록물이 든 데다가 점점 마디가 굵어지는 자신의 손가락을 들여다보며 그린섬이란 식물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 자체라고 믿는다. 화분에 물을 주는 일에서 화단의 잡초를 뽑는 일까지 식물을 가꾸고 보살피는 모든 일이 정원일이라고 믿는 저자는 정원이 없어도 얼마든지 정원의 즐거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한다. 배란다 텃밭, 주말농장, 게릴라 가드닝부터 실내에서 화분과 수반, 테라리움 등을 가꾸는 스몰 가드닝까지 식물을 가까이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드닝의 즐거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정원은 참 이상한 곳이다. 알아차리는 순간 많은 것이 변한다. 모르고 지나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알아채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많은 것이 들어 있는 것이 보인다. 하지만 바쁜 일상에 치여 지나치면 하루 이틀 사이로 놓치고 만다. 눈여겨보지 않으면 결코 눈에 들어오지 않기에 자연은 기쁨을 내주면서 그 대가로 시간을 요구한다. 덕분에 나 자신을 자연에, 품에 투영하면서 오롯이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진다. 그렇다면 정원은 알아차림을 위해 우리 곁에 두는 자연인 셈이다. **[봄을 알리는 숲의 요정들]에서**

어떤 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깨가 무거워지는 일이다. 하지만 마당에 심은 감나무, 텃밭에서 키우는 치커리에 대한 책임은 쉽게 기쁨과 즐거움, 행복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정원을 만들 때 몸속 깊이 숨어 있던 '가드닝 본능'을 일깨우는 것이 가든 디자이너로서의 나의 욕심이자 의뢰자에 대한 책무라 생각한다. **[흙, 꽃, 나무와 친해지는 기본]에서** --- 본문 중에서

정원일은 몸을 움직이는 일이다. 한동안 몸을 쓰지 않았다면 오랜만의 정원일로 잠자고 있던 근육이 풀어지면서 잠시 활력을 느낀다. 하지만 일이 오래 이어지면 어깨가 뭉치고 팔이 쭈시고 허리가 빠근해진다. 몸을 쓰는 일은 힘이 아니라 요령이라고들 하지만 체력적으로 고단했던 어느 여름에는 두어 달 경력 마사지로 근육을 풀어가며 일정을 소화해야만 했다. 하지만 정원에서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고된 일인데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것이, 마치 모터를 달고 있는 기분이라까. 나뿐만 아니라 가드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하는 이야기다. **[서튼플레이스의 3주 차 정원사]에서**

식물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어느 순간 나 자신이 들여다보이기 시작한다. 내가 좋아하는 꽃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정원을 좋아하는지가 전부가 아니다. 나는 어떤 순간을 좋아하고, 어떤 스타일로 일하고,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한지가 서서히 뚜렷해진다. 꽃과 식물이 있는 자연은 나를 투영하는 거울이 되고 나는 정원 속에서 몰랐던 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정원은 발견하는 아름다운 여행이 된다. **[발견하는 아름다운 여행]에서**

BOOK & FESTIVAL



소박한 밥상 Simple food for the good life

글 헬렌 니어링 / 디자인하우스 | 2001. 09. 05

지난 호에 이은 소박한 밥상에 대한 리뷰 연재

Review By 이정환 on February 11, 2004

41. 조리를 해야 맛이 더 좋을까. 습관과 관습에 물든 미각에게만 그렇게 느껴질 것이다. 조리한 당근이 그냥 막 깎은 당근보다 맛이 더 좋을까. 인공 감미료를 넣거나 부자연스러운 양념을 할 때만 그럴 것이다. 그냥 사과에 소스를 뿌려 먹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사과를 익히면 그때는 껍피나 설탕, 메이플 시럽, 후추 등을 넣어 맛을 낸다.

43. 튀기기보다는 끓이는 편이 좋다. 끓이기보다는 굽기가 낫고 그보다는 찌기가 더 낫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날것으로 먹는 것이다.

45. 정말이지 요리하는 게 좋다. 손에 가지나 당근, 양파 같은 야채를 들고 있는 게 좋다. 야채를 자를 때 나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칼질하는 게 좋다. 겉과 속의 차이를 보고 야채 안쪽의 아름다운 문양을 보고 가지에 든 씨앗과 양파껍질, 당근 안쪽의 오렌지빛 별꽃 문

양을 보는 게 좋다. 음식을 짓고 체질하고 무게를 재고 씻는 게 좋다. 싱싱한 재료를 한데 섞고 그것들이 전혀 새로운 음식으로 변하는 광경을 지켜보는 게 좋다. 크레센트 드레건웨건, '공동체의 요리책' 가운데.

53. 자연은 썩은 동물의 시체가 아닌 풍부한 영양을 주는 먹을거리를 충분히 인간에게 제공한다. 썩고 있는 동물의 시체를 먹는 것은 정결한 사람이라면 혐오할만한 불쾌한 식사법이다.

54. 채식인(vegetarian)이라는 말은 '온전한, 건강한, 싱싱한, 살아있는'이라는 뜻의 라틴어 '베게투스(vegetus)'에서 왔다.

55. 콩과 토마토, 쌀, 올리브, 견과와 빵이 있는데 왜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의 살점을 먹으려고 할까. 꿀과 바나나, 배, 오렌지, 옥수수, 무우가 있는데 왜 시체의 살점을 찢어야 하나.

58. 과일과 야채를 먹는 것이 인간의 해부학적 구조에 더 일치한다. 인간이 분비하는 소화액은 음식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육식동물은 인간보다 10배는 더 강한 염산을 분비하고 장이 아주 짧아서 고기를 빨리 소화시킨다. 인간의 소화장기는 육식동물보다 3배나 길고 육식을 하면 2~3일간 음식을 장에 담고 변을 만든다.

59. 분명 인간은 육식을 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59. 2차 세계대전 중 덴마크는 긴급배급을 시행하면서 1년간 고기를 배급하지 않았다. 그해 덴마크는 세계 최저 사망률을 기록했고 발병율도 눈에 띄게 낮아졌다. 하지만 이듬해 다시 고기를 먹게 되자 사망률과 발병률은 전쟁 전으로 돌아갔다.

61. 바나나에는 모유보다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다. 야채는 평균 3%, 견과류는 15%, 씨앗류는 20%의 단백질을 함유한다. 이것은 고기에 든 아미노산과 똑같다.

61. 부패한 고기보다는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먹는 쪽이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더 깨끗하다.

62. 도살된 가축이 얼마나 많은 질병을 앓는지 육류검사관은 안다. 연회에서 야채요리만 먹는 사람이 있었다. "선생님께서도 채식주의자이신가요?" 그는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는 육류 검사관입니다."

62. 인구 1인에게 필요한 먹을거리 생산에 1에이커가 쓰인다고 한다. 그런데 육식을 하는 사람은 그들이 먹을 가축을 먹이려고 거의 2에이커를 쓴다. 곡물과 콩 따위의 사료를 가축에게 주기보다는 비옥한 땅에서 나는 작물을 인간이 직접 먹는 편이 생태학적으로도 경제학적으로도 합당하다. 1에이커의 땅에 콩을 심으면 43파운드의 단백질이 생산되고 이 단백질은 고기에 든 단백질과 똑같으면서 더 싸고 지방이 적고 질병을 일으킬 확률이 낮다.

63. 강낭콩이나 완두콩, 대두를 1에이커의 땅에 경작하면 각각 한사람이 1116일, 1785일, 2224일 먹을 양을 수확할 수 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경우는 각각 77일, 129일, 185일 먹을 양이 생산된다.

BOOK & FESTIVAL

63. 정육점에 고기조각이나 덩어리가 걸린 혐오스러운 광경이나 슈퍼마켓에 비닐 포장한 고기가 흉하게 진열된 것을 볼 때 지각있고 예술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충격을 받을 것이다.
64. 나는 고기를 거의 먹지 않는다. 고기의 단점 때문이 아니라 내 상상력에 고기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월든' 가운데.
66. 인간이 하루에 죽이는 소의 수는 지구의 모든 육식동물이 100년동안 잡아먹는 동물의 수보다 많다.
68. 야생에서 대개의 조류는 1년에 4~5개의 알을 낳는다. 양계장에서 우리는 수백개의 알을 낳도록 강요한다.
75. 언젠가 동물 살해를 인간 살해와 똑같이 보는 때가 올 것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78. 독성에 찌든 이 세상에서 안전한 식습관이란 바로 부패하지 않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다. 썩거나 부패하는 것만 먹으라. 그러나 썩기 전에 먹으라.
79. 우리 문명을 파괴하는 네가치 요소는 정제된 설탕과 정제된 밀가루, 경화유, 가솔린 매연이다. 닥터 칼 - '기초건강지식'
84. 우리는 더 간단하고 건강에 좋고 쉬운 방식으로 먹도록 노력하자. 저장된 썩은 것을 먹느냐 밭에서 갓 따온 싱싱한 푸성귀를 먹느냐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다. 내게는 천연상태에 가장 가까운 음식이 최고의 음식이다.
106. 훌륭한 요리의 기본 원칙은 아래와 같다. 가장 품질이 뛰어나고 신선한 재료를 준비할 것. 될 수 있는대로 간단하게 준비할 것. 식거나 감이 빠지지 않도록 음식을 내기 직전에 조리할 것. 세부사항으로 야채의 껍질이 특별히 질기지 않다면 벗기는 것보다는 껍질째 깨끗이 씻는다. 끓이기보다는 굽거나 찐다. 튀기기 보다는 재빨리 끓여낸다. 스팀을 하거나 볶을 때는 기름을 흥건히 두르고 튀긴듯이 조리하지 말고 소량의 물이나 기름을 두르고 살짝 볶는다. 큼직하게 썰기보다는 잘게 자르거나 채를 친다. 버터나 양념은 가열할 때 넣지 말고 식탁에서 먹을 때 넣는다. 이런 사항이 음식을 만들면서 배우게 되는 내용이다.
113. 육체는 수면시간을 이용해 진날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므로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음식을 가득 채우지 않아도 된다. 인체기관 특히 위의 경우 아침식사를 하지 않으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정오까지 약 16시간 동안 휴식하게 된다. 우리의 이론은 이렇다. 음식은 덜 먹을수록 좋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양을 먹는만 그렇다는 이야기다.
116. 우리는 소로우의 가장 좋은 아침식사는 아침공기와 긴 산책이라는 말에 동의한다. 그러나 아침식사가 꼭 필요한 이들은 선량하고 정직하며 건강하고 허기진 아침식사를 하기 바란다.
152. 샐러드는 우리가 먹는 가장 생기있는 야채다. 녹색식물에 든 엽록소는 몸에 가장 큰 활력을 주고 태양의 힘을 인간의 내장에 전달해준다. 그것은 식물의 푸른 생명의 피다. 그것은 힘과 에너지를 준다. 하루에 사과를 한개씩 먹는다면 의사가 필요없다고 한다. 샐러드도 마찬가지다. 사과와 샐러드는 모두 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힘을 갖고 있다.
153. 스코트와 나는 생야채를 먹는 것을 식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다. 샐러드가 있어야 저녁식사가 완성된다. 흔히 다른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샐러드를 조금 먹는 것으로 끝내지만, 우리는 푸른잎 채소나 과일, 야채를 큰 그릇에 담아먹는 것으로 식사를 시작한다.
154. 씨앗에는 장래에 식물이 될 생명이 담겨 있다. 식물로 피어날 힘이 집중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짙은 피운 씨앗에 든 풍부한 생명력을 먹는 것이야말로 비타민과 미네랄, 단백질질을 섭취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이다.
174. 비타민은 껍질 바로 아래 있다. 가능하면 통째로 조리하는 게 좋다. 굵게 썰기 보다 얇게 저미는게 야채가 빨리 고루 익는다. 야채는 물속에 푹 담그면 안된다. 물에 잔뜩 넣고 오래 삶아서 물렁하고 흐물흐물해진 야채보다 맛있는 음식이 또 있을까. 야채를 조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하지만 야채가 신선하고 활기 있어야 된다는 점은 분명히 알자.
181. 나는 당근은 익혀먹지 않는다. 날것으로 먹는게 좋다. 길쭉하게 자르거나 토막을 내거나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좋다.
198. 양념을 많이 진하게 해야 먹을만하게 되는 음식이라면 아예 먹지 않는게 좋다. 조리하면서 죽는 것에 생기를 되살리기 위해 첨가하는 것이 소금과 후추다. 음식은 다른 첨가물이 아니라 원재료의 맛이 살아 있어야 한다.
248. 단맛을 낸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큰 해악은 그런 음식에 길들여지면 더 소박하고 덜 꾸밈지만 더 건강에 좋고 필요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된다는데 있다.
250. 쓰고, 시고, 짜고, 맵고, 얼큰하고, 매마른 음식은 통증을 일으키고 사람을 의기소침하게 만든다. 생기와 에너지, 활기, 건강, 기쁨과 유쾌함을 주는 담백하고 심심하면서 실속있고 먹을만한 음식이 순수한 사람들에게 좋다.

참고 : 맛집 기행, 토수, (이정환닷컴)

BOOK & FESTIVAL

텃밭정원 도시미학

농사일로 가꾸는 도시, 정원일로 즐기는 일상



텃밭정원 도시미학

글 김문환, 함성호, 배정환, 윤상준, 등저/안명준 편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12, 06

농사일로 가꾸는 도시, 정원일로 즐기는 일상

미학자, 조경가, 건축가, 원예학자 ... 도시농사(업)를 통찰하다
도시를 사랑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공부하는 모드를 위한 인문교양서

도시농사(또는 도시농업)는 도시민들이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면서 살아있는 식물과 교감하는 것으로서, 농사를 통해 먹고, 보고 느끼고, 즐기는 인간 중심의 생산적인 여가 활동이다. 농사일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과 행복을 꾀하고, 협업과 공동체함을 통해 구성원끼리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여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며, 최종적으로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을 통해 지속적인 공존을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유목하던 인류가 안정적으로 정주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 농사일이 비로소 정신의 안위와 공공선에 기여하게 되었으나, 이를 단순히 농사일의 위상이 격

상된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내 도시농사는 주로 옥상농원(텃밭형, 상자형, 관상형, 허브용 등), 스쿨팜(유아원, 학교의 화단, 계단, 옥상 등에 자연학습장), 공공텃밭(지자체가 조성한 텃밭이나 농장), 주말농장(개별 농장주가 소유하는 농경지), 도시농업공원(지자체 관리, 농사체험장, 교육장 배치) 등의 형태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일찍이 근대적 도시농업이 자리를 잡고 발전해온 국가나 도시의 선진 사례는 그 기반에 있어 우리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도시농업의 대표적 아이콘으로 여기는 독일의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이나 영국의 얼로트먼트(Allotment)는 오랜 시간 동안 정원문화와 함께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발전·쇠퇴·발전을 거듭하며 자리를 잡아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주거형태가 급격한 변화를 보이면서 현대적 정원문화가 성립될 기회를 갖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 할머니의 스티로폼과 '고무 다라이'에 뿌리 내리고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온 우리네 전통 텃밭문화가 시민의식의 성숙과 관련법 제정을 통해 공공정원 차원으로 변화될 기미가 조금씩 보이고 있다.

농사(farming)와 정원일(gardening)의 본질을 지적하며 도시적 가치를 다방면에서 보여주는 이 책 [텃밭정원 도시미학: 농사일로 가꾸는 도시, 정원일로 즐기는 일상]은 그간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내딛기 시작한 도시농사가 꼭 견지해야 할 것들을 가리키는 소중한 나침반이다.

BOOK & FESTIVAL



오순화의 나무병원

저자 오순화 출판사 진원

잘 만들어진 조경이란 어떤 것인가?

설계, 시공, 관리의 3박자가 맞았을 때 조경이 잘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주택에 처음 입주를 해서 보면 잘 된 설계든, 잘못된 설계든, 잘된 시공이든, 잘못된 시공이든 그곳에 적응하고 익숙해지며 결국 관리의 문제만을 남겨 두게 된다. 그래서 나무를 가꾸는 일이나 조경시설의 유지는 관리자의 몫이 된다. 저자는 주택관리사로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관리자의 눈으로 이 책을 쓰고자 노력했으며 전국의 수많은 공동주택관리자, 입주자, 정원관리자 등 조경관련한 많은 분들에게 조경의 상식을 넓히는 기회가 되고 쾌적하고 푸른 숲의 아름다운 공동주택을 만드는데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내 아버지의 정원에서 보낸 일곱 계절

저자 마리안네 피르스터 고정희 역 | 출판사 나무도시

칼 피르스터의 정원을 가꾼 마리안네의 정원 일기

“꽃의 황제, 정원 왕국의 칼 대제, 독일 정원의 아버지” 등으로 불리는 칼 피르스터의 외동딸 마리안네 피르스터가 독일 포츠담에 있는 보르넴 정원을 일곱 계절 동안 가꾸며 쓴 정원 일기. 칼 피르스터가 1912년 보르넴 구(區)에 위치한 감자밭 수 헥타르를 구입해 처음 조성한 보르넴 정원은 독일 정원 문화가 새롭게 퍼져나간 정원 학당이자 순례지였다. 칼 피르스터는 이곳에서 362종의 숙근초 신품종을 만들었고, 보르넴 정원을 전시정원으로 조성해 자신이 개발한 일곱 계절(초봄, 봄, 초여름, 한여름, 가을, 늦가을, 겨울) 동안 꽃피는 정원을 대중에게 선보였다.

마리안네가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책은 보르넴 정원을 방문한 수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에 답하기 위해 쓰여졌지만, 보르넴 정원의 존재를 모르는 이들에게도 터할 나위 없이 훌륭한 정원 예세이다. 부친의 영향을 받아 평생 정원사이자 조경가로 일하며 한시도 꽃과 정원을 떠나지 않았던 마리안네 피르스터의 식물과 정원을 대하는 따뜻하고 사려 깊은 시선은 보르넴 정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그녀의 재치 있는 글은 자칫 정적이기 쉬운 정원 일기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정원 일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넌지시 일러준다.

한편, 이 책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있는 세계적인 정원 사진작가 게리 로저스와 마리안네의 사진은 보르넴 정원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수많은 정원 식물과 일곱 계절 내내 우리의 오감을 충만하게 해주는 피르스터의 전시정원 속으로 독자들을 유혹한다.

yes24 서평을 발췌하였습니다.

BOOK & FESTIVAL

바캉스철이 돌아왔다.

올 여름은 어디로 떠나볼까? 휴가도 떠나고 축제도 즐길수 있는 1석2조의 축제 정보를 찾아 보자

서울연꽃문화대축제 2014

무량수경에서는 정도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화생의 근원으로 아미타경에서는 극락정토를 상징한다. 봉원사에서는 백중을 맞이하여 육법공양 중 하나인 연꽃축제를 개최한다.

기간 2014.08.17 ~ 2014.08.23
장소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주최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 영산재보존회
문의 02-392-3007~8
<http://www.bongwonsa.or.kr>



해와달의만남 당진愛 바다불꽃축제 2014

당진 왜목마을만의 유일한 러브스토리 문화축제로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 구성을 통한 방문객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 제공으로 가보고 싶은 축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한다.

기간 2014.08.02 ~ 2014.08.02
장소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왜목길 26
주최 당진시/석문면개발위원회
문의 041-350-3591~3593
<http://www.waemok.org>



자라섬 불꽃축제 2014

패밀리 힐링캠프 <2014 자라섬 불꽃축제>, 국내 년별 퍼포먼스 아로더 페스티벌이 화려한 불꽃과 함께 자라섬에서 개최된다.

기간 2014.08.14 ~ 2014.08.17
장소 가평 자라섬 서·중도
주최 동아일보, (주)켈류인베스트코리아/(주)켈류컬처앤미디어, CNK컨설팅
문의 02-588-6023
<http://www.kbbqf.com>



태백 해바라기축제

자연과 예술의 만남

전국 최대의 해바라기 꽃밭과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야생화와 함께하는 해바라기

기간 2014.07.25(금)~2014.08.16(토)
장소 강원 태백시 구와우마을
주최 해바라기문화재단
문의 033)553-9707
www.sunflowerfestival.co.kr



강원도에서 가까워서 좋다.

경기도권 수목원

가족과 함께 떠날수 있는 여름.

가까운 근교 수목원으로 나가보자.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 맑은 공기 그리고 시원한 바람을 한껏 느껴보자.

양평 들꽃수목원

허브정원에는 약 50여 종의 허브가 있으며 수생습지에서는 습지의 생태를 체험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수목원 한가운데 위치한 퍼드렁섬, 강변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강변산책로, 열대식물의 이국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열대식물원, 자녀에게 각종 식물을 연구할 수 있게 해 주는 연구소 등을 갖추고 있다.

관람시간 : 하절기(4~11월) 09:30~18:00 동절기(11~3월) 09:30~17:00

주의사항 : 매표는 폐장 1시간 전까지 가능

주 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수목원길 16

문 의 : 031-772-1800

홈페이지 : <http://www.nemunimo.co.kr>



국립수목원

국립수목원은 광릉시협림의 천연림을 이용하여 수목원을 조성하였다. 수목원 내에는 산림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전시한 산림박물관이 있다. 수목원 시설은 1전시실(살아있는 숲과 자연식물), 제2전시실(산림과 인간), 제3전시실(세계의 임업), 제4전시실(한국의 임업), 제5전시실(한국의 자연, 싸이버수목원) 표본실, 특별전시실, 시청각실로 구성되어 있다.

관람시간 : 하절기(4~10월) 09:00~18:00 동절기(11~3월) 09:00~17:00

개인, 단체 모두 사전예약제(당일 예약 불가)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415

문 의 : 031-540-2000

홈페이지 : <http://www.kna.go.kr>



아라크노피아 생태수목원·주필거미박물관

아라크노피아 생태 수목원은 1985년 9월 1일 한국거미연구소를 설립하였다. 기초과학의 번영과 국가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에 주역이 될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여, 직접 체험해보고 생물과 접해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아라크노피아 생태수목원"을 만들었다.

관람시간 : 09:00~18:00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운길산로 316

문 의 : 031-576-7908

홈페이지 : <http://www.arachnopia.com>



강원도권 수목원 및 식물원



숲체원

숲체원은 놀이와 유희만을 강조하는 기존 캠프 중심의 청소년 수련원 시설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숲속에서 자연과 하나되고 숲이 중요성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독특한 테마로 구성된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람시간 : 오전 9 ~ 13시, 오후 14 ~ 18시 야간 18 ~ 22시 (4시간)

주 소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삼교리 산 1-3번지

문 의 : 034-340-6300

홈페이지 : <http://www.soopchewon.or.kr>



제이드가든

춘천과 가까운 곳인 경춘선 굴봉산 (제이드가든)역에서 내 생애 처음 만나는 숲 속의 작은 유럽, 제이드가든(Jade Garden), 웃고, 이야기하고, 추억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숲 속 정원입니다.

관람시간 : 오전 09:00 ~ 오후 19:30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산 111번지

문 의 : 033-260-8300

홈페이지 : <http://www.hanwharesort.co.kr/irsweb/resort3/tpark>



양구 생태 식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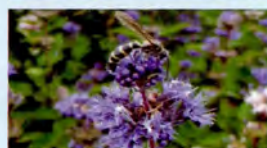
양구생태식물원은 휴전선 인근 남한 최북단의 산 대암산 기슭에 자리한 곳으로 중부 이남지역과 다른 희귀식물들을 관찰 할 수 있습니다. 149천㎡의 부지에 다양하고 많은 종의 식물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지역에 자생하는 희귀멸종위기식물의 보전 및 증식을 통하여 생태체험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관람시간 : 09:00~18:00

주 소 : 강원도 양구군 동면 원당리 송골로 310번길 169

문 의 : 033-480-2529

홈페이지 : <http://www.yg-eco.kr>



가든인에서는 경기도권을 시작으로 강원도, 충청도 및 전국의 식물원, 수목원 및 생태 학습장을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7월 경기도권을 시작으로 8월 강원도, 9월 충청도권의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가든플래너 박공영의

정원 연출 기법과 식물 선택 노하우의 모든 것

우리꽃이 제안하는 조경용 식물 가이드북

한국의 대표적인 정원 테마가 시작됩니다.

계절별 변화하는 살아있는 자연이 다가옵니다.

유럽식 정원, 이제 한국의 집과 도심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발간 10개월 만에 완판, 초판 발행 5쇄의 베스트셀러
- 교과서적 식물도감과는 다른 현장 경험을 통한 살아있는 정보와
울 컬러 사진 제공
- 혼성 혼합식재, ARI Garden, E&P(생태연못), 벽면녹화,
조경용 지피식물의 적용과 관리(A~Z)
- 현장 적용된 정원 연출 사례 제시 및 각 적용 식물의 특성 비교
- 봄부터 겨울까지 연중 꽃이 피는 혼성 혼합 식재의 비법 공개
-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는 연중 테마 정원 ARI Garden
- 1000여종 식물의 습성과 특성, 식재법을 울 컬러로 제공



가든인 독자 특별 할인가
30,000원 (정가 32,000원)



월간 <가든인> 구독이벤트

- 한국 최초 독일식 온천리조트
테르메덴 40%할인권을 제공
- 꽃씨증정

문의전화

Tel. **031-712-700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termeden.com

가든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정원을 가꾸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가드너로서의
소소한 일상을 담아 보내주세요.

사설이 채택된 독자들은 가드닝 생활에 필요한
도구 또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정기구독

16.6% OFF

정상가 12만원 ▶ **할인가 10만원**

무통장입금
예금주: **농협 355-0030-2359-03**
우리꽃영농조합법인입니다.
(입금 후 반드시 문자로 주소와 성명을 알려주세요!
배출 가능합니다.)
문의: **031-712-7009**

Gardenin



테르메덴
월간<가든인> 정기구독이벤트

40% 할인권

[기간] 2014. 8. 1 ~ 2014. 8. 31

Gardenin

정말 멋진 정원 4만 달 이상으로 채워졌나요?
가든에 대한 소중한 정보나 흥미로운 기사 등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가든인은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반영합니다.

■ 이 달에 가장 유익했던 기사는 무엇입니까?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무엇입니까?

<가든인>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할 부분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Gardenin

정상가 12만원 ▶ **할인가 10만원**
가든인 정기구독 1년 12권

신청하시는분

이름	성별
이메일	직업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주소	

*독후감 (가든인)을 위해 정해진 주소를 "가든인"에 보내주세요.

구독기간	
대금납입방법 무통장입금 (농협) 355-0030-2359-03	예금주 우리꽃영농조합법인
정기 구독 신청 및 문의 031-712-7009	

테르메덴 40% 할인권

[기간] 2014. 8. 1 ~ 2014. 8. 31

이용안내

- 스파 이용에 한해서만 할인 적용됩니다.(사우나 이용 제외)
-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1명 2인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본 이용권을 매표소에 제시하여 주십시오
- 본 이용권은 중복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 ※ 본 이용권은 비매물로 판매 및 영영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AK레저(주)
Tel. 031-645-2000 www.termeden.com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372-1

월간 가든인
Tel. 031-712-7009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전삼미로 924번길 87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받는 사람 Gardenin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전삼미로 924번길 87
가든인 Tel.031-712-7009

4 6 7 - 8 7 2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받는 사람 Gardenin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전삼미로 924번길 87
가든인 Tel.031-712-7009

4 6 7 - 8 7 2

편집후기

본격적 여름이 시작되고 있다.
휴가철이 시작되었고 해변가는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상으로 들로 바다로 다니는
그 시간이 온 것이다.
무심히 지나치며 관심 없었던 들꽃과 나무에
이제는 눈길 한번 손길 한번이
더 갈 것 같은 기분이다.

이 여름 여름이 지나면 계절의 계절을 향해
조금 다가갈 것 같다.
편히 앉고 싶지만
가든인의 되도록 좀더 노력해야겠다.

이번 8월호 역시 화이팅이다.

발행

발행인 김명태 경희대학교 명예 교수
박공영 우리씨드(Uriseed)그룹 대표 / 이학박
고문 이순영 前 한평 농업기술센터 소장
편집인 이명
전문위원 김광두 前상명대학교 산업대학 겸임교수
김광준 대원원에종모(주) 대표
김귀순 (주) 그린메이퍼 대표
박신애 건국대 생명환경과학대 교수
안완식 농학 박사 / 씨드림대표
우정아 가든 코디네이터
한국원예디자인협회 창원회장
유봉수 슬개그늘 대표
운정식 원광디지털대학교 환경건강학과 겸임
운평식 삼육대학교 명예 교수
이정식 前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이종석 서울여자대학교 명예 교수
최주권 농학박사

책임자

김지태 기자
황주리 기자
디자이너 이진희

주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전삼미로 924번길 87
전화 031-712-7009
팩스 031-634-7991

Gardenin

(주)한국원예자재

검색창에 '조이가든' 을 검색해 보세요.

검색 조이가든 shop



텃밭에서 채소,과일을 재배하고 계십니까?
옛날에 먹던 그 좋은 맛을 느끼고 싶으십니까?

맛을 좋게하는 친환경 알라스카(Alaska)가 있습니다!

알라스카 공식! check!

맛있는 채소와 과일 = 적당한 영양분 + 충분한 미네랄 공급

건강하고 균형잡힌 성장 및 결실



Alaska Plus 친환경 알라스카 플러스

1. 채소나 과일이 본래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을 더욱 좋게합니다.
2.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으개어 만든 어류 액기스입니다.
3. 동물성 아미노산이 듬뿍 들어있는 친환경 비료입니다.
4. 꽃색이 선명해지고 향이 더욱 진해집니다.
5. 빠르고 확실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잔뿌리의 수가 증가합니다.



- 시험재배용 샘플 제공 행사 안내 -

목적: 맛을 좋게하는 "알라스카"의 체험기회 제공

대상: 텃밭을 가꾸시는 100분께

응모방법: 가든센터 방문 또는 전화응모

조건: "알라스카"를 써보시고 사용후기를 알려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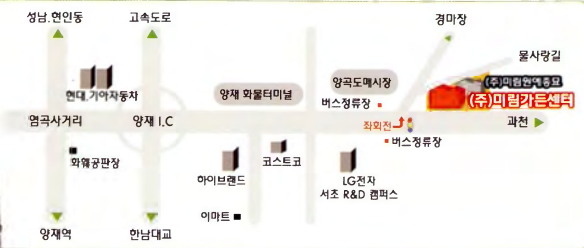
기간: 8월 15일까지(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체험담 *

"2013년 텃밭의 고추에 알라스카를 사용하였습니다.
고추를 먹어본 사람들 모두 맛이 확실히 다르고 좋다는
칭찬에 금년에는 여가까지 채소에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 경남 산청 임** 씨 -

(주)한국원예자재 - 가드닝/원예전문 매장

미림가든센터



Tel. (02)585-5346, 503-7080 Fax. (02)588-9593 경기도 과천시 물사량로 257 (주암동) 구 주소: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47-8

조선왕조 500년 온천의 명소 이천! 품격이 다른 온천수 – 테르메덴



중부·수도권 제일의 온천으로 테르메덴 선정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어행가협회 그리고 관광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이천 '테르메덴'을 중부·수도권의 최고의 온천으로 선정하였다. 테르메덴 온천수는 자극성이 강한 유황천이나 산성천 등과는 달리, 알칼리성 온천으로 여러 가지 효능의 성분이 골고루 혼합된 온천수이다. 수질은 부드럽고 온화하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적합하고 특히 병후 회복과 건강 증진, 피로회복, 스트레스 해소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을 완화하고 피부를 아름답고 부드럽게 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

삶의 무게를 느낀다면 **단언컨대 온천욕은 가장 완벽한 힐링**입니다.



셔틀버스 운영시간

이천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구 제일은행)에서
테르메덴 무료 셔틀버스 이용(약 15분 소요) → 이천 테르메덴 도착

구분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 → 테르메덴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앞 출발)	테르메덴 → 이천터미널 (테르메덴 본관 앞 출발)
매일 (월~일)	08:20 09:20 10:20 11:20 13:00 14:20 15:20	12:40 14:00 15:00 17:30 18:30 19:30

* 한차 및 도로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독일식 온천리조트

테르메덴

에이케이레저(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372-1

문의 : 031)645-2000